



5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5호

(루게 547)



◆◆◆◆◆◆◆◆◆◆ 차 례 ◆◆◆◆◆◆◆◆◆◆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자	4
사랑의 비웃앞에서.....	6
장군봉 향도봉	6
그이 지켜보시는 길	7
내 삶의 요람.....	7
위대한 주석께 드립니다	8
김정일 그이는 조선의 향도성	8
어머님 자취어린 력사의 땅에	9
한번 다시	9
명언해설	10
헌시에 깃든 숭고한 뜻.....	11
따라서는 마음	13
명제해설	14
세계지도앞에서	15
대동강의 룡	16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창작방법, 최고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19
우리 집 사진첩엔.....	25
평양의 모습 (외 2 편)	26
철길을 다지며	28
내 고향의 잣나무.....	29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알았다 (외 1 편).....	36

더 깊은곳으로	37
내 삶의 요구.....	46
나는 농민이외다	47
아름다운 밤.....	48
기쁨이 마중오는 길	48
눈보라	49
아버지들이 심은거란다.....	58
탄부가 받은 인사.....	59
아버지의 훈장과 메달 (외 1 편).....	60
안타까움 (외 1 편).....	61
우리 가는 길.....	61
농촌 새 세대청년들의 성격창조에 바쳐진 작가의 사색과 탐구.....	62
사랑은 한밤에도.....	67
고국송 (1).....	68
아들의 령전에	71
5 월.....	80
굴포유적	80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자

지금 우리 당은 사상사업에서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일익을 맡고있는 우리 문학은 우리 당의 사상사업방침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는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는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전초병이다. 우리 작가들이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상사업방침의 요구에 맞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에서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당의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는 우리 문학작품창작에서도 철저히 관철해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문학작품창작에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구현하여야 우리 문학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여 당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할수 있다. 또한 우리 문학의 전반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문학작품이 인민대중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친근한 길동무로 될수 있는것이다.

문학작품창작에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호상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관철되어야 하는것이면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진실성을 구현하려면 작품의 형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가게 되어야 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당에서는 진실성구현문제는 사람들이 믿을수 있게 사상사업을 진행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진실성이 없으면 사람들을 감화시킬수 없으며 진실성이 없는 작품은 자기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 진실성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작품에 형상된 인간과 생활이 현실에 살아움직이는 인간과 생활상 차이가 없도록 작품을 쓰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지금 일부 소설들이 인민들속에 널리 읽히우지 못하는것은 작품에 펼쳐진 생활과 현실생활과의 간격이 있는데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인물들의 리상화, 미화분식 같은것은 현시기 우리 문학의 진실성을 약화시키는 주되는 원인으로 되고있다. 현실의 인간보다 비할수 없는 높이에 올라있는 인물의 형상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문학은 마땅히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을 초월한 인물을 꾸며내면 인간과 생활을 리상화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생활에 대한 미화분식도 마찬가지이다. 미화분식은 사람들에게 작품의 형상을 믿지 않게 하며 우리의 현실을 외곡하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미화분식으로 생활을 찬미하게 되면 독자들의 공감을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작품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질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없게 된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인간과 생활에 대한 리상화, 미화분식과 같은 편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작품들에서 전형화에 대한 낡은 개념과 도식에 사로잡혀 긍정인물들에게는 이사람 저사람에게서 좋은점을 하나씩 따다가 종합해놓아 리상화하는 폐단과 부정적인물들에게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것을 따다가 한사람에게 집중시켜 회화화하는 경향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시문학에서 우리의 생활을 추상적으로 미화분식하여 노래하는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창작태도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작가들이 진실성이 구현된 작품을 쓰려면 당에 대한 깨끗한 량심, 참다운 작가적인 문학정신을 가지고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는 당의 위업을 깨끗한 문학적인 량심을 가지고 받들어야 하며 량심을 가지고 사회앞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시대의 량심을 대변하여 대중을 감화시켜야 한다.

량심이 없는 작가는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키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의 위대한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할수 없고 가식과 거짓을 가지고 작품을 쓰게 된다. 창작에서 진실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창작실무에 대한 문제이기전에 작가의 량심과 직접 관련되는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당적작가로서의 깨끗한 량심을 가진 작가만이 창작에서 진실성을 구현할수 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과학성을 구현하려면 형상의 논리와 생활의 논리가 맞아야 하며 작품에 형상된 인간과 생활이 현실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사리와 리치에 맞도록 사상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과학성을 구현하는데서 당이 요구하는 근본문제이다. 작품에 인간의 성격을 하나 창조하여도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하여야 하며 생활의 논리에도 맞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에 대한 미학적분석과 평가가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아야 형상이 납득이 갈수 있으며 작품이 예술적설득력을 가질수 있다. 형상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작품은 독자들을 감동시킬수 없는것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과학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을 현실과 맞지 않게 꾸미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현실의 의의를 소홀히 하고 작품을 꾸미게 되면 생활을 외국하게 되는것은 물론 진실하지 못한 형상을 고안하게 됨으로써 생활의 논리에도 어긋나게 된다. 현실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논리를 무시한 그 어떤 형상적 《매력》도 그것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을수 없으며 감화력을 가질수 없다.

현실발전과 생활논리에 맞으면서도 예술적설득력을 가지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작품의 형상원리를 옳게 파악하여야 한다. 형상원리를 깊이 터득하지 못하고서는 어느것이 생활의 논리이며 형상의 논리인가 하는것자체도 옳게 식별할수 없으며 현실발전의 합법칙성이 무엇인가 하는것도 알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인간과 생활을 미학적으로 가장 정확히 분석평가할수 있는 형상원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지침인 주체적문제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주체의 문예관을 소유하여야 한다. 주체의 문예관으로 철저히 무장할때만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에서 가장 합법칙적인것이 무엇이며 작품의 형상이 생활의 논리에 부합되는가 하는것도 옳게 파악할수 있다.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민음이 가게 형상되어야 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절실하게 해답을 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해줄 때 그것은 독자대중에게 빨리 접수되고 보급될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친절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친절성의 구현은 현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해줄 때 관철될수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이 의도하고 인민대중이 요구하고있는 문제는 류레없이 엄혹한 격변하는 정세하에서 참담게 사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문학은 응당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 인류의 자주위업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 때에 인간

은 과연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인간학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근본문제는 신념과 의지문제이다.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과 의지만 가지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이 형상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당과 수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신념과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며 그것이 인간의 참된 삶을 빛내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힘있게 보여 주는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것도 우리 당이 안겨준 신념과 의지가 있기때문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시대의 의지를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온갖 형상수단을 다하여 높이 구가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문학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지상의 과업이다.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에서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옳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체험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실체험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의 근본방식이며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는 문제이다. 위대하고 벽찬 현실속에 들어가야 시대의 지향과 의지와 숨결을 똑바로 체득할수 있고 위대한 현실의 산아들을 뜨겁게 포용할수 있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의 현실체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들이 싸우는 전선으로 달려가던 그런 자세와 립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사상전선인 문학부문을 지켜선 영예로운 초병답게 현실체험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현실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온갖 난관을 뚫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속에서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에서 시대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올수 있으며 거기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진실하게 반영될수 있는것이다. 현실체험이야말로 문학작품창작에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구현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이다.

현시기처럼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지닌적은 없다.

언제나 당의 위업에 충실하였으며 문학으로 당을 받들고 옹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온 모든 작가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의도에 맞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사랑의 비웃앞에서

진철현

상기도 귀기울이면
친애하는 그이
그날에 보초병에게 하시던
사랑의 그 말씀
조용히 울려올듯

지금도
포개놓은 비웃을 펼치면
친애하는 그이
손수 만져보시던 그날의 그 온기
뜨겁게 이몸에 흘러드는듯

아, 입으면
그이 사랑 철의 갑옷이 되어
사나운 비바람 막아
이몸 후더워질듯

레사로이 그 비웃 입을 때면 생각나누나
초소의 밤도 지새던
어느날 새벽
오신다는 소식도
기별도 없이
우리 보초소를 찾으신 지도자동지

비에 젖은 병사의 차거운 손도
다정히 잡아주시고

이런 날의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여
밝은 미소 지으시며
보초병의 잔등도 두드려주시던
한없는 그 은정

후둑후둑 비방울은
그이의 옷자락을 적시건만
보초병이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면 안된다고
자신께서 쓰시던 비옷마저
넘겨주신 그 사랑이여

아,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그 사랑 못잊어
날이면 날마다
고마움에 젖는 병사의 마음

그 사랑속에
그 믿음속에
사나운 불비속도 뿔고 헤치며
일당백의 용맹 펼치나니

그이를 따르는 길에
그이를 옹위하는 길에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해
내 하늘땅 끝까지 앞장서가리!

가사

장군봉 향도봉

전종림

백두산에 솟아올라 네 모습 장엄한가
천지가에 뿌리내려 네 모습 장엄한가
아 장군봉 향도봉
나란히 솟았구나 백두산에 솟았구나

솟는 해를 먼저 안아 어둠을 밝혀주네
뜨는 별을 먼저 안아 이 땅을 밝혀주네

아 장군봉 향도봉
나란히 솟았구나 하늘가에 솟았구나

령장의 기상일세 영웅의 기개일세
혁명의 봉우리 영광의 봉우리여
아 장군봉 향도봉
우리를 굽어보며 천만년 솟았구나

그이 지켜보시는 길

(총련) 김나래

떠나간 자동차의 불빛은
멀리 멀리에 사라졌건만
친애하는 그이께선
오래오래 그 길을 지켜보고계셨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총련의 로간부를 배웅하며
좀처럼 자리를 뜨시지 못한
그날의 그이의 마음
세월이 흐른 오늘에 우리 다 알가

웅근 하루였다
병환으로 고생하는 몸인데
사업이야기는 그만두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자고 하시며
호수가에로 손을 이끄시고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웅근 하루였다
유람선에도 함께 오르시고
낚시대도 쥐여주시며
웃는 얼굴을 보니
나도 기쁘다고 말씀하시며

현지지도로 바쁘신 몸인데도
떠나는 모습을 봐야 안심하겠다고
눈물에 젖은 로간부의 손을 잡고
몸소 차안에 앉혀주신 그이

해는 기울어지고

별은 솟고
떠나간 자동차의 불빛은
멀리 멀리에 사라졌건만
어찌하여 그날 그이께선
오래오래 그 길을 지켜보고계셨을가

그날 그이께서
오래도록 말없이 지켜보신 그 길은
바다건너에서 찬바람 뚫고
애국의 꽃 가꾸는
이역의 우리 일터일가
동포 사는 골목골목일가

그날 그이께서
그 길너머로 그려보신것은
애국의 땀 흘리며
동지로 뭉쳐 투쟁하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일가

아, 친애하는 그이께선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생각하시어
지는 달 쏘는 해를
맞고계시는것이 아닐가

이 아침
그이께서 뜨겁게 지켜보시는 길에서
사업하는 우리의 보람
어깨에 무겁네

가사

내 삶의 요람

송찬웅

고향의 나무 하나 불밝은 창문 하나
내 어이 례사롭다 무심히 바라보라
날 안아 품어주는 소중한 보금자리
사랑하는 조국아 너는너는 내 삶의 요람

하나의 화원속에 천만꽃 설레는가
비바람 몰아쳐도 억세게 피어웃네

내 운명 지켜주는 은혜론 어머니품
존엄높은 조국아 너는너는 내 삶의 요람

내 다시 태어나도 네 품에 안겨살고
내 숨이 진다 해도 네 품에 영생하리
너없이 너없이 사는 살아도 생명없는
사회주의조국아 너는너는 내 삶의 요람

위대한 주석께 드립니다

룩싸나 바르가스

김일성 동지이시여
당신의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위대한 당신께 인사드리려
멀고먼곳에서 우리 왔습시다

세계의 앞길 밝히시는 태양
베루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인사드리려 우리 왔습시다
배고픔 모르고
병고칠 걱정 모르는
조선인민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려
우리 당신을 따릅니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힘을 불패로 믿으시기에
인민은 위대하고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을 못하나니

감사의 정 흠모의 정
하늘땅에 넘쳐납니다
세계인민모두가
조선인민과 함께
당신의 탄생일을 경축합니다

내 조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본 모든것
위대한 령도자를 따르는
조선인민의 위대성을 만방에 자랑하렵니다
베루인민은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는 베루시인임)

김정일 그이는 조선의 향도성

느크와지에 앙뜨완느

백두산밀영 귀틀집에서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아름다운 나라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조선은 험난한 폭풍우속에서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용감한 인민은 시련속에서도
조선식사회주의를 견결히 지켜가노라

그이의 령도로
인민대중은 수령님의 두리에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칠수 있었나니

아 **김정일**
그이는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사회주의조선을 누리에 빛내이시는
조선의 향도성이시여라

(필자는 까메룬 국회의원임)

어머님 자취어린 력사의 땅에

리준

여기 어머님 자취어린
력사의 땅, 혁명의 성지에
꽃은 폈고나 새들은 노래하누나
빛나는 눈동자에 고이 담았던
조국의 하늘은 그날처럼 맑고 푸르구나

목메여 어린 아지에 불을 비비던
청봉의 푸른 숲이
방울방울이 옥같이 소중한
두손 모아 정히 뜨던 삼지연 맑은 물이
그날처럼 기쁨에 설레이누나

아, 김정숙어머님 그 사랑이
꽃이 되어 아름답고
숲이 되어 무성하고
별이 되어 노래되어 정다운곳
성스런 혁명의 전적지여!

생각하노니
타향에서 처음 안긴 조국땅이어서
어머님 마음 그리도 사랑에 불탔던가

걸음걸음 두손으로 쓸어안으며
복받치는 격정에 목메였던가

빼앗긴 조국,
찾아야 할 조국을 위해
장장 긴긴세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목숨보다 귀중한 이 땅이었거니

내 진정 알았던가 몰랐던가
나의 피와 땀도 진하게 스며여있어야
조국의 꽃 한송이 풀잎 하나도
어머님처럼 뜨겁게 사랑할수 있는것을
제살불이처럼 아낄수 있는것을

오, 여기 어머님 자취어린
력사의 땅, 혁명의 성지에서
살아온 반생을 돌이키는 마음아
이 땅의 꽃잎 하나를 위해서도
바치고 바치고픈 나의 심장이!

벽시

한번 다시

한정규

처녀야, 기계로 통통 모뜨는 처녀야
일손이 흥겹다 기분도 붕붕 뜨지 말라
애기모 한대에 왕이삭 열개라
홀린 모 없는가 살피라 한번 다시

총각아 기계로 슬슬 모내는 총각아
일손이 신난다 마음도 슬슬 넘지 말라

어린 모 한포긴 금난알 한되박
빈포기 없는가 살피라 한번 다시

꽃다발 안고서 똥똥 목마를 탈 때도
하루일 넘쳤다 마음은 똥똥 뜨지 말라
이 봄날 모내기엔 만풍년 달렸으니
제철에 끝낼 맘 다지라 한번 다시

명언해설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밀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밀천은 사람이다. 자본가가 돈을 밀천으로 하여 치부의 탐을 쏘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밀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하신 이 말씀속에는 동지에 대한 심오한 뜻이 깃들어있다.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동지란 말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 사상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혁명은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결코 그 어떤 객관적, 물질적 조건이나 그리고 몇명의 개별적인 영웅호걸들에 의해 이룩되는것은 아니다. 혁명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 투쟁하려는 사람들의 단결된 힘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하기에 혁명가는 동지를 밀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나간다.

이러한 명언속에는 혁명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혁명의 진리가 담겨져있다. 이것은 튼튼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의 전로정을 걸쳐 실천적으로 확인하고 론증된것이며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불멸의 기치이며 혁명의 리정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이미 우리결을 떠나간 혁명동지들을 추억하시면서 이들모두가 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혁명동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자신의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께서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서 열다섯살까지 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동지들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지하투쟁을 할 때나 무장투쟁을 할 때나 해방후 새 조국을 건설할 때나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언제나 동지들의 사랑속에 살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속에는 혁명의 수령이 한평생 뜻을 같이하고 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람, 준

엄한 난관과 시련으로 가득찬 혁명의 수만리길에서 수령이 언제나 굳게 믿고 의거하는 사람이 바로 동지라는 크나큰 뜻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동지의 믿음과 사랑, 신념과 의리, 동지적단결에서 힘을 얻고 고무를 받으시고 지상의 행복을 찾으시며 반세기이상의 풍파많은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였다.

조선혁명의 새아침이 밝아오던 잊을수 없는 려병기에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감동깊게 울린 불멸의 동지애의 선언.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1930 6. 20

너는 김혁

나는 성주》

바로 이 선언에는 령도자는 전사를 믿고 전사는 령도자를 믿으며 운명을 같이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없는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 동지관계가 깊이 고동치고있다.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진 이 인간관계, 이 동지관계, 동지적 믿음과 사랑은 혁명이 언제 승리하리라는 기약도 없던 그때 청년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새 력사를 개척할수 있게 하였으며 혈전만리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실로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명언은 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불멸의 명언이다.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동지적 믿음과 사랑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혁명의 주체로 굳게 결속시켜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헌시에 깃든 숭고한 뜻

우리의 시문학발전에서 송가문학이 차지하는 지위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것은 우리의 혁명적현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날을 따라 발전하고있으며 인민이 누리는 무궁한 행복이 그이의 품속에서 날로 꽃피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송가 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바야흐로 설명절이 가까와오던 1973 년 12 월 어느날이였다.

한 시인은 뜻밖에도 새해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창작과제를 받아안게 되었다.

새해 연회공연때에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읊어드리게 되어있는 헌시였다.

이 영예로운 창작과제를 받아안은 시인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새해 설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공연에서 헌시를 읊어드리는 일이 없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전성기가 마련된 1970 년대가 시작되는 첫해 설명절을 앞둔 때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해 설명절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공연 첫 순서에 헌시랑송을 넣을데 대한 새로운 발기를 하시고 1970 년을 맞는 뜻깊은 설날아침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헌시를 읊어드리도록 하시였다.

바로 그 영예로운 첫 헌시도 이 시인이 맡아썼던것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네해가 되는 이날 또 다시 그런 영예로운 창작과제를 받아안았으니 그의 가슴이 어찌 설레이지 않으랴!

시인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친작송가들과 그이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옮긴 충성의 노래들을 거듭 깊이 연구하면서 붓을 들었다.

충성의 새해헌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흥모가 절절히 노래될수 있을가.

어느덧 시인의 머리에는 몇해전 창작가들이 만든 충성의 송가를 지도하시면서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절절한 말씀이 떠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날 작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간이 겪어온 모든 고생과 슬픔과 피로움을 다 체험하시였고 위험한 사선을 수없이 넘어오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 3 년간의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시기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마음 편히 쉬신적이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간곡한 말씀을 되새길수록 시인의 가슴은 세차게 뛴뛰기 시작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이야말로 헌시에 담아야 할 내용이었고 헌시에 짚아야 할 일관한 감정이였다.

시인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며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여 충성의 시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헌시》를 완성하였다.

12 월 31 일이었다.

시인은 인민문화궁전으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시인이 새해연회공연 시연회가 있게 되는 인민문화궁전으로 달려갔을 때 거기서는 벌써 예술인들의 연습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얼마후 장내에 갑자기 요란한 박수소리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시연회장소에 나오신 것이였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게 된 이 순간 시인은 크나큰 감격으로 하여 목이 메고 눈부리가 확 달아올름을 어쩔수 없었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시연회의 막이 올랐다.

처음으로 헌시가 랑송되였다.

미숙한 시이지만 배우가 랑송을 잘해주었으면 하고 시인이 속마음을 조이고있는데 문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헌시창작가를 찾으시였으나 시인은 인차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옆에서 한 일군이 일려주어서야 시인은 일어서며 정중히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을 몸 가까이 부르시고 매우 만족한 음성으로 새해헌시가 좋다고, 자신께서 이미 헌시를 보았는데 잘 썼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뜻밖의 과분한 치하에 시인은 한순간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제 시연회에서 헌시랑송을 들으시고 우단점을 지적하여주실줄 알았는데 새해를 맞으시며 돌보실 일이 그처럼 많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헌시를 미리 보시였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옆에 앉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지금까지 쓴 헌시들 가운데서 제일 잘 썼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시인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이번에 좋은 시를 썼는데 앞으로 더 좋은 시를 더 많이 쓰기 바란다고 크나큰 고무를 주시는것이였다.

진정 감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건만 4 년전 그날에는 새해헌시를 쓴 시인이라고 대견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다시 분에 넘치는 평가와 치하를 안겨주시니 시인은 진정 송구함을 금치 못하며 더욱욱 머리를 숙이였다.

은정넉친 장내에 이윅고 헌시가 송엄하게 울리였다.

소나무 푸르른 만경봉기슭에
수령님 탄생하시여
조선의 새아침이 밝아온 그날부터
예순두번째
경사로운 새아침이 왔습시다

이렇게 시작된 헌시는 일찌기 10 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선의 슬픔, 조선의 고통을 한가슴에 다 안으시고 눈보라 우는 천리 장강을 건느시였고 20 대의 청년장군으로 백두밀림에서 일본제국주의 백만 대군을 때려부시였고 30 대의 젊으신 나이에 피바다에 잠긴 이 나라를 구원하시여 영원한 조선의 봄을 안고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었다.

계속하여 헌시는 미제침략자들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처박으시고 재더미속에서 조선의 본때로 사회주의대강국을 일떠세우시였고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인류가 걸어갈 앞길을 밝히시며 공산주의미래에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기적위업을 높이 칭송하고있었다.

헌시는 계속하여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이 땅에 높이 솟은 주체조국의 위용을 노래하고있었으며 새해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고 3 대혁명기치높이 6 개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서 승리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갈 충성의 결의를 노래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하였다.

우리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이 영광의 길에서
우리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해 살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대를 이어 수령님의 위업을 빛내여갈것을
이 아침 엄숙히 맹세합니다

조선의 행복이시며
인류의 영광이시며
영원한 주체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백두의 성산이 천만년 솟아있듯이
동해의 물결이 억년 푸르듯이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헌시의 랑송을 시종 깊은 관심속에 들어주시였다.

이윅고 그이께서는 헌시에서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대목은 좀더 절절하게 읊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며 랑송에서 력점을 찍어야 할 대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시인에게 시랑송에 대한 의향까지 물어주시였다.

자기가 쓴 시에 비해 랑송이 잘되였다고만 생각하고있던 시인은 너무도 겸허하고 소탈하신 그이의 물으심에 그만 목이 메어 무엇이라 말씀드릴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헌시랑송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노래며 기악, 무용 등 모든 종목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공연의 완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리하여 공연의 모든 종목이 티없이 다듬어지고 완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을 관통하고있는 철칙으로, 그 출발점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되고있음을 시인은 이날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벌써 시간은 퍼그나 흘러 시연회장을 나설 때는 새해의 종소리가 울린지도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난 뒤였다.

집으로 돌아온 시인은 또다시 크나큰 감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통하여 새해헌시를 쓴 시인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셨던 것이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신 연회에 참가하도록 시인을 부르라고 이르셨던 것이다.

시인은 너무도 뜻밖에 거듭되는 감격을 받아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시인은 날이 밝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불러주신 연회장으로 갔다.

이날 새해헌시를 쓴 시인을 식탁에 불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종 밝은 미소를 담으

시고 기쁨에 잠기시여 시인에게 다시금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면서 새해에 더 좋은 시를 쓰라고 거듭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이것이 어찌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를 창작한 한 시인에게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믿음과 사랑만이겠는가.

일제의 검은 구름에 짓눌렸던 조국땅에 광복의 새아침을 안아오시고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우리 수령님. 주체의 해불로 온 누리에 인류의 영원한 봄, 자주시대의 새봄을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창작된 수많은 헌시들마다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렇듯 숭고한 로고와 자애로운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는 마음

진창우

출근길 흥겨울 때도

내 홀로 순찰길 걸을 때도

이 가슴에 출렁이는 그날의 푸른 강물

마음속에 다가서는 그날의 그 모습

한걸음 앞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깊은 강물

한걸음 뒤에는

삶이 꽃피는 푸른 기슭

아, 그대는 주저하지 않았구나

어린 생명을 위하여

사품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든

산촌의 젊은 보안원

그에게도 있었더라

한창 꽃피는 사랑

삶에 대한 꿈도

마음 부푸는 희망도

허나 아끼지 않았구나

아껴야 할 어린 생명을 위해

마음도 걸음도 이어져있는

인민의 안녕을 위한 그 길에

무심히 걷지 않았구나

길가의 작은 돌부리마저 걸어내며

아이들 손잡고 가는

어머니들의 그 밝은 미소에

온 마을 웃음도 안아보았던 그대

자신의 한목숨 내대어

우리의 미래를 떠받든 젊은 보안원이여

한송이 두송이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듯

내 나라 집단주의 화원에

질은 향기 더해주는 그대는 한송이 꽃

아, 내 어깨우에 빛나는 별의 무게

그대는 말없이 깨우쳐

인민의 복무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뜨거운 영생의 심장으로 떠밀어주나니

전체를 위하여

자기의 한몸도 서슴없이 바치는

이 시대의 참된 인간들로

당을 보위하는 성새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는 불패의 보루로 솟아있어라

명제해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려야 합니다. 작품에 수령, 당, 대중에 대하여 언급한다고 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하는것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명제는 우리 문학에서 현실반영의 근본원칙에 대하여 밝혀주고있는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수령, 당, 대중의 관계이다.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이해할수 없고 그 본질을 밝혀낼수 없다.

문학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화폭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통일체라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수령을 형상하고 당을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형상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수령, 당, 대중의 3위 1체의 원칙에서 인간과 생활을 보고 그려야 한다.

작품에서 수령, 당, 대중의 3위 1체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할 주체문학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은 곧 사회정치적생명체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와 위력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 근저에는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혈연적인 관계가 놓여있다. 수령, 당, 대중이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 여기에 바로 우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본질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우리 문학은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관계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작품에서는 수령, 당, 대중을 전일적인 화폭속에서 통일적으로 형상할수도 있고 따로따로 형상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령, 당, 대중의 3위 1체의 관계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비록 작품에서 수령을 직접 형상하고 당조직선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지 못하면 3위 1체의 원칙을 구현하였다고 할수 없다. 수령이 등장하지 않고 당조직선을 직접 형상하지 않고 대중의 형상만 그리는 작품인 경우에도 당과 수령이 심려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면 수령의 위대성과 당의 령도적역할을 감명깊게 그려낼수 있다.

작품에서 수령, 당, 대중의 3위 1체를 구현하는 문제는 수령, 당, 대중을 다같이 형상하는가 따로따로 형상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혼연일체를 이룬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관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있다.

문학이 3위 1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현실을 반영하는데서 기본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지향과 요구를 잘 그려내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지향과 요구는 수령의 사상에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사상의 유일성과 목적의 공통성, 행동과 의지의 통일성에 의하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룬 사회정치적집단에서는 수령의 사상이 곧 당의 의지로 되며 인민의 신념으로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지향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작가의 탐구는 응당 수령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매시기 당이 바라고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인민이 념원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이고 그 실현방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리론적으로뿐만아니라 미학적으로도 파악하여야 한다. 수령의 의도와 당의 정책적요구, 대중의 지향을 미학적으로 깊이 파악하여야 거기에서 풍부한 예술적 환상이 계발되고 형상적인 착상이 떠오를수 있다.

작가가 자기 식으로 시대를 감수할만한 능력이 없으면 수령, 당,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아무리 리

론적으로 심도있게 체득하고있다고 하여도 그에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감수력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작가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와 운명을 같이하려는 투철한 각오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지향

과 요구를 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여 기어 이 관철해나가려는 비상한 헌신성과 열정이다.

모든 작가들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럴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의 의도와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세계지도앞에서

김재원

오늘처럼
오늘처럼
세계지도앞에서
내 가슴 이토록
자부에 넘친적 있었던가

한쪽의 등그런
세계지도앞에 마주서면
제일먼저 눈에 띄워라
내 사는 정든 집 트랙으로 펼쳐진듯한
해쫄는 나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조국이여
눈시울 뜨거이 그대를 바라보면
나에게는 생동히 들려오는도다
온 나라에 가득차 나뭇기는
붉은 기발의 펄럭임소리...

기발은 사상
기발은 진리 - !
인민모두의 운명이 담긴
기발은 조국이며
그 찬란한 미래 -

하기에
만리광야 헤쳐넘은 열혈선렬들
눈속에 묻혀 온몸이 꽁꽁 얼면서도
저 홀로 단두대에 오르면서도
끝끝내 이 기발 신념으로 지켜냈고

탄우를 뚫고 뚫고
고지에 치달아오른 전사
명령없이도 불뿔는 적화점에 날아들어

청춘을 바쳐 목숨을 바쳐
신성한 이 기발 지켜내지 않았던가

지키다 지키다
끝끝내 못지켜
기발 내리우고 땅을 치는 사람들
이 지구우에 그 얼마인가

기발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기발도 없다!
이 기발 저버리면
인민은 교아로, 노예로 운다!

그래서 나에겐
기발처럼 기발처럼 보이는가
내가 사는 나의 조국
통채로 붉고붉은 하나의 기발로

아아, 우리 수령님
백두에서 추켜드신 기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누리에 날리시는 주체의 이 기발!

기발이여 기발이여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이 세상 먼곳 가까운곳
우러러 바라보는 희망의 등대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피끓는 이 심장 다해
인민은 너를 휘날린다, 기발의 기수가 되어
우리모두를 다바쳐 끝까지 지켜갈
성스러운 내 나라 사회주의기치여!

대동강의 룡

조선미술박물관에는 17세기 미술작품인 조선화 《룡을 낚는 사람》이 있다. 이 그림은 오랜 옛날부터 신격화되고 신비화되어 숭배의 대상으로 되고 있던 환상적인 동물인 룡을 낚시로 낚아내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세상조화를 다 부리기때문에 감히 범접할수 없었던 룡을 이겨내는 인간의 힘에 대한 열렬한 긍정이 작품에 차넘치고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깊은 감동에 젖군한다.

누가 그렸는지 작자는 미상이지만 그 화가의 대단한 환상과 능란한 필치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쪽의 그림에 불과하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인 서해갑문을 찾는 사람들은 20리 날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간 뚝을 두고 그림으로써가 아니라 실지 룡을 잡아서 바다를 가로막은 놀라운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언젠가 조국을 네번째로 방문한 재중동포인 70이 넘는 장로인은 손자와 함께 서해갑문 전망대에 올라 빙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들, 내가 전년에 여길 와보구 가서 저 손자녀석에게 이야기하였지. 조국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룡을 잡아 날바다를 가로막았대구. 그래서 룡이 사람들에게 리로운 일을 한대고 말일세.》

아, 그런데 저 녀석은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더라말이야. 내 그래서 이번길에 저 녀석을 아예 데리고 떠났소. 제 눈으로 제 나라의 장한 모습을 똑똑히 보라구말일세.》

장로인은 손자를 가까이 부르더니 호기있게 팔을 내휘두르며 말하였다.

《자, 봐라, 여기 이 조각군상이 룡의 뿔이고 저 끝의 조각군상은 룡의 꼬리지느러미다. 그리고 저기 한가운데 가로질러간것이 룡의 날개구. 량옆으로 길게 뻗은것이 룡의 잔등지느러미란말이다. 그래도 이것이 룡이 아니란 말이나? 이녀석아.》

로인의 손끝을 따라 눈길을 돌리던 손자는 물론 모여선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야!》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정말 웅장한 서해갑문은 거대한 룡의 모습이었던것이다.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이구동성으로 로인의 말을 긍정하였다.

《웁습니다. 로인님, 이진 정말 굉장히 큰 룡입니다.》

그러자 장로인은 지금 중국에 사는 동포들속에 사는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서 인민을 위해 룡을 잡아 바다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

옛날부터 서해바다에는 세상조화를 다 부리는 룡들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그 룡들은 모두 심술이 사나와 사람들에게 못된짓을 하는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그중에서도 대동강을 다스리는 큰 룡이 제일 포악하였다고 한다.

길이만 해도 9천 9백자나 되는 큰룡은 자기의 네 동생을 대동강의 곳곳에 박아놓고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게 하였다고 한다.

큰룡은 해마다 7~8월이 되면 네 동생을 대동강 상류에 보내어 무더기비를 쏴게 하고 자기는 남포 앞바다에 었디여있으면서 바다물을 강으로 올려밀군하였다.

그러면 대동강에 물이 넘쳐나 강량안은 온통 물바다가 되버렸다. 사품치는 물결에 휘말려 사람이건 집이건 통채로 떠내려가는 대동강엔 사람들의 아우성소리와 짐승들의 울부짖음소리가 귀를 메웠다.

어느해엔가는 어찌나 큰물이 났던지 성천에 있던 룡라도가 평양으로 떠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니 그 큰룡과 감히 맞선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해방된 이듬해 평양에 나타난 백두산대장수가 순식간에 물길을 찢고 뚝을 쌓아 보통강개수공사를 하자 천변만화한다는 큰룡도 맥을 출수가 없게 되였다.

대동강 상류에서 동생룡들이 아무리 무더기비를 내리게 하고 큰룡이 바다물을 올리밀어도 제방뚝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어느해 여름 악에 받친 큰룡은 다른 강을 다스리는 룡들의 힘까지 빌려 대동강상류에 례년에 없는 큰비를 내리게 하였다.

불과 몇시간사이에 바다를 거꾸로 기울인듯 무더기비가 몰박으로 쏟아져내렸다.

큰룡은 때를 같이하여 바다물을 대동강으로 올리밀었다. 그러자 강물은 몇군데의 제방뚝을 넘어 집들은 물속에 잠기게 했다. 큰룡은 제재를 부르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으하하하... 그러면 그럴테지. 아무렴 우리 룡의 힘을 당할라구, 이젠 손을 들었지 별수 있나.》

큰룡은 입으로 검은 구름을 확확 내뿜으며 제법 으시대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고로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서였다.

큰룡은 깊은 바다물속에 누워자다가 몇달만에 일어나 대동강하류로 슬금슬금 나가보았다. 큰룡은 사발같은 눈을 둥그렇게 떴다. 대동강물이 갑자기 줄어든것이였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알아보려고 둘째룡을 불렀다. 웬일인지 며칠이 지나도 둘째룡이 오지 않았다. 큰룡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어느때같으면 부르자마자 달려왔겠는데 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그사이 멀리에 간것이라고 그처럼 상히 여겼다.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큰룡은 부쩍 의심이 생겼다. 그래 셋째와 넷째 룡을 불렀다.

두 동생룡은 숨을 헐떡거리며 급하게 달려왔는데 몹시 당황한 기색들이였다.

《웬일이냐?》

큰룡은 커다란 앞발로 바다물을 탕- 쳤다. 그바람에 물보라가 하늘을 뒤덮고 산같은 파도가 일어났다.

동생룡들은 무서워서 큰룡의 눈치를 슬슬 살피며 기를 펴지 못했다.

《어서 말을 해라. 둘째가 어디에 갔느냐?》

그러자 셋째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형님, 큰일났습니다. 둘째형님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큰룡은 산이 찢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둘째형님은 미림에 비끄러매어져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미림에 비끄러매어져있다니? 좀 똑똑히 말을 해라.》

큰룡이 구름을 한뿔이 내뿜으며 다그쳐물었다.

셋째룡은 기거하여 몸을 움츠렸다가 뜨덤뜨덤 입을 열었다.

《둘째형은 백두산대장수의 술법을 그대로 지닌 새 장수한테 잡혀 미림에서 대동강을 가로막는 쪽과 갑문이 되어 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림갑문이라고 합니다.》

《뭐, 뭐? 미림갑문? 등신같은게 그렇게 꼼짝못한단말인가?》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이었다.

자기의 오른팔노릇을 하던 둘째룡이 그렇게도 맥없이 잡혀 꼼짝못할줄은 몰랐다.

《어디냐? 같이 가보자!》

큰룡은 동생룡들과 함께 날개를 펴고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세마리의 룡이 한꺼번에 날아오르자 그 날개짓에 광풍이 일고 세찬 파도가 일어났다. 세쌍의 큰 날개는 하늘의 해를 가리워 순간 어둠이 깃든듯하였다.

큰룡이 노하여 내뿜는 물줄기는 바다와 땅우에 비가 되어 뿌려졌다.

미림의 하늘우로 한바퀴 빙 돌아본 큰룡의 불구슬같은 두눈은 번쩍 빛을 뿌렸다.

모든것이 죄다 사실이였다. 둘째룡은 갑문이 되어 사람들이 하라는데로 고분고분 말을 듣고있었다. 《에익 머저리같은놈! 빨간 구슬만 토하지 않으면 되겠는데 저렇게 맥을 못추다니.》

서해바다 룡들은 배안에 빨간 구슬을 간수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토하면 제마음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조화도 부리지 못했다.

심사가 뒤틀린 큰룡은 바다로 달려가 대동강으로 잔물을 올리밀었다. 그리고 동생룡들한테 눈알을 부라리며 상류에서 무더기비를 퍼부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끄떡이 없었다.

갑문이 된 둘째룡은 사람들이 하라는데로 물을 이리저리 다스리며 아무리 비가 와도 넘쳐나지 않게 하고있었다.

맥이 빠진 룡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열없이 미림갑문만 내려다보았다.

둘째가 대동강물줄기를 중간에서 가로막고있으니 그 상류에 사는 셋째룡과 넷째룡은 끈 떨어진 갯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런데 얼마후엔 또 셋째룡이 없어졌다.

큰룡은 무서워서 비실거리며 안개를 휘감고 조용히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랬더니 셋째룡은 맥전나루에 비끄러져매여 푹이 되고 갑문이 되어버린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큰룡은 어쩔줄을 몰라 온몸을 뒤틀며 허둥거렸다.

얼마후에는 넷째도 꼼짝못하고 갑문이 되고말았다.

큰룡은 더럭 겁이 났다.

그는 긴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바다물속에 깊이 몸을 숨기었다.

그후 한동안은 바다물속에서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했다. 백두산대장수와 함께 그의 술법을 그대로 지닌 새 장수가 나타나자 아무리 애를 써도 강물은 겹겹이 막아선 갑문들을 넘지 못했다.

수천년간 제노라 하면서 대동강의 주인행세를 하던 큰룡은 오도가도 못하고 바다와 대동강이 합쳐지는 깊은 물속에 몸을 숨기고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아갈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해 초여름이었다.

이날도 큰룡은 심심풀이로 바다물을 대동강으로 올리밀며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기슭에서 하늘땅을 뒤흔드는 북소리, 나팔소리 그리고 우뢰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짱 파르릉!》

주접이 들어 사는 큰룡은 그 소리에 놀라 황급히 바다물속깊이 들어갔다가 가만히 기슭으로 나가보았다.

큰룡은 깜짝 놀랐다. 백두산대장수의 술법을 그대로 지닌 새 장수가 자기를 잡아매어 20 리날바다를 막고 갑문을 막는다는것 이었다.

《뭐 뭐 뭐라구?》

큰룡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주눅이 들어 살기로서니 그래도 풍운조화를 부리는 룡중에서도 으뜸가는 큰룡인데 자기를 잡아매어 갑문노릇을 하게 하다니...

제가 살고있는곳은 동생룡들이 살고있던곳과는 대비도 안되게 물깊이만 하여도 백여자나 되고 그너비는 20 리가 넘는 날바다인데 어떻게 자기를 잡아매어 갑문을 만든다는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가늠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바다를 말리우겠다는것과 같은것이였다.

생각하면 믿을수 없는 일이지만 네 동생룡들은 꿈쩍못하게 한것을 봐선 안심할것도 못되였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물밖에 머리를 내밀고 올라다보던 큰룡은 사발만한 눈을 홑떴다. 백두산대장수의 술법을 지녔다는 새 장수가 하늘중천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새 장수는 큰룡을 보더니 거대한 손을 들었다가 획 내리그었다.

순간 《짱! 파르릉!》 하는 천둥소리가 울려왔다. 그러자 어디서인지 커다란 산들이 통채로 날개가진 새처럼 하늘에서 날아내려와 큰룡의 머리와 꼬리를 억척같이 짓눌러놓는것이였다.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급해난 큰룡은 비명을 지르며 죽을 힘을 썼으나 꿈쩍하지 않았다. 이어 조그마한 나무상자같은것들이 수없이 떠내려와 갑자기 산만큼 커지더니 가라앉으면서 큰룡의 몸뚱이를 둘러싸는것이였다.

너무도 놀라와 얼이 빠진 큰룡이 마지막 힘을 다 내보려고 등때기의 지느러미들을 곧추 세웠을때였다.

또다시 《철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천개의 시꺼먼 무쇠기둥들이 내리쫓히며 순식간에 큰룡을 쇠통판올타리속에 가두어버렸다.

급해맞은 큰룡은 비명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였다.

올려뛰자니 허리를 굽힐수가 없었다. 앞으로 나가자니 산봉우리가 장수처럼 버티고서있었고 옆으로 몸을 돌리자니 무쇠기둥이 막아나섰다.

《이젠 끝장이구나.》

큰룡은 긴몸을 스르르 늘어뜨리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속이 메스메스하였으나 빨간 구슬을 토하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그때 하늘중천에서 우뢰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큰룡아, 아직도 빨간 구슬을 내놓지 못할테냐, 빨간 구슬을 내놓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듣거라.》

큰룡은 빨간 구슬을 내놓지 않으려고 마지막 힘을 다 내었다.

그 모양을 어이없이 내려다보던 새 장수는 거대한 손을 들었다 힘차게 내리그었다.

그러자 사품치는 바다물이 물기둥을 일구며 하늘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순식간에 큰룡은 물 한방울 없는 맨땅에 홀렁 드러나고말았다. 큰룡은 더는 견딜수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제야 큰룡은 동생룡들이 어떻게 되어 새 장수의 손에 잡혀 꿈쩍못하고 갑문노릇을 하고있는지 알수 있었다.

《새 장수님,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빨간 구슬을 내놓겠으니 어서 받으십시오.》

큰룡은 입으로 빨간 구슬을 토해바쳤다. 그리고 새 장수가 하자는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큰룡의 긴 몸뚱이는 폭이 되어 날바다를 막았고 두 날개는 량옆으로 쭉 퍼져 갑문으로 되였다.

그리고 대가리에 난 두개의 뿔과 꼬리에 있는 한쌍의 지느러미는 곧추 일구어 기념탑을 세웠다.

드디어 큰룡은 서해갑문이 되었던것이다.

×

여기까지 이야기한 장로인은 《부-웅》 배고동 소리가 울리자 갑문을 내려다보았다.

여러 나라의 큰 짐배들이 갑실로 들어서고있었다.

《저것 바라, 룡이 또 물같이 시작하는구나.》

로인의 이 말에 손자는

《할아버지, 룡이 살아 움직이고있어요.》 하고 말했다.

다시 보니 정말 금시 잔잔하던 날바다가 뒤설레이는데 그우에 등실 떠서 길게 뻗어간 거창한 서해갑문은 흔들흔들 춤을 추고있었다.

정말 대동강의 큰룡이 살아 움직이는것이였다.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 최고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장형준

오늘 창작방법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 예술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최근 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됨에 따라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심한 공격을 받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이 부정당하거나 의문에 붙여지는 가슴아픈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며 사회주의의 한길로 승승장구하고있다.

문학예술의 발전은 창작방법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의 위력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를 앞으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창작방법을 똑똑히 알고 그 본질과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앞에 중요하게 나선 창작방법문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명한 령도자이시며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문학예술의 발생발전과 사실주의창작방법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시어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우리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을 주체사실주의로 새롭게 정식화하시고 그 본질적특성과 문예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예업적이 빛나게 확증되고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위력과 발전로정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가장 옳은 창작방법, 최고단계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의 창작의 힘있는 사상적 및 방법론적 무기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새롭고 위력한 창작방법이 리론적으로 정식화된것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혁명적문학예술, 노동계급과 인류의

문예리론 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한 거대한 문예사적사변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리론을 창시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공적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경위에 있어서나 철학적기초와 미학적원칙에 있어서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우리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경위와 철학적기초, 미학적원칙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옳은 창작방법이며 최고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시대와 창작방법의 호상관계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 기초하시어 주체사실주의의 특성과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주체사실주의는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창작방법이다.

창작방법은 시대의 산물인것만큼 시대의 요구를 떠나서 창작방법문제를 고찰할수 없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문학예술앞에 새로운 력사적과업을 제기하고 이 과업을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창작방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창작방법의 성격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오고 어떤 력사적과제를 해결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창작방법의 력사를 돌이켜볼 때 선행한 창작방법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인 창작방법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력사적시기에 자본주의체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으며 그가 제기한 력사적과제는 자본의 철쇄와 제국주의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

하는데 복무하는것이다. 20 세기초에 나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하여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인민대중의 생활을 혁명적 발전과 역사적구체성속에서 진실하게 그려낸 수많은 혁명적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을 계급의식,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무산계급을 해방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불려일으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으며 따라서 선행시기에 나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가지고서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인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계급혁명, 계급해방의 위업에 복무하는 사상적, 방법론적 무기로서는 계급해방과 함께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위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역사적시대의 문학예술을 원만히 창작할 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과 생활을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더욱 원만히 그려낼수 있는 보다 위력한 창작방법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 서신 첫시기에 벌써 자주시대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핵으로 하는 항일혁명문학예술과 당의 령도밑에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화원은 선행한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창작방법,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하여 이룩한 고귀한 열매이다.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그가 출현한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자기의 역사적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이러한 사실은 주체사실주의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계기와 그가 수행하는 역사적과업으로 보아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하여준다.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는 오직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해서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노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한다는 점에서는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창작방법이라고

볼수 있으나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계기와 력사적과제해결에서는 서로 엄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이다.

선행한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과 같이 자본의 철퇴와 제국주의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는 계급해방의 위업에 복무하는 문학예술을 창작할뿐아니라 자주시대의 요구를 구현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업,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완전한 실현에 복무하는 주체문학예술을 빛나게 창작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의 위력과 그 숭고한 력사적사명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창작방법, 인류의 문학예술력사에서 최고의 사실주의창작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실주의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경위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철학적기초에 있어서 선행한 사회주의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창작방법이라는것을 심오하게 해명하여주시였다.

창작방법은 철학적세계관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작가가 현실생활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데서 의거하는 미학적원칙으로서의 창작방법은 언제나 세계관에 기초한다. 그것은 인간과 생활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예술적으로 재구성하고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노는것은 작가의 사회정치적견해와 미학적리상, 생활에 대한 립장과 태도,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관이기때문이다.

인류문학예술력사를 돌이켜볼 때 세계관은 언제나 창작방법의 기초로 되였고 그것들을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작가는 진보적인 창작방법에, 반동적인 세계관을 가진 작가는 반동적인 창작방법에 의거하게 되었다.

세계관이 창작방법의 철학적기초로 되는것만큼 창작방법의 본질적특징과 문학예술발전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와 역할은 전적으로 그것이 어떤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작방법규정에서 세계관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 기초하여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근본특징과 우월성, 그 력사적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실주의가 세계관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여기에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근본특징이 있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것들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유물변증법적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견해와 관점을 타파하고 세계가 물질로 통일되어있으며 그것이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부단히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생활을 력사적구체성과 혁명적발전속에서 진실하게 파악하고 묘사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철학적기초로 되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유물변증법적철학을 자기의 세계관적기초로 한것으로 하여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진보적인 창작방법으로 된 동시에 그것은 유물변증법적철학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일정한 제한성도 가지게 되었다. 유물변증법은 세계를 변화발전하는 물질적존재로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의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바로 이때문에 유물변증법적철학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과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의 면모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는 제한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제한성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한 주체사실주의에 의하여 철저히 극복되게 되었다.

주체철학은 유물변증법적철학의 존재와 의식간의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설정하고 세계의 시원문제를 유물론적으로 밝힌 조건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세계관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른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과정을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할수 있게 되었다. 세계관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의 근본특징, 그의 본질적우월성과 혁신성이 있으며 여기에 또한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가장 옹운 창작방법, 가장 높은 단계의 사실주의창작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창작방법은 작가가 생활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예술로, 반영하는데서 의거하는 미학적원칙인것만큼 창작방법의 본질과 역할은 그의 미학적원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사실주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예술적재현에서 가장 우월한 미학적원칙을 가지고있는 우리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창작방법이다.

문학과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생활을 묘사하는데 현실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며 생활은 사람의 운동이고 그의 존재방식이다. 현실을 묘사하며 생활을 그린다하는것은 바로 그 주인인 사람을 형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이 현실생활을 그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을 형상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생활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는것은 창작방법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작방법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여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견지하고있는 미학적원칙을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을 어떤 견지에서 보고 그리는가 하는데 있다.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서는 주로 인간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었다면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보고 그린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의 이러한 미학적원칙은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두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준다. 그것은 사람을 그 본질적속성의 견지에서와 세계와의 관계의 견지에서 해명한것이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은 본질적속성의 견지에서 밝힌 사람에 대한 주체적해명이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세계와의 관계의 견지에서 밝힌 사람에 대한 주체적해명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밝혀주는 철학적해명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보고 그리는 미학적원칙을 자기의 중요한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이점에서도 역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는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이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린다하는것은 사람을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제약되는 사회적존재로 보고 그린다하는것을 의미한다.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사람에 대한 유물변증법적리해에 기초하여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림으로써 종교철학이나 관념론에 기초하여 인간을 신이나 《절대리념》에 의하여 운명지어진 숙명적인 존재로 보고 그리거나 형이상학적유물론에 기초하여 사람을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생물학적존재로 보고 그리는 온갖 반사실주의적창작방법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인간형상과 그 전형화에서 이전의 그 어떤 문학

예술도 도달할수 없었던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것은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이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면서 계급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전형화한것과 많이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인간형상과 그 전형화에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이 유물변증법적철학에 기초하여 사람이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제약된다는것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을 전형화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계급사회에서 사는 사람치고 계급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는것만큼 계급성을 전형화의 척도로 하는것은 물론 정당하다. 그러나 계급성이 전형화의 기본척도로 될수는 없다. 그것은 계급성이 사람의 사회적성격을 규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기때문이다. 사람은 계급사회이전에도 살았고 앞으로 무계급사회에 가서도 살것이다. 그러므로 계급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체사실주의는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본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사람을 전형화한다. 사람의 본성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다.

사람의 계급성도 인간의 자주적본성의 발현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사람의 계급적성격은 어디까지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맺어지는 사회적관계의 반영인것이다. 사람은 계급적성격과 함께 민족적, 력사적, 개성적 특징 등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특징들은 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구현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옳게 전형화하자면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그 기본척도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계급적, 민족적, 력사적, 개성적 특징도 정확히 그려낼수 있다.

계급성을 전형화의 기본척도로 하는 창작방법으로써는 유산계급출신의 애국자,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해내기 어렵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인물들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활동과 정신세계는 그들의 가정출신이나 계급적성분과 모순되거나 배리되기때문이다.

주체사실주의는 계급성을 전형화의 기본척도로 하는 창작방법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전형화의 기본척도로 하여 사람을 전형화하기때문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계급출신의 근로자들은 물론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적진보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의 계급출신이나 성분이 어떻든 능히 애국자, 혁명가로 전형

화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 형성된 오랜 인테리들이나 부유한 가정출신의 애국자, 혁명가의 형상은 다 인간의 본성을 전형화의 기본척도로 하는 원칙에서 창조된 인물들이다.

최근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고있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주인공들도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해서 창조된 인물형상들이다. 이 형상들은 사람의 본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전형화하는 원칙의 거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본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인간을 그리는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의 사회적계급적성격뿐아니라 그들의 정신도덕적품모를 가장 원만히 형상하게 하는 위력한 창작방법이다. 사람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의 정신도덕적품모를 그리는것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정신도덕적품모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있으며 그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긍정인물이나 부정인물의 성격을 그리는데서 그의 계급적 처지와 요구를 밝혀내기만 하면 일반화가 다 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하나의 편향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이러한 편향도 기존창작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초래되는 폐단이다. 물론 계급적 처지와 요구를 밝혀내는것은 인물형상에서 기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인물을 순전히 계급적리해관계의 견지에서만 그리면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모습을 원만히 보여줄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정신도덕적품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기형적인 존재로 형상되기때문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원만히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그의 계급적처지와 함께 정신도덕적품모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사람의 정신도덕적품모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람의 정신도덕적품모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계급성이나 민족성도 그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현이므로 인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깊이있게 그려야 인간의 자주적본성과 그에 기초하여 그들의 계급적성격과 민족적특질도 옳바로 밝혀낼수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그리며 사람의 본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인간을 전형화하는것으로 하여 인간형상과 그 전형화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른 우리시대의 가장 옳바른 사실주의적창작방법으로 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주체적 관점과 립장에서 그리는 창작방법인 동시에 현실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는 창작방법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현실을 보고 평가하는데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가, 물질을 중심에 놓는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관점과 립장에 대한 문제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주체사실주의의 미학적원칙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주체의 철학적인리를 구현하고있는 미학적원칙, 다시말하여 세계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본 인간에 대한 주체적해명,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한 미학적원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린다는 것은 현실을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그린다는것이며 현실의 변화발전과정을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보고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현실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밝힌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근본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 역시 주체사실주의에 고유한 독창적인 현실묘사원칙으로 된다.

물론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서도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형상의 중심에 내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워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럴데 대한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지 못하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럴데 대한 요구는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력사상 처음으로 제기하는 새로운 요구이다.

세계는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환경으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사람과 세계, 사람과 환경의 관계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미학적문제로 되어왔다.

여기에서 사실주의가 세부의 진실성에 대한 전형적환경에서의 전형적성격 창조의 진실성에 있다는 엥겔스의 명제가 특히 유명하다. 성격과 환경은 뗄수 없는 련관관계에 있으며 전형적성격의 창조가 전형적환경의 묘사를 전제로 하는것만큼 전형적성격과 전형적환경의 통일에 대하여 말한것은 물론 정당하다. 그러나 이 명제가 성격과 환경의 관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밝혔다고는 볼수 없다.

문제는 성격과 환경의 관계에서 어느것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지 않은데 있다. 이 명제는 물질의 1차성과 의식의 2차성에 관한 유물론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성격과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을 중시하고 성격을 환경에 맞게 창조하는데서 진실성의 담보를 보는 부족점이 있다.

사실 이 명제에 대한 리해와 창작실천에서는 성격에 대한 환경과 규정적이며 결정적인 작용과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성격의 능동적인 반작용과 주동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는 편향이 나타났다.

한때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성격과 행동도 환경에 의하여 제약되고 좌우된다는 《환경지배설》의 영향을 받아 환경에

성격을 파묻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도 성격과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을 중시한데서 오는 편향이었다.

사람이 세계속에서 살며 활동하기때문에 자연적환경이나 사회적조건이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연적환경이나 사회적조건에 그저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개조하고 변형해나가는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중심의 견지에서 현실세계를 그려야 하며 성격과 환경의 관계도 환경을 위주로 하여 성격을 그럴것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환경을 그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사람의 능동적인 역할만 강조하고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이나 주위환경을 무시해도 일없다는것은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그리면서도 물질적조건역할에 응당한 의의를 부여하고 환경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도 마땅히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그리며 성격을 위주로 하여 환경을 그림으로써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서 보여주고 주체시대의 특징과 흐름에 맞게 인민대중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빛나게 형상한다.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사람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전형화하며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현실, 사회와 력사를 보고 그리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중요한 미학적원칙과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주체사실주의의 미학적원칙에서 중요한것은 사람과 생활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 현실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원칙과 함께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은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정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새롭게 정식화한것으로서 그때까지 작가나 문예리론가들이 알고있던 종래의 명제와 전혀 다른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것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는 이 정식화는 사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정식화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가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명제로 된다는것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가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정식화로 되는것은 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새롭게 정식화되고있는데 있다.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는 명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관한 기성리론이나 명제에는 전혀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새롭게 정식화된 여기에 그것이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명제가 아니라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명제로 되는 이유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 명제에서 사회주의적인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내용을 넘두에 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창작방법은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구현하는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과 질적으로 다른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지난날 우리 작가, 예술인들과 문예리론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의 본질을 똑똑히 이해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 명제의 독창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새로운 명제인줄로만 생각하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정식화한 명제인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철한 분석에 의하여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이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과 다른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중요한 미학적원칙으로 된다는것이 비로소 명확히 밝혀졌다.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이루는 2대 범주인 내용과 형식의 견지에서 주어진 정당한 미학적원칙이다. 그것은 문학예술작품이 다른 사물현상과 마찬가지로 내용과 형식의 통일로 이루어지며 작품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창작하는가 하는 문제가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기때문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는 가장 혁명적이며 위력한 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의 혁명성과 위력은 무엇보다도 작품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내용,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내용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내용, 인간의 제일생명은 정치적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생명

관을 세워나가는 내용,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발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내용,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내용 등이 포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에 담아야 할 사회주의적내용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성은 사회적인간의 생명이며 인간을 다른 생명물질과 구별되게 하는 근본속성이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사람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 견지에서 모든 인간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이 담아야 할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자주적인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 실현된다. 자주적인간의 가장 숭고한 전형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다.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야말로 자주적인간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장 원만히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인간, 견결한 혁명가이기때문이다.

주체적사실주의는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를 통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작품의 내용으로 하여금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적내용으로 되게 한다.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는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민족적형식을 사회주의적내용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또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위력과 혁명성이 있다. 문학예술의 민족적형식은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기교를 말한다.

문학예술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창조되고 향유되는것만큼 그 형식이 민족적형식을 띠게 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식민지예속하에 있었거나 반식민지적상태에 놓여있던 나라들에서는 민족문학예술건설문제와 아울러 민족적형식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 력사적과업은 문학예술분야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때문에 순조롭게 수행될수 없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민족적형식을 오늘의 우리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민족적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예술적형식을 창조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피바다》 식가극형식과 《성황당》 식연극형식이 개척

되고 음악, 미술, 무용, 교예 등이 민족적바탕우에서 우리 식으로 새롭게 발전하며 문학과 영화예술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빛나게 창조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실천은 민족적형식가운데서 낡고 진부한것을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새 시대,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이 정당하고 위력하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당의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가장 힘있고 혁명적인 창작방법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람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새롭고 위력한 미학적원칙들에 의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가장 훌륭히 이바지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창작방법, 력사의 새 시대인 자주시대의 요구를 가장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사실주의창작방법으로 된다.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선진적인 창작방법의 출현과 그에 대한 리론적정식화는 인류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력사적기원을 열어놓고 사회주의, 공산

주의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을 새롭게 확립한 력사적사변으로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과 세계 진보적작가, 예술인들의 공동의 기쁨, 공동의 경사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과 세계의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리론적으로 정식화하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 이 위력한 사상적 및 방법론적 무기를 가지고 사회주의문학예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공격과 비난을 철저히 물리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승리적으로 창작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사실주의문학예술의 조국에서 살며 활동하는 크나큰 자랑과 민족적공지를 안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그 새롭고 위력한 창작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과시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주체사실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하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앞길에는 찬란한 성과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

우리 집 사진첩엔

정복선

행복한 우리 집
두툼한 나의 사진첩엔
기쁨과 즐거움의 화폭만이 아닌
뜻있을 하나의 추억이 있나니

부석들을 날리며
하늘땅을 깨칠듯
휘몰아치는 눈바람속에서도
승엄한 세계에 잠겨 찍은
한장의 백두산답사기념사진이어

잠시후면
눈바람도 멎고
호심깊이 내려앉은 천지는 맑아
무지개 곱게 비질 때에
기념사진 찍을수도 있었건만

누구도 하늘이 맑아지기를 기원하지 않았다
장장 스무성상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회오리치는 눈바람속에
행복한 우리 났을 세워보니
승엄함이 위대함이
가슴 그들먹이 차올라

끝까지 가야만 하는 먼먼길에
맹세와 의리를 지켜

천만리 수령님 따라온 열혈의 투사들
그 불굴의 정신 필승의 신념이
쿵쿵 심장과 함께 맥박쳤더라

눈부신 거리 불 밝은 내 집 창가에
날마다 누리는 행복한 삶이
혈값으로 차례진것이 아님을
펼칠 때마다 소중히 새겨주는

그때문이구나
어찌다 친구들이 찾아온 저녁이면
습관처럼 안해도
우리 집의 귀한 가보인듯
자랑스레 사진첩을 내어주는것이

아 조국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켜도
백두의 신념과 기상으로
받들고 지켜야 함을 스스로 알게 해주는
한장의 기념사진이어

세월이 흐른 먼 후날
사진의 색은 바랴도
언제나 백두산정에 오른 그 심정으로 살라고
나를 일깨워주는
아, 백두산답사기념사진이어

평양의 모습 외 2 편

변홍영

나는 영웅도 발명가도 아니다
나라에 이름난 시인도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
이 도시의 근로하는 보통시인

허나 평양이여, 조국의 수도여
그대는 날마다
너무도 크나큰 축복을
나에게 안겨주는구나

하루일을 마치고 길가에 나서면
시원히 뻗어간 거리
교통안전원처녀의 지휘봉도
나의 길을 열어주며 높이 쳐들리는
내 사랑하는 도시여

봄푸른 강반에 가면
버드나무 흐느적이는 유보도길이
나를 부른다
내 거기서 정다운 벗들과 함께
한때의 산책을 즐길수도 있어라

명절날
너의 공원을 찾으면
나를 맞아주는 경쾌한 유희장은
또 얼마나 좋은가
내 거기서 멀리 가버린
동요시절을 다시 만난다

내 그대를 위해 바치는것
다만 성실한 로동뿐이건만
그 어느때나 수만장서를 갖춰놓고
나를 기다리는 인민대학습당이여
사시절 사랑이 넘치는

창광원의 등근지붕이여

근로하는 내앞에
새로 선 극장들의 막이 오르고
국사를 론하는 큰 대회장의 문이 열릴 때
평양이여
이름없는 나의 존재가 그대에게 무엇인지
내 뜨거운 걱정속에 다시금 깨우치나니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사상이 빛나는 도시
근로하는 인민을
이 세계의 주인으로 선언하며
저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무한한 우주에 장엄히 비껴든
평양!

아, 나는 지금
새로 받은 광복거리 나의 집 창가에서
황홀한 수도의 야경을 바라본다
내앞에 열린 불야성의 거리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저 하늘의 별들과 이 땅의 행복을 속삭이는
무수한 등불의 바다

이 모든것 한가슴에 안고서서
나는 웨친다
이것이다, 평양의 참모습!
우리 수령님의 사랑
우리 당의 의지에 받들려
세기의 창공높이 솟아 빛나는
이것이 근로하는 인민의 수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모습이다!

어머니와 아들

환송나온 사람들로 붐비는
고향의 역두에서
아들은 어머니와 작별하였네
홀날리는 꽃보라, 경쾌한 취주악속에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는 아들

몸성히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몇번이고 이르는 어머니의 당부를
말없이 새겨듣고있었네
왜서인지 어깨에 멘 병사배낭이
갑자기 무거워진듯 자주 추스르며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네
 그러자 천만가지 소원이 내비친
 한없이 그윽한 어머니의 눈빛이
 뜨겁게 안겨왔네
 그것은 어릴적 뛰놀며 자란 고향의 들판이며
 버드나무 우거진 물맑은 강변...
 병사된 아들이 지키고 빛내가야 할
 그 모든 소중한것을 속삭여주고있었네

어느헛가 야영배낭을 메고
 동해바다가로 떠나던 그 아침처럼
 아들은 웃으며 열차에 올랐네
 이제 얼마나 먼길을 걸어
 다시 어머니앞에 서게 될지
 아는듯 모르는듯 웃고 선 아들
 하지만 난생처음 경어를 쓰며
 어머니께 인사를 남기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는 보았네, 철없는 시절과 작별하고
 조국앞에 총메고 나선 미더운 아들을,
 병사가 가는 길이 천리 불속이라도
 그 맨앞장에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 걸음을 받들어주고 그 길을 따라서며
 죽음도 막아줄 간절함에 불타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모습

그것은 무한의 시간도 공간도 지울수 없는
 어머니의 끝이 없는 자랑이었네

아, 기적소리는 울리고
 열차는 서서히 움직였네
 차창가에 손을 짓는 아들을 싣고
 천리만리 따라서는 어머니의 기원을 싣고
 열차는 저 멀리 푸른 산굽이를 돌아갔네
 이렇게 아들은 먼 초소로 가고
 어머니는 고향의 역두에 남았거니
 아들은 못잊으리라 가슴에 안고가는
 어머니의 다심한 정에 젖어오던 그 눈빛을
 어머니는 늘쌍 눈앞에 보리라
 자주 배낭을 추스르며 열차에 오르던 아들의
 모습을...

어찌 용맹하지 않으랴, 그 아들이
 어머니 계시는 고향을 지켜 조국을 지켜
 어찌 함께 맞받아가지 않으랴, 병사의 어머니가
 아들앞에 닥치는 준엄한 시련을-
 아, 어머니와 아들
 그것은 총칼로도 불길로도 가르지 못하는
 하나의 피줄기였네
 그 피줄기로 이어진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네

대동강반의 봄

봄은 한껏 푸르렀구나
 버드나무가지에도, 이 가슴에도
 봄은 삶이 약동하는 청춘인가
 애인의 애틋한 숨결같이
 내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결도
 하냥 기쁘기만 하다

내 이미
 애인과의 상봉을 꿈꾸는
 나이도 지났건만
 걷고만싶다, 이 강반에 나서면
 저기 배놀이에 취한 청춘들처럼
 젊은 날의 추억속으로 노를 저어가고싶다

그러면 저 강반의 버드나무밑에서
 나를 기다리고있는것만 같구나
 멀리 가버린 청춘시절이
 그윽한 향기로 가슴에 남아
 때없이 짜릿한 기쁨을 안고오는
 나의 첫사랑이

한들 어떠리, 푸르러오는 내 마음처럼
 설레이는 강반이여

젊은이의 노래끝에 부서지는 흰물결이여
 내 여기서 청춘시절을 다시 맞는듯
 마음은 젊어지고 다감한 열정에 불붙고
 누군들 이것이야 좋지 않은가!

내 이 강반에
 보람찼던 청춘의 자욱을 남겼거늘
 허리치는 감탕속에서 얼음섞인 물속에서
 저 이끼푸른 석축을 쌓아올리며
 내가 뿌린 구슬땀
 내가 부른 힘찬 행진곡은
 긴긴 강반 그 어디에 메아리치고있느냐

그때는 나도 새파란 청춘시절
 대학모를 벗어쥐고
 우등불가에서 격동에 찬 시도 읊었다
 고요한 저녁의 강반을 거닐며
 처녀와 꿈도 속삭였다
 그러면 물결우에 떠오르는 별무리들이
 나의 희망처럼 아름다웠나니

설레이는 이 봄의 강반에

내 남긴 젊은 날의 자옥 없다면
 어찌 이처럼 마음이 환희로울수 있으랴
 저 버드나무가지끝에 파아랗게 살아오는 봄빛도
 내결을 쌍쌍이 지나가는
 청춘련인들의 눈가에 어린 그 미소도
 어찌 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될수 있으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젊음이 싱싱한 이 강반에
 나홀로 희끗한 머리칼을 이고 선것이,

그리고 여기서 내 다시
 젊은날의 사랑에 불타던 그 시절을
 다감한 추억속에 걸고있음이...

내 가슴에 넘치는 젊음이여
 청춘시절의 추억이여
 나는 믿는다
 그것이 한생을 불붙이는 나의 열정일것을,
 그것이 조국에 바쳐갈 나의 창조일것을,
 아, 내 인생에서 봄은 가지 않았네!

철길을 다지며

황승명

자갈을 춘다
 깔목을 섬긴다
 온 마을이 떨쳐나서
 두줄기 철길우에 굽이치는 마음은 하나

모두다 자기일인듯
 로반의 조약돌 하나도
 보석처럼 닦아세우니
 철길원의 얼굴엔 웃음이 병글었네

어찌 남의 일이라
 끝없이 늘어나는 조국의 억만재부가
 강물처럼 흐르고
 날마다 시간마다
 아름찬 행복이 마주오는곳

잠시도 지체말라고
 뛴뛰는 내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지금도 철다리를 두드리며 다가오는
 차바퀴소리 ... 차바퀴소리 ...

아, 손을 들어 반기면
 온 나라에 환희와 기쁨을 안겨주며
 높이 울리는
 기적소리 ... 기적소리...

불비 쏟아지던 싸움의 그날에도
 전선으로 달리는
 저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놓이고
 잠자리에 들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몸이 그대로 교각이 되어
 끊어진 철다리를 이으며
 가로막힌 시한탄도
 가슴으로 안아내던 사람들

흔들릴수 없어라
 사연도 많고
 위훈도 많은 철길은
 온 나라에 떠받들려
 오늘도 드팀없이
 승리의 한길로 뻗어있나니

이길에
 하나의 받침돌로 굳어진대도
 나는 행복하리라
 철길이 휘도록 떠실린
 억만재부의 그 무게에서
 전진하는 조국의 뜨거운 숨결과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아, 철길을 다지며
 나사를 조이며
 내 하는 일은 크지 않아도
 고이는 이 마음이
 철도를 나라의 동맥이라 일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네

무사고정시로 오늘도
 기관사와 함께
 충성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내 고향의 잣나무

- 한 인민군전사의 수기 -

정해경

나는 군복의 령장우에 이제 겨우 한줄을 단 열 아홉살의 병사이다.

걸어갈 길이 살아온 길의 두세배가 넘고 맞이해야 할 생활도 그럴것이다. 이런 내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귀담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더우기 내포래가 아닌 인생의 년륜우에 각이한 운명을 새기며 쓰고 단 생활을 다 거쳐왔을 나이든 어른들이 생활의 첫걸음을 뎌 헛대기의 말을, 그것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대할는지. 하지만 나는 조국의 보위자로 군복을 입고 초소에 서게 된 이야기를 꼭 하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켜를 든것이다.

내 고향 천제림산마을 선전실앞마당에는 한그루의 잣나무가 서있다. 나는 고향이 그리울 때면 이 잣나무를 그려보곤한다.

누나의 머리채처럼 탐스럽고 무성한 이 잣나무는 나에게서 곧 고향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 잣나무는 30 년전에 전선에서 돌아온 나의 아버지가 재원아저씨와 같이 전쟁승리를 기념하여 산에서 자란것을 소밭구로 떠다심은것이였다.

푸른 윤이 번쩍이는 가지들을 무수히 드리우고 서있는 이 잣나무는 천제마을사람들의 마음의 벗이기도 했다. 또 비오는 날엔 우산이 되어 지나던 사람들을 가지밑에 불러들여 비를 그어주고 찌물쿠는 여름날엔 시원한 바람과 서늘한 그늘을 던져 안식을 주기도 했다.

봄, 여름 가오내 구름노전이 깔려있는 이 잣나무밑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며 여름밤을 덩굴 때면 잣나무는 밤새 쭈얼거리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푸르른 가지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부서져내려 내 고향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했다.

마을사람들은 마당청소를 해도 겨울에 눈을 쓸어도 이 잣나무밑을 먼저 쓸곤했다. 사람들은 이 잣나무를 심어가곤 우리 아버지와 재원아저씨를 대신하여 우리 집을 큰 잣나무집, 그의 집을 작은 잣나무집이라고 불렀다.

그래서인지 재원아저씨는 산으로 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나 늘 이 잣나무둘레를 돌아보곤했고 나무가지수며 가지에 튼 새둥지에 이르기까지 세여 두고 엄하게 단속을 했다. 그바람에 장난이 세찬 애들도 이 잣나무에만은 상처를 입힐 엄두를 못냈다.

전쟁때 마을에서 병약자와 로인 몇을 내놓고 장정들은 다 전선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니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었는가.

마을사람들은 이 잣나무밑에 둘러앉을 때면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늘 외우곤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잣나무는 거목으로 무성하게 자랐고 나의 아버지와 재원아저씨는 홍안의 청춘시절을 멀리 뒤에 두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다.

그런데 한 나무에 가지런히 달린 두가지처럼 지내오던 나의 아버지와 재원아저씨 사이가 인생말년에 와서 벌어질줄이야, 더우기 자신들이 심어가곤 잣나무밑에서 의절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나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보호밑에서 세상물정을 모르고 어리광을 부리던 철부지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인간의 리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주위사람들과 수림을 식별해 볼수 있게 되었고 지금껏 재원아저씨가 이 잣나무에 기울여오고있는 진정을 알게 되었다.

나의 입대동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것이다.

아버지와 재원아저씨는 해방전 소꿉시절부터 이 천제마을에서 함께 자랐다.

전쟁이 일어나자 나의 아버지와 재원아저씨는 한날 한시에 군대로 나갔다.

그런데 전선으로 나간지 몇달이 안되어 재원아저씨가 왼쪽다리에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

마을에서는 재원아저씨의 부상을 두고 여간 걱정하지 않았다.

재원아저씨는 마을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왼쪽다리를 절면서 조림작업반으로 나가 어린나무를 키웠고 키워낸 어린나무를 벌목뒤자리에 내다심었다.

전쟁이 끝나 나의 아버지가 전선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를 절면서 40 리나 되는 천제역까지 내려가 대합실에서 웅근 땃새를 묶으면서 기다려 맞아준것이 재원아저씨였다.

전선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부상당한 재원아저씨의 다리를 고쳐볼가 해서 고명한 의사들을 찾아 청진과 함흥으로 그를 부축해가지고 다니며 힘썼다.

꼭진한 그 정성이 있어서인지 재원아저씨는 결코 일하는데 불편이 없다면서 어린 나무모를 키우는 일에 극성이었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와 재원아저씨사이의 정분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군대에서 입고온 군복을 입고 다니기 좋아했다.

그러나 재원아저씨는 헌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군대에서 입고온 군복을 입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아저씨네 집에 갔다가 군복이 걸려있는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군복을 왜 입지 않나요?》

그러자 재원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입어서 께뽕기는 아까와 그런다. 이렇게 걸어 놓고 쳐다보면 더 오래갈게 아니냐.》

재원아저씨는 산에서 새 군복을 입고 일하기가 아까와 그러는것 같았다.

하기야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려 아직 형질불이가 귀한 때이니 그럴수도 있을것이였다.

전선에서 돌아와 오래동안 천제림산작업소 생산지도원을 하던 나의 아버지는 작업소 소장이 되었고 조림작업반에서 일하던 재원아저씨는 작업소 산림보호원이 되였다.

아버지는 원목을 생산하는 책임을 지고 재원아저씨는 수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관계여서 그런지 늘 머리를 맞대고 살았다.

한번은 나의 아버지가 도림업관리국 회의에 나가 통나무생산 경험토론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재원아저씨는 림철기관차소리가 날 때마다 역으로 달려가군하였고 아버지를 맞은날 저녁엔 오미자술을 들고와 부어주며 나의 아버지를 축하해주었다. 또 재원아저씨를 돕는 나의 아버지의 성의도 여간 아니였다. 재작년에 작업소 산림보호원들한테 종비나무씨를 채취하여 어린 나무를 자체로 해결할 과업이 떨어졌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일주일간이나 산에 올라가 살면서 종비나무씨를 채취하여 조림작업반에 넘겨줌으로써 다른 작업소들에까지 어린 나무모를 공급해주었던것이다.

그런데 재원아저씨가 차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봄식수때였다. 해마다 봄철식수때면 눈석이가 시작되면서 통나무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곤했다.

그 봄에도 골짜기들과 림지들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봄장마가 지는바람에 나의 아버지는 눈코뜰새없이 벌목장과 림철토장으로 오르내리며 생산을 지휘했다.

나의 아버지의 수고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마다 작업소소장이 수고한다고 인사를 했다.

그러나 재원아저씨만은 달랐다.

어느날 늦은 저녁이였다. 토장에서 통나무를 실은 림철기관차를 떠나보내고 들어온 나의 아버지가 방금 밥상을 물리는데 재원아저씨가 찾아왔다.

옷방에서 숙제를 하던 나는 재원아저씨의 말이 하도 심중히 울리는바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소장, 식수림지에 사람을 더 붙여야 하겠네, 지금처럼 심어서는 식수가 너댓댓새는 더 걸려야 할것 같네.》

《어찌겠나, 식수야 며칠 늦어진대도 후에 보충할수 있지만 계획이야 날자를 어길수 없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작업소사람을 더 붙이려네.》

한참 말이 없었다. 성냥을 켜는 소리가 나는것으로 보아 담배를 피우는 모양이였다.

《여보게 소장, 봄철에 하루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말이 있네. 봄철식수때 하루이를 늦어지면 후에 가서는 몇년을 밀지게 되는게 산농사일세, 후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책임을 켈수야 없지 않나.》

또다시 말이 끊어졌다. 이번에 할 나의 아버지 말이 몹시 기다려졌다.

《재원이, 그러기에 친구가 아닌가, 한 서너날 참아주게, 그러면 식수도 끝나고 계획도 하게 될게 아닌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는 히죽히 웃지 않을수 없었다.

친구라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재원아저씨의 말이 다시 울렸다.

《다 임자처럼 베여내는데만 머릴 쓰구 심는데는 외면하면 숲이 어떻게 되겠나. 난 가겠네.》

재원아저씨는 딱 잘라매고 돌아갔다.

아버지는 연거퍼 담배를 갈아대였다. 이러는 아버지를 보니 재원아저씨가 너무나한것 같았다. 일주일의 절반밖에 안되는 날자가 뭐길래 어쩌면 친구의 부탁도 모른단말인가...

그렇지만 재원아저씨에 대하여 내가 품었던 고까운 생각은 인차 풀리고말았다. 나에 대한 재원아저씨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기때문이다.

어느해 겨울 일요일이였다.

얼음을 까고 산천어잡이를 하느라 하루종일 물속에 뛰어들어 역사질을 하던 나는 그만 독감에 걸려 작업소진료소에 입원하게 되였다.

이때 재원아저씨는 약을 구해온다, 색다른 음식을 해온다, 어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입원실에 찾아왔다.

한번은 밤이 깊어서 산에서 내려온 재원아저씨가 입원실에 들어와 나의 머리를 짚어보는바람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저씨, 피곤하실텐데 왜 주무시지 않고 또 왔어요.》

나는 진정으로 말했다.

《이제 대학엘 가 학자님이 될텐데 미리 잘 뵈워야지.》

재원아저씨도 나도 웃었다.

내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겠다는 것을 제일 반가와하는 사람이 재원아저씨였다.

《공불해야지, 어디간들 어제날 병사였던 아버지를 잊지 말거라, 넌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다. 전쟁 때는 조국을 지켜 목숨을 내걸고 싸웠지, 전선에서 돌아와서는 오늘까지 30년나마 나라에 목재를 섬기고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느냐.》

재원아저씨의 출현은 약보다도 더 큰 효력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다.

이것은 우리 집에 내리내리 딸 넷을 두다가 터불이 벌게 막내이자 아들로 태어난 나의 앞날에 대한 축원일 것이었다.

나를 위해주는 마음은 마을에서도 여간 아니었다.

마을에서 내가 바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거의 성취할 수 있었다.

군이나 도에서 작업소에 지도를 내려왔던 간부들도 우리 집에 들러서는 아들이 나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딜 보내겠는가고 나의 장래에 대하여 마음씨주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대학엘 보내겠습니다.》라고 하곤 했다.

한번은 체육관을 짓는 목재때문에 올라온 군교육과장을 집에 데리고와 저녁상을 차려놓은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목재는 내가 책임질테니 파장동문 우리 애를 맡아 대학엘 보내주시우.》

군 교육과장선생은 예비시험날자까지 알려주며 내려보내라고 하였다.

나는 대학생이 다 된 것처럼 기뻐다.

나는 아침 일찍 학교로 갔다. 참으로 초조와 기대와 희망속에 맞고 보내는 것이 6학년의 나날이었다.

이루고싶은 희망, 바라는 소원이 순간순간 손에 잡힐것만 같았고 조금만 늦어져도 뭔가 귀중한것을 놓칠것만 같아 매일매일을 기다려 맞는 것이 졸업학년의 나날이었다.

아침 모임시간이 되어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맨 앞줄에 선 나는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을가 하고 선생님의 출현을 기다렸다. 더구나 다음날은 일요일이어서 기대가 컸다.

전번 일요일때처럼 기발대에 공화국기발을 띄워놓고 교장선생님이 또 축구경기주심을 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솟구쳐올랐다.

그런데 뜻밖에 교장선생님과 같이 나오는분은 걸을 때마다 좌측으로 몸이 실리곤하는 재원아저씨였다.

나는 기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의혹이 생기기도 했다.

교장선생님의 소개로 재원아저씨가 마이크를 들고 주석단에 나서는 것이었다.

일시에 학생들이 설레었다.

마이크앞에 나선것을 보면 무슨 희한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학생이라야 병설인 인민반까지 합쳐 100명도 안되는터여서 명절때나 무슨 행사때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쓰는 마이크의 출현은 곧 새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재원아저씨가 무슨 말을 할가? 나의 가슴은 진정할 수 없이 높뛰었다.

《학생여러분, 자연만물에 새 생명을 불러주는 봄이 왔습니다.》

재원아저씨는 첫마디부터 흥분하고있었다.

《학생동무들, 저 숲을 좀 바라보십시오. 저 숲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고 푸른 재보입니다.》

우리는 웬일인가 해서 재원아저씨가 가리키는 푸른 숲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우리 생활 그 어디나 나무와 숲과 이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집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나무! 나무!》

인민반학생들이 겨금내기로 목청을 돋구었다.

《우리가 쓰는 교과서와 학습장은 어디서 나오니까?》

《나무! 나무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어디서 나오니까?》

《나무에서 나오니까!》

학생들의 대답은 증기의 압력을 가하듯 점점 기세를 올렸다.

《산짐승들을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수많은 약초가 자라고 우리가 먹는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은 어디니까?》

《산입니다!》

학생들의 대답이 숲을 찌렁찌렁 울리며 파다히 퍼져갔다.

《그러니 숲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숲은 그해 심어 가을에 열매보는 발농사와는 달라서 한 세대가 품들여 심고 가꾸어야 다음 세대가 베어내게 되는 시대적책임감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오늘 심은 나무를 베어내게 될 사람은 바로 학생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식수사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 전에없이 인민반학생들까지 식수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해마다 식수때면 온 립산마을이 다 떨쳐나서지만 재원아저씨가 마이크까지 들고나서 선동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산에 올라가보니 학생들뿐만아니라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놀던 로인들까지 모두 올라와 무슨 명절날처럼 흥성거리고있었다.

식수도 식수거니와 산관에 열바께뜨들이 가마를 두개씩이나 걸어놓고 돼지를 잡는다, 감분국수를 누른다 하는것이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숲에서 제일 큰 명절은 나무를 심는날 같았다.

《재원막》에 점심밥팩을 두려고 갔던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점심밥팩과 보신용처럼 콩무늬에 차고다니는 조막도끼가 여기에 있었던것이다.

《 ? … 》

생산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던 아버지가 식수림지에 온것이였다.

나는 기뻐다. 이따금 서로 티각태각이 있기는 하지만 뒤는 후한것이 아버지와 재원아저씨였다.

나는 휴식때마다 무슨 별장이라도 되는듯 《재원막》을 드나들었다.

산지 합숙에서 방송줄을 끌어다가 고성기까지 설치해놓은 막은 동화집에 나오는 무슨 신기한 집같아 나의 마음을 끌었다.

재원아저씨는 산마다 눈비를 막고 침식을 할수 있게 막을 지어놓고 사람왕래가 많은곳들엔 가마까지 걸어놓았는데 마을에서는 물론 사업소에서까지도 산들에 있는 이 막을 《재원막》이라고 불렀다.

산에 선목을 하러 가는 사람들,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산짐승잡이를 가는 사람들이 이 《재원막》을 리용했고 혹시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던 사람들이 이 《재원막》에서 구원되기도 했다.

언제인가 어느 과학원에서 연구사들이 내려와 산림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올라가 《림업》잡지에 낸 글에서도 《재원막》이라고 써놓는 바람에 《재원막》은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나무모를 나누어준다, 식수구역을 떼준다 하며 땀이 화락해서 뛰여다녔다.

재원아저씨는 자막대기를 들고다니며 나무간격을 지키라거니,부식토를 더 깔아주라느니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휴식때마다 장난에 미쳐 졸업반으로, 상급생이라는것도 잊고 뛰여다녔다.

봄을 맞은 숲의 다양한 생활은 어느것이냐 다 신비스럽고 희한하여 마음을 유혹했던것이다.

싱그럽다 못해 코를 시리게 하는 맑은 공기, 방금 겨울의 시름에서 해방되어 가지들을 푸른빛으로 물들이는 침엽수들, 봄이 맞은가 문을 열고 방싯내다보는듯한 뾰족한 활엽수들의 잎새, 온 여름 펼쳐질 숲의 무한대한 무대에 나서기 위하여 발성련습을 하는듯한 갖가지 새들의 다양한 울조림, 참으로 숲은 인간의 감정을 아름답게 《치료해》주는 자연의 《병원》이라고 할지, 하여 숲에 들어서면 누구나 동심에 잠기기 마련인것이다.

방금 땅을 두지고 지나간 굴뚝기명수 두더지의 뒤를 따라 추적하는 재미며 불개미둥지를 두저놓고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 고아대다가 재원아저씨한테 들켜 수천이 사는 숲의 《거주자》들의 《안

락》한 생활을 파괴해놓았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욕먹는것이 우스워 킬킬거리던 일을 잊을수 없다. 어찌 그뿐이라, 두터운 락엽을 이불처럼 쓰고 숨어서 움지락거리는 개구리와 두꺼비를 발견하고서는 그것들이 부리는 엄살에 웃음을 쏟던 일이며 다람쥐와 찌쥐를 잡으려 따라다니다가 넘어져 무릎을 깨가지고도 좋아라 웃던 재미를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루해가 지는것이 서운했다.

하루가 스물네시간이 아니라 스물네달만큼 길었으면 했다.

식수가 끝나자 사람들이 숲을 내리기 시작했다.

각종 수목들이 쏟아놓는 감미로운 봄의 대기가 가슴을 시원히 적셔주었다.

노래를 부르는 때, 우스개소리로 골짜기를 들었다놓는때, 모두 기분이 뚝뚝 떠서 산을 내리고있었다.

《내판엔 일을 하느라고 해도 새는게 많거든. 만날 후계림, 후계림하면서도 임자가 아니었다라면 또 식수를 농칠번했거든, 아마 늙은이하구 걱정하구 발은 친척벌이라도 되는 모양이거든. 늙어가며 머리에 더 많이 찾아드는데 걱정이란말일세.》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뭐겠나. 소장이 식수를 걱정해서 산지합숙의 돼지를 트랙트르에 싣고왔길래 식수가 앞당겨 끝난게 아닌가. 나라 걱정, 일할걱정, 동무걱정… 이렇게 사는것이 인생이거든.》

아버지와 재원아저씨의 말을 듣는 나는 마냥 기쁘기만 했다.

나는 나의 친구들을 생각해보았다. 우리 학교에서 누가 아버지와 재원아저씨처럼 나와 친한 동무일가 하고 한명한명 꼽아보기도 했다.

앞서가던 애들이 환성을 질렀다.

《жат나무가 보인다-!》

아니나 다름가 어디 갔다올 때면 마을쪽을 바라보며 먼저 찾곤하는 마을의 잣나무가 바라보였다.

마을에 내려온 재원아저씨와 나의 아버지는 날이 어둡는것도 모르고 잣나무밑을 파고 거름을 주었다.

물론 나도 여기에 한몫 끼워 재원아저씨네 집에 마련해놓은 거름을 두 밀차나 날라왔다.

그날은 멀리 홀리갔으나 기쁘고 즐겁던 그날 저녁을 잊을수 없다…

봄은 겨울을 마스고 여름은 봄을 녹이고 가을은 여름을 빼앗고 또 겨울은 가을을 공격하는것이 한해를 순환주기로 정하고 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지.

시간의 흐름속에 나의 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내가 것처럼 바라고 또 아버지가 것처럼 힘써온 대학추천을 위한 시험날자가 박두한것이었다.

어째서인지 온몸이 화독처럼 달아오르고 가슴이 숲처럼 설레이기만 하여 공부도 집일도 손에 잡

히지 않았다. 하루에 몇번씩 대학모표를 그려보기도 하고 대학청사를 상상해보기도 했다.

나도 나거니와 재원아저씨는 매일 찾아와 내가 공부한 학습장을 뒤져보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내가 시험치러 군으로 가는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군에 가자마자 군 교육과장한테 찾아가거라.》

아버지는 이외에도 시험치기전에 찾아가 시험번호를 알려주라고 두명의 이름을 대주었다.

재원아저씨는 어디서 얻어왔는지 좋은 노트 두권을 가져다 나의 책가방에 넣어주며 시험은 지면 다시해보자면 흥정하는 씨름놀이가 아니라면서 덤비지 말고 아는것 한자라도 더 써넣으라고 당부했다.

나는 군에 도착한 즉시로 군 교육과장선생을 찾아갔다.

그는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러판까지 찾아와 나를 집으로 청해다 저녁식사까지 시켰다.

그러면서 시험은 두차례에 걸쳐 치는데 두번 시험성적을 평균내어 점수가 높은 순서로 51명을 뽑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대준 사람들한테도 찾아가 내가 시험치러 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51명기준에서 떨어질줄이야...

시험성적 게시판에서 내 이름을 찾던 나의 눈길은 53번째에 와서 멎었다.

나의 성적은 군적으로 53번째였다. 정말 재수가 없었다.

군 교육과장선생한테 찾아갔더니 외국어성적이 낮더라면서 두번째시험을 잘 치라는것이였다. 이런 위로의 말쯤은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시험을 대수친것이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였다. 이제 생각해보면 외국어인칭변화는 쓸수 있는 문제였으나 여기저기서 뽕뽕뽕 일어나 시험지를 바치는바람에 괜히 흥떠서 시험지를 바쳤던것이다.

이제 어떻게 마올로 돌아간단 말인가?

나는 군소제지에서 30리나 떨어진 리에서 사는 이모네 집에 가서 나홀이나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나를 두고 별로 다른 말이 없었다

욕을 한다면 내가 찾아가 시험번호까지 알려준 사람들이였다.

아버지는 내가 주눅이 들어 밖에도 못나가고있는것을 보기가 민망스러웠던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알아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다.

《일없다. 2차시험까지 내려가 치거라. 수학, 물리는 점수가 높다더구나. 전화로 여러곳에 부락을 해놓았다.》

허나 이제는 아버지가 부탁해놓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싶지 않았다.

2차시험에서는 잃은 점수를 회복하여 꼭 입학권내에 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온몸을 칭칭 감았다.

《군 교육과장선생도 그렇구 내가 찾아갔던 사람들이 뭐 도와준게 있어요. 괜히 남의 시험만 망쳤지.》

내가 이렇게 말하며 외국어단어장을 번지는것을 본 아버지는 속이 타는지 이렇게 말했다.

《어찌겠니. 노력하다 정 안되면 그땐 군대라도 보내주면 될게 아니냐.》

《군대요?》

나는 시험에서 밀려나 군대에 갔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또 산지합숙으로 올라갔다.

얼마 남지 않은 년간계획수자와 겨울철 생산준비를 위해 아버지는 바빠 보냈다.

내가 시험을 치고 돌아온지 이틀후에 재원아저씨가 찾아왔다.

선목작업때문에 산지에 올라가 있었다는것이였다.

재원아저씨는 내일을 두고 여간 섭섭해하지 않았다.

더우기 내가 덤벼치면서 외국어문제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것을 알고서는 여간 나무람하지 않았다.

《림산에서 힘으로 일할 때는 지나갔어. 숲에서 물려오는 든장대를 기계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대학엘 가야 한다.》

재원아저씨의 말을 듣고있기가 뭇했던지 나의 어머니가 끼여들었다.

《어찌겠수, 실력은 돈주고도 살수 없고 어디서 꾸어올수도 없지 않수. 자 아버지말이 2차시험까지 치워보구 노력하다 정 안되면 군대라도 보내겠다고 합디다.》

《뭐요?》

난 여직 지내오면서 재원아저씨의 얼굴이 이때처럼 무섭게 번져지는것을 처음 보았다.

《노력하다 정 안되면 군대로 보낸다구요?》

가뜩이나 검은 얼굴이 분비나무 껍질처럼 꺼매지더니 얼굴근육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무 걱정마시우. 자 아버지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요.》

재원아저씨는 겨우 일어나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갔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때문에 재원아저씨한테까지 걱정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미안스러웠다.

이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늦은 저녁에 아버지가 집으로 내려왔다.

밥짝이며 조막도끼를 풀어 되는데로 던지는것을 보니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모양이였다.

《어디 편치 않으시우?》

어머니는 걱정을 앞세우며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종이장을 꺼내어 어머니가 펴놓은 밥상우에 맥없이 던졌다.

《아니 이게 뭐요.》

어머니는 종이장을 전혀 당황해하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좋은 세월에 벌금통지서를 안고 다니시우.》

나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대학이고 뭐고 다 튀는것 같았다.

나는 그 종이장을 들여다보았다.

공업림경영소의 명판과 공인이 찍힌 위반조서에는 작업소 한달 로임과 맞먹는 벌금액수가 명기되어있었다.

그밑에 크게 참고부호를 치고 이런 글발을 써놓아 있었다.

《11 월 25 일까지 립지정리를 끝내고 립지접수를 시키지 않으면 99 벌구 벌목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우의 벌금은 법적효력을 가진다.》

산림보호원 태재원 이름옆에 그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아니 재원아저씨가 ? ...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어쩌면 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친구인 재원아저씨가 이럴수 있단말인가.

내가 시험에서 떨어진 일이며, 갑자기 벌어진 아버지와 재원아저씨사이의 우정이며 도무지 뭐가 된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어떻게 그가 아버지에게 벌금을 떨굴수 있단말인가?

아버지는 벌금통지서를 집어들더니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집을 나갔다. 재원아저씨를 찾아가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따라나가며 욕을하지 말고 좋게 풀라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숲이 보이지 않게 날이 어두웠으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못해 나를 쫓아내보내었다.

아버지를 찾아 작업소 사무실쪽으로 가던 나는 잣나무밑에서 반짝이는 두개의 담배불꽃을 발견하였다.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아버지와 재원아저씨라는것을 알았다.

잣나무앞으로 가까이 가던 나는 격하게 울리는 목소리에 놀리워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나는 오고가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쩐지 오늘날은 아버지와 재원아저씨의 말을 듣고싶었다.

진짜 재원아저씨의 마음이 변했는지 그것을 알고싶었던것이다.

《...립지정리도 소장인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닌가. 래년 5 월에 가서야 식수를 할 립지인데 립지정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날것도 아니지 않나. 그런데 벌금통지서까지 떨구어야 하겠나.》

《소장, 아침에 깨곳이 물걸레를 놓은 집안의 창판도 저녁이 되면 먼지가 끼고 때가 앉아 다시 비자루를 들어야 하는데 울바자도 벽도 지붕도 없는 수림에 초두목과 아지들을 넣어놓은채 겨울을 나면 숲이 쓰게 되겠나.》

아무튼 립지정리를 깨곳이 하고 공업림에 립지인계를 한다음 새 립지로 넘어가게.》

《계획때문이라고 하지 않나. 계획을 못하면 말년에 내 립장이 어떻게 되겠나. 작업소계획이야 립방수로 평가되는게 아닌가.》

내가 듣기에 아버지 말이 옳은것 같았다.

계획을 못하면 작업소소장인 아버지의 면목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보게, 내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네.》

재원아저씨의 말이 얼마나 무겁고 심중하게 울렸던지 나는 숨을 죽여가며 이제 아버지한테 할말이 무얼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자네 막내말일세. 대학이고 어디고 노력하다 정 안되면 군대라도 보내겠다고 했다는것이 사실인가?》

《어찌겠나, 힘써보다 정 안되면 군대라도 보낼수밖에.》

《그러니 사실이였구만. 난 자네가 내 앞에서만이라도 그 말을 피해주기 바랐댔네. 이름도 어제날 그 이름, 사람도 그 사람이건만 달라졌어. 임관 변했던 말이야.》

《무엇이? 내가 변해?》

《오늘은 내가 말을 좀 해야겠네. 자넨 이 잣나무밑에서 그런 말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나. 그런 말을 하고도 마을에 머리들고 다니는가 말일세.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마을사람들의 영혼을 모독하지 말게. 그래 전쟁때 자넨 정 할수 없어 목숨을 내걸고 전선으로 나갔댔나.》

《뭘 말하자는건가? 그뎨 전쟁이 아닌가...》

《그때와 다른건 세월이 흘렀을뿐이네. 나는 조국이 위험에 처했던 전쟁시기 전선에 나갔다가 변변히 싸우지 못하고 부상을 입어 오히려 조국에 집이 된것이 제일 죄스럽네. 그래서 한생을 조국앞에 빚지고 사는 마음이란 말일세.》

조국이 부강해지고 나날이 우리 생활이 더 좋아질수록 조국을 위해 바친것이 없이 영예군인이라고 떠받드는 사랑만을 받고 살자니 가슴속에 종처라도 생긴듯이 아프기만 하네.》

재원아저씨가 잣나무밑등을 툭툭 치는 소리가 났다.

《난 오늘까지 지난 전쟁때 조국을 지켜 목숨을 내대고 3 년간을 내내 불비속에서 싸운 친구를 가진것을 자랑으로 여겼네. 그런데 자네가 감히 뭐 노력하다 정 안되면 할수없이 군대에 보내겠다고. 자네 조국의 값을 알고 그런 소릴 하나? 자넨 조국을 잊었어.》

《여보게, 아무말이나 막 하지 말게. 내가 어쨌다구?》

《소장, 우리가 이 잣나무를 왜 심었나. 조국의 귀중함을 잊지 말자고,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잊지 말자고 심었지.

우리에게 조국보위보다 더 선차적이구 이것보다 더 중한게 뭐겠나.

옛날부터 국사중에 가장 큰 국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매 가정의 아들딸중에서 제일 꼴꼴하고 제일 똑똑한 자식을 골라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자리가 조국보위가 아니겠나. 다시는 신성한 인민군대를 욕되게 하지 말게.》

《...》

잣나무가 무엇에 성난듯 《쉬-익-》하고 몸부림쳤다.

나는 땅이 꺼지고 몸이 잣아드는것 같았다.

《여보게 소장, 조국보위는 어느 한시기 어느 한세대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죽어서도 공민의 의무에서 해방될수 없는게 조국보위가 아니겠나.

자네가 립지정리를 안하고 새 립지에 손을 댄것이 우연한 일이 아닐세.

어젠 조국을 지켜 싸웠다면 오늘은 그걸 잊었거던. 숲은 조국의 한 부분일세. 힘이 들겠지만 립지정리를 하구 새 립지로 들어가게. 이것이 오늘 조국을 지키는 일일세.

내 말이 과했으면 날 용서하라구.》

발자국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아버지의것이 아니었다.

전선에서 부상을 입어 한쪽 다리에 무게가 더 실리는 재원아저씨의 발자국소리였다.

한쪽다리를 저는 볼품없이 약하게 생긴 재원아저씨의 모습이 영웅의 군상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우뚝 솟아 안겨왔다.

나는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다리가 불구인 체소한 재원아저씨에 비하면 나의 아버지는 어딘가 아득히 먼곳에서 반짝이는 반디불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여직 희망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여직 바라고 원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모르고 허황하게 꿈꾸던것이 무엇이였는가를 피로, 온 육체로 느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높은 삶, 가장 성스러운 일 그것은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 조국보위다.

그 이튿날 나는 군으로 어떻게 달려갔는지, 그리고 내가 군대탄원을 어떻게 호소했는지 모른다.

다만 나를 특별히 입대시켜 나의 가장 큰 희망을 풀어주었다는것, 내가 군복을 입었을 때 군의 일군이 고향의 잣나무를 잊지 말라고 했던 말을 새기고있을뿐이다.

이렇게 되여 나는 군에서 같이 시험을 치던 학생들이 대학모표를 달기전에 군복을 입고 군모우에 오각별을 달았다.

내가 군복을 타입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어제날의 나를 되찾고 너를 군대로 보내는것이 기쁘구나. 재원아저씨한테 찾아가 인사를 하거라. 친구가 아니었다라면 말년에 조국앞에 죄를 질번했구나.》

내가 군대로 떠나는날 온 마을이 떨쳐나와 큰잣나무집 막내가 군대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환송해주었다.

그러나 떠날 시간이 다 되여와도 립지에 올라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립지에서 내려오는 길을 연방 살피며 아버지가 웬일인가고 혀를 찼다.

이때 재원아저씨가 나타났다. 산에서 내려온 작업복차림이었다. 그의 손에 잣나무아지에 꽃송이를 단 잣나무꽃다발이 쥐여져있었다.

립철기관차가 떠나자고 기적을 울릴 때 재원아저씨는 그 잣나무꽃다발을 나에게 안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군대에 보내기전에 립지정리를 끝내겠다고 내려오지 못했구나. 자 받거라. 너의 아버지와 같이 심은 잣나무가지로 만든 꽃다발이다. 고향의 기념으로 안고 가거라.》

우리 아버지를 조국보위초소에 썼던 어제날의 병사의 자세로 다시 세워준 재원아저씨는 오늘 나에게 조국보위임무를 깨우쳐주고있었다.

립철기관차는 떠났다. 그때까지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아니 섭섭하다기보다 오히려 기뻐했다.

아버지가 숲을 버리고 나를 위해 내려왔더라면 나의 고향의 잣나무를 땃땃이 바라보며 초소로 떠나지 못했을것이다.

《숲을 잊지 말거라-!》

멀어져가는 나를 향해 웨쳤던 재원아저씨의 말이 오늘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고향의 잣나무를 그려본다.

조국보위를 더없이 귀중하게 여기며...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알았다 외 1편

홍현양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란 세대 얼마나 많으나
그러나 이 시각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침략의 검은 구름이
어느때 밀려들지 모를 이 시각

먹은 나이
살아온 세월로만
전쟁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지 말라
깊은 밤
한자두자 입대 탄원서를 쓴
스무살 꽃나이 저 숲길속에
불타는 참호가 있지 않느냐

웃음이 넘쳐나는 창가
정다운 일터를 지켜
불막이 창가림을 누벼가는 저 손길에
남강마을 너인들의 그 정성
그 위훈이 새겨지고있지 않느냐

아, 멸적의 기세는
총창에만 비낀것 아니다
화선천리 걸어온 어제날의 로병
새벽 출근길을 당기는 그 걸음새
그 발밑에 락동강의 모래불이
오늘도 타고있다

오늘도 타고있다
물안개 뿜어올리는 분수가
다감한 학창시절만 거친 저 눈빛들에

취재길 농장길만 걸어본 저 심장들에
결전의 맹세와 함께
복수의 불길이 타고르고있다

이 불길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장탄된 서리발 총창
미제침략자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의 심장속에 타는 불길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알았다

옷실에 불한번 당기지 않았어도
총탄에 귀부리 한번 스치지 않았어도
로병들의 발밑에 오늘도 타고있는
락동강의 모래불을 보며
우리가 차지할 참호를 보며
우리는 당의 총포탄이 되었다

미제와 맞서 40 여년
어느 한 순간도 늦추지 않은
우리의 신들메
때는 왔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전사의 의무를 다할 력사의 시각은...

오, 전쟁
전쟁은 바로 미제 살인귀
단 한놈도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평화의 꽃들은 피어나지 못하리
철천지 원썩 미제를 소멸하라!
우리는 이 말로 전쟁을 알았다!

병사의 봄바람

살랑대는 푸른아지 버들아지에
순간도 놓치지 못할 목표를 걸었다
한들한들 대롱대롱 흔들리는 목표
그러나 병사는 조준점에 넣었다

미제의 가슴팍 더러운 목표
병사의 조준점은 놓치지 않는다

봄바람에 버들아지 살랑대여도
병사의 심장은 드놀지 않는다

한번은 결관넬 원썩의 몰골
실버들아지에 걸었다 탓하지 마시라
이것이 병사의 봄바람
이것이 일당백 병사의 봄맞이다!

더 깊은곳으로

송영락

로성은 지금 자기앞에 서있는 향화에게서 들뜬 듯한 미소가 어린것을 감촉하였다. 어린애처럼 좀 작아보이면서도 표정이 예민한 귀염성스러운 입귀에 보조개가 핀 향화를 로성은 의심스레 바라보았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깔끔해진듯 자기 표현을 잘 나타내지 않던 향화가 어떤 중대한 이야기를 할듯이 잠시 웃음을 거두었다.

《우리 아버지가 동무를 한번 만나보시겠대요.》

《아버지를 벌써 만나보았소?》

《잠깐 만나보았어요. 바쁘신 모양이에요.》

맑게 개인 가을날의 저녁, 타는듯한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고깔모양의 버럭산들과 탄차를 끌어내는 권양탑 그리고 하늘높이 솟은 왁새기중기의 팔끝에도 선홍빛 노을이 비껴갔다.

언제인가는 향화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온 로성이지만 정작 이렇게 다닥치니 설령 거리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오늘 석탄공업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향화의 아버지가 탄광에 내려왔다.

함풍갱의 기사장인 로성은 갱의 실태 그리고 전망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몇년후에 함풍갱을 폐갱해야 하는가 아니면 심부를 더 개척해서 갱의 전망문제를 열어놓아야 하는가, 더구나 오늘날에 갱이 이런 경각에 이른것은 향화의 아버지책임도 없는것이 아니었다. 향화의 아버지는 이 탄광 지배인을 하다가 석탄공업부로 올라갔던것이였다. 이제 있게 될 론의에서 로성은 어차피 지난날 그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었던것이다. 그 미묘한 감정을 향화에게 표현하기가 더욱 면구스러웠다. 로성의 딱한 이 감정을 향화로서는 알리가 없었다. 일이란 언제나 공교롭게 제기되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엄하셔요. 한번 호령하시면 동무는 아마 기겁할지도 몰라요.》

《그렇소?》

아버지에 대한 은근한 자랑을 감춘지 못한 향화가 사뭇 즐거운듯 명랑한 웃음을 머금었다.

《이번 료해사업이 심각하다지요? 탄광에서는 분위기들이 긴장하더군요.》

탄광사무실에서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한 분위기를 숨기지 못한 관리일군들이 바빠 오고가고 심중한 론의도 하고있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가?...

로성의 마음을 알리 없는 향화가 서운한듯 고개를 들었다. 가을날 산중호수에 비낀 구름빛이 향화의 눈에 내려앉은것만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볼 용기가 없소.》

《어째서요?》

《어떻다 할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소.》

《호, 자신을 모른다는것이 참 재미스럽군요.》

흰이를 가지런히 내놓고 향화는 티없이 웃었다.

《아버지는 동무에 대해서 깊이 관심할거예요.》

참말로 시름을 모르는 처녀, 향화와 만나는 순간이면 로성은 모든 잡념에서 깨어나는것만 같았다. 맑고 차거운 물에 머리를 감은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었다. 향화의 그 애뜻한 목소리는 로성의 마음속에서 살아움직이는 감정속에 융합되는것이였다.

《참, 오늘 무영지배인동지가 집에 오라고 하더군요. 지배인동지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막역한 친구예요.》

들었는지말았는지 로성은 말없이 스적스적 걸기만 한다.

황금빛 버이삭이 물결치는 넓은 들에 저녁노을이 술곳이 잦아들고있었다. 노을빛은 향화의 흰치마와 흰구두를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무슨 생각을 해요?》

물음에 대답도 없이 로성은 자기 생각에 잠겼다. 로성은 이미 무영지배인을 만나보았다.

오후에 경박에 나오니 무영지배인이 로성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에게 지배인이 자리를 권했다.

《자네와 할말이 있네.》

심중해진 로성은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쓸쓸한 생각에 잠긴듯한 무영지배인은 담배함을 로성에게 밀어놓았다.

《우린 이제 몇년후에 함풍갱을 폐갱하기로 했소. 심부개척을 그만두자는거네. 이게 나라에 더 리로

울수도 있네. 심부개척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성공을 가히 알수 없는 일이 아닌가.》

《예?!》

지배인의 말이 로성의 귀에서 웅웅거린다. 《안돼. 안돼.》 무엇에 대해서 누가 안된다고 말하는가.

《안됩니다.》

《왜?》

지배인은 눈을 푹 부릅뜨고 두툼한 아래입술을 비죽이 내밀면서 한손을 들어 로성의 말을 제어했다.

《로성이, 우린 앉아몽개고있을수 없네. 탄광에서 넘겨받은 신설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네.》

년장자다운 아량을 가지고 지배인은 누그러온 목소리로 말하였다.

천길땅밑에 깔린 그 무진장한 석탄을 파연 버려야 하는가. 심부를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고 버티고 있었던가.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지배인이 로성의 마음을 찔렀다.

《심부를 돌파하는 투자면 신설강에서 새로운 활기를 가지게 되겠지.》

지배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는 뒤집을 진채 몇발자국 오락가락 거닐었다.

《로성이, 우린 심부에 많은 아픔을 남긴 사람이야. 자네 이렇게 말하겠지. 왜 심부를 돌파하지 못하였는가?》

얼굴이 붉게 상기된 무영지배인의 굵은 눈섭앞에 고집스러운 성격인양 몇오리 장미가 뻗뻗이 일어섰다. 그 잊을수 없는 날들이 감회되었는지 아니면 아픔의 추억이 되살아났는지 이윽도록 멀리에서선을 던졌다.

《향화의 아버지가 그때 혼이 났소. 세월은 많은 것을 물어놓았지.》

창밖의 단풍나무에서 참새가 앉아서 재깍거리다가 나무잎사귀를 떨구어놓고는 포르릉 날아가버렸다.

《우린 힘에 부쳤소, 발등에 떨어진 석탄계획부터 해야 했으니까. 4 백수준을 붙들어안고 앉아몽겔 형편이 못되었지. 우리는 거기서 간신히 한개 장벽의 탄을 캐먹고 철수했네.》

《그때 끝까지 버티었으면 지금은...》

다음말을 잊지 못하는 로성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지배인은 대답없이 긴숨을 내쉬었다...

로성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오늘 무영지배인네 집을 찾아간다는것이 어딘가 온당치 못한 생각이 들었다. 지배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였다.

《향화의 아버지는 나의 친구야. 이 갱의 숨은 력사와 숨은 흠집을 까밝혀 그의 처지를 난처하게 할 필요야 없지 않나. 그 사람의 잘못이자 내 잘못이지.》

로성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수 없었던 말이었으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히 그른 말도 아닌 것 같았다. 그 모든 리면에는 향화라는 처녀가 있다. 사람들은 이따금 원칙만으로는 살아갈수 없다고 한다. 사랑과 원칙, 그 무엇을 양보해야 한단말인가.

서쪽하늘에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송이구름의 가장자리에 노을빛이 비껴 등홍색으로 물들었다. 들국화가 무덕무덕 피어난 길녘에는 락엽이 지기 시작한 백양나무들이 정겹게 마주서서 나직이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설레이고있다. 깊은 생각에 잠겨든 로성은 그 아름다운 향화에게서 풍기는 특유한 은방울꽃 향수내와 열정의 호흡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였다.

향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로성의 어깨를 건드렸다.

《아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로성의 생각을 깨뜨렸다.

《아, 아무것도 아니요.》

《이상하군요.》

고개를 가웃하고 걸던 향화가 한순간 흘겨보는 듯한 눈을 들었다.

《내가 지나치게 기뻐한것 같군요. 동무의 심정도 모르면서...》

향화에게 할수 없는 말들을 물어둔 로성의 가슴은 마냥 무거웠다. 향화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버지의 흠집을 들춰내려 한다는것을 그가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것인가.

《향화, 아버지가 엄하다고 하셨지?》

향화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싶었다. 하지만 자기의 무거운 감정을 처녀에게까지 옮겨놓은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향화, 난 아버지가 무섭구만, 응 이너석 네가 과연 우리 향화와 짝이 될만해서 찾아왔나?》

《호.》

고개를 저으며 향화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는 축기가 무딘 녀자가 아니었다.

《나에게 무엇인가 숨기고있군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윽도록 말이 없던 향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향화가 눈길을 떼지 못하는 황금빛 들판우에서 하얀 왜가리들이 긴날개를 훨훨 저으며 날아옐다. 그아래서는 가을을 시작한 농장원처녀들이 수건을 벗어 손에 들고 흔들어대며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나에게 말해줄수 없어요?》

《아버지의 엄한 눈빛앞에 서게 되는것이 저절로
오금이 저려드는것 같소.》

《정말?》

향화는 끝이 뻐죽하면서도 매듭들이 오목오목
들어간 손을 들어 이마에 흘러내린 자분치를 쓸어
넘기다가 확 웃음을 피워올렸다.

《아버지는 그래도 너그러우셔요. 내 말을 거의
나 다 들어주시는데요. 그래도 무서워요?》

《무섭소.》

《동무는 덩치가 큰데 겁쟁이군요.》

까르르 웃음을 터치며 향화는 제잡담하고 로성
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가 기다리실거예요. 래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인차 부에 올라가신대요.》

《향화, 잠간.》

로성은 부드러운 향화의 팔목을 잡았다. 그 팔
목에서 맥박이 뚝뚝. 그 맥박은 로성에게 웅아와 자
기 심장의 박동소리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어차피 나를 좋아할것 같지 않구
만.》

《어쨌서요?》

향화는 걸음을 딱 멈추더니 의아한 눈길로 로성
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랑도 귀중하다. 그러
나 탄광의 운명을 아래로 놓을수는 없는것이였다.

《향화, 난 래일 아버지의 지난날 잘못을 들춰내
지 않으면 안되게 됐소. 가혹한 사람이라고 욕해주
오.》

《네에?!》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기라도 한것처럼 로성은
두눈을 내리깔고 아연해서 굳어진듯 서있는 향화의
말을 기다렸다.

《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요. 우리 아버지예겐
잘못이 있을수 없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였
어요.》

쏘는듯한 향화의 목소리가 바늘끝으로 쿡쿡 찌
르듯이 로성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심부름을 개척 못해서 오늘은 우리 갱이 폐갱을
해야 하는가 마는가에 이르렀소.》

《그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책임이란 말예요?》

《...》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치켜든 속눈썹이 바르
르 떨렸다.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하며 입술을 실룩거리던
로성이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침묵만이 있을듯이 움직이지 않던 향화가 고개
를 가버히 흔들었다. 성실하게 살면서 석탄밖에 모

르던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말인가. 아버지
가 잘못했다는 말은 향화에게서 귀에 설은것이였다.
그것도 로성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는것이 믿을수 없
는것이다.

《객관적조건이 그랬겠지요. 어쩔수 없이...》

《향화, 나도 괴롭소,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구만요. 그럼 어쩐다
는거예요?》

차분히 눈길을 내리깔고 조용히 뇌이는 흐려진
향화의 얼굴에 내심에서 일어나는 동요가 어리였다.

《아버지를 모욕하는가요?》

《모욕하는게 아니요. 인간은 미래에 대한 랑심
을 가지고있어야 하는거요. 진실은 시간의 흐름속
에 밝혀질것ियो.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못은
잘못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발에 가까운 목소리로 내쏘았다. 순간
로성은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무엇때문에 티
없는 향화의 마음에 그들을 던져주려 하는가. 혹시
아버지가 반대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마
음의 준비를 시키자고 했던가.

래일 있게 될 분분한 론쟁, 로성이 역시 자기의
초점과 지금 앞에 놓인 난관을 타개할 긍정적인 모
색을 해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함푹갱이 처하
고있는 모든 잘못을 전사람에게 넘겨써우려는것은
더욱 아니였다. 그러기엔 로성의 랑심이 너무도 깨
끗하였다. 반복채탄장에서는 사암과 뒤섞인 석탄이
나올뿐이였다. 《할아버지들이 좋은 탄을 다 캐먹
었다.》 지금 젊은 채탄공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직
은 늦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살지 말자는데 원인이
있다.

《우리 아버지를 꼭 까뵈려야 하겠어요?》

《글쎄 ...》

향화는 아버지가 온 기회에 로성과의 문제를 락
착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향화가 바라는대로 일은
흘러가지 않았다.

로성은 향화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룡감으
로 느꼈다. 향화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뻗을것
이였다. 아버지는 로성을 한밤중에 불빛속으로 날
아드는 철부지라고도 할수 있고 향화를 아직은 설
익은 녀자라고 욕할수도 있다.

《로성동무, 전 우리 아버지에 대한 비판을 반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무가 하는것은 어딘가 정
상이 아닌것 같애요.》

향화의 말도 타협적이였다. 분명 로성과의 문제
에서 시끄러운 일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의 속생각
도 엿보게 되는것이였다.

로성은 허공에 눈길을 던졌다. 향화의 말이 옳을수도 있다. 무엇보다문에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것도 애인의 아버지의 지나간 잘못을 사람들에게 말하려 하는가. 로성이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다. 목전의 계획,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조건 좋은곳의 탄을 모조리 쑤서대고있는판이다. 말하자면 먹다남은 찌꺼기들을 지금은 새 세대가 깎아내려 하고있다. 깨끗이 캐내야 한다. 탄벽이 낮은 채탄장도, 옛날에 깨끗이 캐내지 못한 탄도 다 캐내야 한다. 하지만 몇년후에는 손을 털고 나앉아야 한단말인가. 발밑에 무진장한 석탄창고를 깔고앉아서 걸쭉데기를 활아먹고 또 다음세대가 깎아먹으려 하니 이 잘못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로성이 자신도 심부개척을 위하여, 다음번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는가, 깨끗이 캐먹자, 반복채탄장도 많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 캐버리는 때가 오면 자신의 세대도 또한 지나가버리고 말것이다.

로성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향화, 나는 지금 피로소. 래일 회의는 꼭 아버지께 대한 잘못만이 아니라 나자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오.》

《모순에 빠졌군요. 어딘가 석연치 못하구.》

고개를 저으며 향화는 로성의 말을 막았다.

무용수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린 향화의 팔목에서 각광을 받은 조그마한 시계가 반짝거렸다.

《향화, 아버지를 만나뵈려 가자구.》

《...》

향화는 대답이 없다. 밝은 기분이 다 사라진 쓸쓸한듯한 웃음만이 그의 얼굴에서 소리없이 지나갔다.

《왜 기분이 나쁘오?》

《모르겠어요.》

향화의 대답에는 가시가 돋혀있었다. 추연한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걷는 향변하는듯한 그 말 없는 침묵이 로성을 괴롭혔다. 향화의 얼어든 감정을 녹여주고싶었으나 아무 말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향화를 언제 알게 되었던가?)

로성의 생각은 그날로 출달음치고있었다.

탄광부기지도원인 향화가 로성을 찾아왔다.

흰구두를 신고 흰치마에 흰색에 거의 가까운 미색뜨개옷을 입은 처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탄광부기지도원 채향화예요.》

향화의 눈은 랭정하게 빛났다. 차거운 인상을 주는 두눈아래 오탁선 코가 도고한 인상을 풍겨주는 처녀였다.

《무슨 일로 왔소?》

향화는 흰색손가방을 소리나게 탁 열어제끼고는 그안에서 돈봉투를 꺼냈다. 로성은 영문을 모르고 향화를 건너보았다.

《감독원동지는 분명히 공무중대장에게 벌금을 물렸대요, 벌금도 대신 무는법이 있는가요?》

생각났다. 그것은 12 편도 뿔프장을 물에 잠근 사건이었다. 심부를 개척하려고 첫걸음마를 뻗은 그들에게 사기를 저락시키고싶지 않았던것이다.

향화는 새로운 벌금조서를 꺼내서 로성이 앞에 내놓았다.

《공무중대장동지의 수표를 받아서 부기과에 넘겨주길 바랍니다.》

향화는 단호하게 잘라 말하고 돌아섰다.

《잠깐!》

향화는 돌아섰다.

《심부개척을 위해 밤낮없이 뛰는 그들에게 벌금을 물려 씨원한것은 없을거요.》

《저도 알아요. 수고한다는것도, 그러나 어찌겠어요. 양보할수 없는것이 부기원들의 일이 아닌가요.》

로성은 입술이 이그러졌다. 향화는 들어와서있던 도고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은채 로성에게 눈길을 던졌다. 싸늘한 바람이 이는듯한 썩든 그의 눈길을 로성은 면바로 쳐다보았다.

《이 갯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내가 책임지게 되어있소. 걷어넣으시오.》

로성은 노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향화는 비웃는듯한 눈길로 로성을 마주 쏘아보았다.

《원칙은 동정으로 해결할수 없는거예요. 그들을 무마해서 얻자는게 무엇이나요?》

《나는 동정하는게 아니요. 원칙은 마치 동무혼자 가지고있는것 같소. 동무는 매정한 녀자요.》

향화는 의연히 주눅이 들지 않고 당돌하게 마주 쏘아보았다.

《인간성이 풍부하구만요. 나는 그런 녹거리 동정하고는 흥정할수 없어요.》

이런 차거운 처녀라구야! 로성은 여태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돌하고 랭기둔힌 녀자를 처음 보았다.

《중소.》

로성은 어색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벌금조서를 끄당겨 만지작거리다가 성냥을 꺼냈다.

《?!》

향화의 눈이 커졌다. 성냥가치에 불달리는 소리, 그다음 그 조서장에 불길이 피었다.

《동문, 동문.》

향화는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항변할듯 선이 또렷한 꼭 다물린 입술을 실룩거리다가 문을 열고 뛰쳐나갔었다.

서로 상대할것 같지 않던 그들을 직무는 또다시 연결시켜주었다.

그후 어느날 로성은 향화와 갱 사무실 앞마당에 마주앉게 되었다.

불그스레한 저녀여광을 받은 향화의 얼굴은 홍조로 가득찬것만 같았다.

《나 역시 남에게 벌금을 물리면서 랭정하게 굴 때는 가슴아파요. 하지만 조금도 차이없이 일해야 되는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전 동무가 그렇게 나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했어요.》

《사죄하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뭐예요?》

로성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얼음같이 차거운 그 랭정성을 들부시고싶었던 거요.》

《날카로운 비판이에요.》

현대미가 풍기는 잘 단장한 머리카락에 의해 항상 절반이상 가리워져있던 향화의 귀방울이 바람결에 드러나 별스레 빨갛게 피어올랐다.

사뭇 즐거운듯 웃음을 거두지 못하던 향화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하나 물어도 좋아요?》

《말하오.》

향화가 무릎우에 포개여놓았던 손을 쳐들자 매듭들이 오목오목 패인 손가락들이 부채살처럼 퍼지면서 뒤로 휘어들었다,

《심부를 개척한다지요? 그 일이 험치 않다고들 하더군요. 아마 기사장동무에게는 어떤 담보가 있는 모양이지요?》

《글쎄 모르겠소. 하지만 꼭 해내야 한다는 담보만이 있소.》

《호호, 저는 동무가 어쩐지 꼭 해낼것 같군요.》

《그 야유가 아주 비슷한데...》

다감한 생각에 잠긴 처녀에게 눈길을 주면서 로성은 빙그레 웃었다.

《아니, 꼭 성공하기를 바래요.》

향화는 눈인사를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부터 많은 나날이 흘러갔다. ...

향화가 말없는 침묵을 먼저 깨뜨렸다.

《무슨 생각을 해요?》

《향화에 대해서 생각하고있소. 향화가 무슨 생각을 할가, 왜 심드렁해있을가 하고... 또 나에게 욕하는 말도 다 들었소.》

《욕하다니요, 내가 언제 ? ...》

로성은 따분한 공기를 마시고싶었다. 가볍게 실린 그의 웃음어린 목소리가 로성에겐 반가웠다.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것이 아니요. 때로는 얼굴표정이 더 진실하게 전달된단 말ियो.》

동무는 이제와보니 줄장부에 불과하다, 처녀하나 리해해줄줄 모르는 협소한 사나이다, 내 말이 틀리오?》

《꼭 맞아요. 어쩔 신통히 내 마음을 알아요? 기술일군보다 심리학자가 되는 편이 훨씬 좋았을걸 그랬어요.》

순간 로성의 마음은 향화에게로 기울어졌다.

《향화가 정 소원한다면...》

로성은 말을 갑잘랐다. 향화의 그 깊고 차거운 호수와 같은 눈동자가 굳어지며 뚫어질듯 바라본다.

《정 소원한다면 어쩐다는거예요?》

향화가 참지 못하고 한결을 다가섰다.

《향화, 래일 아버지께 대한 말을 하지 않겠소. 하지만 심부개척은 무조건 해야 하오.》

마음속의 말을 하고나니 무겁던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잠시 놀라운 표정으로 굳어졌던 향화가 어린애처럼 좀 작은편이나 표정이 아주 예민한 사랑스러운 입술을 방긋이 열었다.

《로성동무, 고마와요.》

《허참, 내가 어째서 향화앞에서 꿈쩍 못할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것을 사랑이라고 하더군요.》

로성의 항상 굳게 다물려져있는 두터울사한 입귀에는 인정어린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향화가 생기를 띠고 로성의 손을 잡았다.

《지배인동지네 집에 거의 왔군요.》

따뜻한 웃음을 피워문 향화가 나직이 속삭였다.

《아버지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술잔을 주면 정중히 한잔만 받으세요. 그리고 또...》

《허허.》

로성은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마치 어린 동생을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누나같았다.

《알았지요?》

그는 웃음을 머금고 무영지배인의 집앞으로 다가갔다. 향화가 기척을 내자 부엌문이 스프르 열리더니 지배인의 부인이 반색을 하며 나왔다.

《향화로구나. 어서 들어가자. 이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는 집에 올것 같지 못하구나, 자, 어서.》

《아니예요.》

향화는 서운한듯 사양하고 담장밖으로 나왔다.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탄광으로 가보자구. 아버지가 지배인동지와 함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탄광청사쪽으로 뻗은 길에 들어섰다.
미칠하고 시원스레 자란 백양나무우듬지의 잎사귀들이 뒤채이면서 랑만의 노래를 부르는것만 같았다.

《난 나자신에게 이렇게 묻군하오. 너는 무엇때문에 향화를 사랑하는가.》

주홍빛으로 물든 패인듯한 불편을 어루쓸며 로성은 백양나무우듬지에 시선을 던졌다.

《무엇때문에 질 사랑하는가요?》

《첫째, 아름답고, 둘째, 리상이 높고, 셋째는 뜨거운 마음을 지녔기때문이요. 향화가 앞으로 나에게 새롭고 높은것을 요구하면 좋겠소. 그러면 난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려고 뛰고 노력하겠소.》

《호, 고마워요. 전 욕심쟁이가 못돼요. 하지만 노력해보겠어요. 인생의 목표가 낮으면 사랑도 뜨겁지 못하대요.》

수집은듯 향화가 발그레한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팔랑거리며 떨어지던 노란 백양나무잎이 향화의 어깨에 소르르 내려앉았다.

《우린 20세기 령마루에 올라선 청춘들이요. 그러니 우린 프뜨미지근하게 살수 없단말이요. 시대의 선봉에 서서 뭔가 아름답것을 안고나가야 한단말이지...》

향화의 어깨우에서 나무잎을 떼여내서 잎꼭지를 뱅그르 돌리면서 로성은 먼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우에서 굽실거리는 머리카락이 흩어지자 시원하게 옷쪽으로 넓어져 올라간 이마가 드러났다.

《우리 그렇게 살자요! 아름답게...》

향화의 따뜻한 입김이 로성의 불편에 마쳐온다. 그들이 탄광청사앞에 이르니 무영지배인이 혼자 마당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아버지는 방금 떠나가셨다. 이틀후에 오실거다.》

우중충하게 서있는 나무밑에서 무영지배인이 뒤집을 진채 오락가락한다. 로성은 그가 한 말이 어딘가 먼곳에서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문득 지배인은 로성이쪽으로 돌아서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동무네 갱실태를 그대로 료해했소. 전망이 없는 갱이지.》

무겁게 숨을 들이그는 지배인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 성냥을 득 그어대면서 느직느직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말을 향화 아버지에게 비쳤네, 전망이 좋은 신설갱으로 돌리자구.》

전망이 좋은 갱 개발한 갱으로 가면 20년쯤은 아무런 일도 없이 지금의 방법으로 탄을 캐며 일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갱은 누가 개척해야 하는가.

《지배인동지, 저를 생각해주는것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갱은 어찌합니까?》

《왜 또 묻나, 말 안해도 다 짐작할텐데.》

노여움이 실린 지배인의 이마우에서 술이 짙은 눈섭이 꿈틀꿈틀 기여가는것만 같았다.

로성은 자기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로성은 이 갱을 버릴수가 없었다. 허다한 생활의 토막들이 남겨진 고장, 여기서 로성의 아버지가 갱건설의 첫삽을 떴다.

진펄우에 갈발 그리고 흰천막, 갱건설자들의 밥을 지어주며 미소하던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흘러간 유년시절, 로성은 아직도 어머니가 한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여기가 네 고향이다. 이제 여기서 석탄이 나온단다. 네가 어른이 되면 저 진펄우에는 큰집이 들어서고 빠스가 달리고 학교도 생길게다. 아버지는 그래서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신단다.》

별들이 깜빡이는 밤마다 진펄에서 갈대 설레이는 소리와 어머님의 말씀을 자장가처럼 들던 그 어린시절은 아득히 흘러갔다. 하지만 한번도 잊은적이 없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돼.)

틀어진 바른쪽 손으로 왼손바닥을 툭툭 치면서 그는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

하루밤을 꼬박 밝힌 로성은 사무실문을 열고 나섰다. 아침에 갱을 벗어나 들판을 거니는것은 그의 하루일과였다.

맑고 푸른 가을의 아침대기속에 잠을 깬 참새들이 갱주변의 나무들에서 지저귀었다. 이윽고 동쪽 산마루에 태양이 솟아오르더니 삼시에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가 심호흡을 하며 들판길을 나서는데 앞에서 향화가 다가왔다.

생기를 잃은듯이 향화의 불이 창백했다.

가날퍼보이면서도 쑥 빠진 목을 가웃이 수그린 향화가 발끝을 허뻗었다.

《저...》

《왜 그러오, 향화.》

그는 처녀앞에 다가갔다. 든든하게 느껴지는 로성의 얼굴에 노을빛이 어렸다.

《저때문에 고통스러웠지요?》

《그건 무슨 말이요?》

부드럽게 느껴지는 향화의 턱이 약간 들리웠다.

《제가 어제 왜 그랬을가요. 저는 지금에야 모든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제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 떠났을가? 피로워하던 동무와 헤어져 홀로 있느라니 량심이 저의 가슴을 허비더군요. 나는 저하나만을 아는 녀자였어요.》

어제저녁 그리도 열변을 토하며 아버지를 긍정하던 향화가 이 아침은 어찌된 일인가. 험쭉하게 질

린 가름한 불, 꼭 다물린 입술, 향화는 길옆의 황철 나무에 이마를 대고 한참이나 들지 못하였다.

그의 머리카락이 흰목에서 가버이 흩어졌다.

《향화.》

《아, 아무것도 안예요.》

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가 나무에서 몇발자국 물러났다. 로성은 놀라서 향화의 동그스름한 어깨를 그러안았다.

《향화, 어디 말재오?》

《아니 ...》

숨가쁘게 바싹 다가선 그가 로성의 얼굴을 한순간 더듬었다. 떠는듯한 그의 입술새로 가지런하면서 서도 안쪽으로 약간 오무라든 하얀이가 반쯤 드러났다.

《아 내가...》

《말하오, 왜 그래?》

《내가 동무들 나약하게 만들었어요. 절 용서해요. 로성동무가 정의앞에 수그러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것을 저는 바라지 않아요.》

아침바람에 향화의 흰 치마자락이 날리면서 로성의 정경이에 휘감겼다. 가쁜 호흡을 내쉬는 향화의 눈에 물기가 어리었다.

《내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신념대로 하세요. 신념대로...》

《향화, 고맙소.》

흩어지는 향화의 머리카락우에 역광이 비쳐들어 정수리가 숯덩이에 불씨처럼 붉게 피어오르는듯하였다.

처녀와 헤어져 갯 순회길에서 돌아온 로성은 계획도를 펼쳐들었다. 무수한 선들, 지나온 탄발들이 부호로 표시되어있다.

문득 아침에 만났던 향화가 떠올랐다. 향화의 아버지는 왜 만나보지 않고 떠났을까? 반대하는걸까?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단말인가.

혹시 무영지배인이 심부개척에 대한 로성의 의견을 말했을수도 있다. 어떠한 감정이 흘러갔겠는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따르릉-전화종이 울린다. 수화기에서 향화의 파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생각을 해요?》

걱정어린 목소리였다. 지금 부기실에서 송화구에 입을 가져다댄 향화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향화, 왜 그러오?》

가을바람에 흩날린 락엽이 창문에 부딪쳤다 떨어진다.

《태일은 회의가 있다지요?...》

향화의 숨결이 전류를 타고 흘러온다. 그가 앞에 있는것만 같았다.

《제가 도와드릴건 없어요? 어쩐지 저때문에...》

《무슨 말을 하오?》

가늘게 떨리는듯한 그 목소리는 로성의 속을 저미는듯했다. 향화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말인가.

《제가 바쁜 시간을 뺏어내는것만 같군요. 하지만 리해해줘요.》

잠시 말을 끊었던 향화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잠깐만 기다려요. 전화가 와요.》

로성은 수화기를 잡고 그대로 서있었다. 향화의 자태가 눈앞에 밟혀왔다.

그와 어떻게 가까워졌던가. 벌금조서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슨 감정이?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비바람치던 그날이 펼쳐졌다.

그날은 몹시도 바람이 세쳤다. 낮게 드리운 컴컴한 구름장들이 기류를 타고 흐른다. 뿌리채 뽑힐듯 채머리를 드리운 버드나무가 휘친거린다.

로성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를 괴롭혔다. 400 키로 뿔프 그리고 대중압, 심부굴진공들은 지금 거부기걸음을 하고있다. 갯사람들은 의혹을 품고 로성을 지켜보고있다. 범꼬리를 잡은 격이었다. 무엇때문에 이 길을 택했는지 자기자신이 의문스러웠다. 옷사람들이 하라는대로 하면 편안할것이다. 심부개척은 로성이 대학때 쓴 졸업론문이었다. 그 논문은 선생님들과 대학생들 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하 수천미터까지 묻혀있는 탄, 그러나 지금 300 수준에서 머물거다가 갯을 버리고있다. 지압, 물 그리고 공기,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로성은 변론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책상머리의 수치계산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바래주던 대학선생님들, 꽃다발을 안고 달려오던 대학너동창생들의 얼굴이 불쑥 나타나군한다.

로성의 생각을 깨뜨리며 비방울이 후두둑 창문을 두드린다.

(?!)

뿐만 비발속으로 향화가 들어서고있었다. 빨간 보자기에 싼 꾸레미를 품에 꼭 껴안은채 현관문으로 뛰어든다.

(향화가 무엇때문에 왔을까?)

이상한 감정이 솟구친다. 무엇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돌린단말인가. 로성은 허구프게 웃으며 철함쪽으로 다가갔다. 그가 갯의 도면을 꺼내들려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향화일까?)

왜서인지 그가 기다려졌다.

(향화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말인가. 로성은 머리를 가로 저으며 문을 열었다.

《?!》

《...》

향화였다. 비물이 흐르는 이마아래 버들잎모양의 두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영채롭게 빛났다. 젖어든 흰옷이 부드러운 곡선들에 달라붙어 향화의 살결을 희미하게 드러냈다.

《무슨 일로 왔소?》

무뚝뚝한 로성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침묵을 깨뜨렸다. 부드럽게 말하고싶은데도 입안에서는 왕창같이 실무적이고 딱딱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녀의 눈에 그윽히 떠돌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차츰 랭담한 기색으로 바뀌어졌다.

《저는 이 방에 들어설수 없는 사람인가요?》

찬기운이 풍기는 물음에 로성은 당황해났다. 역시 너자들이란 반응에 예민한것만은 틀림없었다.

《아, 그렇게 아니요.》

얼굴이 불그레해서 황급히 변명하는 로성을 향화는 가벼운 웃음을 짓고 바라보았다.

《별금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

로성은 어이없이 웃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 이리 주오.》

로성은 실무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향화는 바른쪽 가슴에 꺼안았던 꾸레미를 풀었다. 그리고는 여러권의 책을 로성에게 내밀었다.

《?!》

그것은 심부개척자들의 경험과 교훈이 적한 책이었다. 책표지에는 《채광득》이라는 이름이 써여져있었다. 년대와 날자를 박아쓰면서 어느날 어느때에는 어디서 대중압이 내리고 또 어느 지점에서 물동이 터졌다는것도 그리고 대책적인 문제를 세웠던것까지 다 써여져있었다. 로성에게겐 참으로 귀중한 책들이었다.

《전 동무를 동정하려 오진 않았어요.》

향화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슨 생각을 하더니 말꼬리를 이었다.

《전 며칠전에 집에 갔댔어요. 심부개척에 대해서 말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이 책을 동무에게 주라고 했어요.》

《고맙소, 향화동무!》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싶었으나 더 다른 뒤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돌아가겠어요.》

처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무엇인가 따뜻한것으로 가득찼던 방이 텅 빈것만 같았다.

타는듯한 눈을 들어 모욕을 집어삼키면서 《동문, 동문》하던 그 목소리가 재현되어 로성의 귀가에 공명한다.

비는 그칠줄 모르고 갱구내에 주련이 선 버드나무들이 휘친거린다. 로성은 향화가 사라진 길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뽕얀 비발속으로 그가 가고있었다. 갱에서 탄광청사까지는 10 리 남짓한데 새로 낸 길이여서 아직 진흙판한가지였다.

로성은 우산을 꺼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를 위해주고 그와 함께 걷고싶었다. 향화가 앞에서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총총걸음을 놓는다. 한참만에야 로성은 그를 따라잡았다. 뒤에서 나는 발자국소리에 머리를 돌린 향화의 눈이 커졌다.

《?!》

《...》

향화앞으로 가까이 다가간 로성은 그의 머리우에 우산을 씌워주었다. 진창을 밟는 말없는 발자국소리, 얼굴에 흐르는 비방울을 씻어내며 향화가 눈길을 돌렸다. 그의 눈에 차갑고 랭정한 빛이 아닌 장난기어린 웃음이 피어났다.

《어떻게 날 생각했어요?》

《글쎄... 생각하고싶었소.》

비는 하늘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지평선끝에서 몰려오는것 같았다. 로성은 향화의 왼쪽 팔뚝으로 우산을 낮추 드리웠다. 흰구두에 진창이 묻어올라 향화는 힘들게 발을 옮긴다.

《사나운 고장이예요.》

《아름다운 고장이요.》

《어째서요?》

《동무가 있기때문에.》

향화는 웃음을 머금고있었다. 로성은 가까이에서 향화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동무는 희망이 큰 사람이예요.》

《추어주어서 더욱 고맙소.》

그것은 로성의 심부개척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사람은 수그려들지 말아야 해요. 정의란 얼마나 훌륭한거예요》

비소리, 바람소리, 발자국소리...

《아, 이걸...》

진창에서 향화의 신발이 빠져나오질 않았다.

향화는 한발을 들고 비칠하며 로성의 품으로 기울어졌다. 얼굴을 붉히며 향화가 몸돌바를 모른다.

《가만 있소.》

로성은 덩석 향화를 안았다.

《좋아요. 어서...》

부끄러워 속살거리는 향화를 안은채 로성은 여러문메터의 진창길을 건네주었다.

《고마워요.》

빨갳게 상기된 얼굴을 수그려뜨리고 향화가 수줍게 인사한다. 비는 여전히 그칠줄 모른다. 진창길을 건네준것이 어색한 분위기를 더욱 돌고어주었다. 하지만 로성의 가슴에는 그윽한 향기가 차오르고있었다.

탄광청사앞에서 걸음을 멈춘 로성은 향화와 마주섰다. 그 고요한 눈길, 웃음을 머금고 바라보는 그 눈이 한순간 로성의 얼굴을 어루쓰다듣는다.

《동무에게는 파스한 감정이 있어요.》

향화는 까르르 웃음을 터치며 청사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로성은 돌아섰다. 몇걸음 가다가 뒤를 돌

아보니 자기를 지켜보는 향화의 모습이 오래도록 움직일줄 모른다. 정녕 오래도록...

따르릉... 다시 전화가 울린다. 향화가 전화를 끝낸 모양이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기다렸소.》

《아버지가 래일 아침에 다시 온대요. 거기서 지금 우리 탄광문제때문에 긴급회의를 끝냈대요.》

로성은 대답없이 듣기만 했다.

《아버지는...》

로성은 저절로 신경이 긴장해졌다. 그러한 자기를 발견한 로성은 태연해지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동무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전화기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

금시 얼어드는것만 같은 싸늘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로성은 까닭모를 불안과 야릇한 생각에 잠겨 망연히 서있었다.

살랑살랑 나무잎을 스치는 가벼운 가을바람도 자기와는 인연이 먼 어떤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오직 향화만이 머리속에 마음속에 꼭 들어차서 자기의 심중을 피로힐뿐이었다.

향화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있을까?...

아니, 더 생각지 말자, 가다듬자, 모든 정신을 가다듬자. 래일은 회의가 있다. 향화를 잊자. 로성은 입술을 깨물며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각 탄광의 지배인들, 갱장들, 기사장들이 모였다. 엄숙한 분위기속에 회의는 계속되고있다. 로성의 차례가 왔다. 향화의 아버지가 주석단에 앉아서 로성을 지켜본다. 긴장한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두손은 책상모서리를 꼭 움켜잡았다. 옆의 자리에는 무영지배인이 말없이 수궁하고 앉아 있었다.

《동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오. 탄부답게.》

투박한 목소리가 긴장한 공기를 휘저어놓았다.

순간 로성의 눈앞으로 향화 아버지의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안겨왔다.

(무엇을 주저하느냐? 용기를 내라.)

마음속 어디선가 량심의 호소가 울렸다. 조용히 귀기울인 사람들의 머리위에 로성의 웨침이 퍼져나갔다.

《나는 우리 갱이 폐갱되는것이 가슴아쁩니다. 여기는 저의 고향입니다...》

말을 갑자르며 로성은 고개를 숙이었다. 그의 눈앞으로 진펄우의 갈발과 흰천막, 아버지, 어머니와 갱건설자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땅을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부를 개척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갱이 처한 상태

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전 이것이 가슴아쁩니다...》

로성의 마지막말은 이렇게 끝났다. 취죽은듯한 정적이 흐른다. 정적...

향화의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있소.

언제든지 미래를 생각하라. 후손들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나 처럼 이런 심판장에 나서게 될것입니다.》

조용히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어렸다.

《그가 누구이든...》

갈린 그 목소리가 로성의 가슴을 찢 올려주었다. 역시 향화의 아버지는 대범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동무네 갱에 모든 설비자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주시기로 했소. 어제 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채광득은 한참이나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생각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소...》

회의는 드디어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가려고 술렁거린다. 옆에 앉았던 무영지배인이 로성의 손을 꼭 틀어잡았다.

《내가 자네에게 찬물을 끼얹었구만. 용서하게.》

하지만 로성의 가슴에는 허우룩한 감정만이 차오른다. 향화는 어떻게 나올것인가. 향화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대할것인가.

로성은 밖으로 나와 큰길로 접어들었다. 끝없이 맑은 가을하늘이 머리위에 펼쳐졌지만 로성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가 고개를 드니 향화가 기다리고있었다.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गरム한 불이 연분홍빛으로 물든 향화의 입귀에서 보조개가 피어났다. 길옆에서 가을날의 들국화가 한들거린다. 허리굽혀 그 한송이를 꺾어든 향화가 로성이앞에 한발 나섰다.

《왜 우울했어요?》

《...》

《바보!》

향화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몇발자국 앞서나갔다 되돌아섰다.

《동무는 나를 믿지요? 네? 내가 동무를 잊지 않듯이말예요.》

《?!》

《아버지는 동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대요.》

향화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푸른 하늘, 황금의 들길, 흰 양복에 흰 구두를 받쳐신고 달려가는 향화의 모습은 마치 백학이 훨훨 춤추며 날아가는것만 같았다.

내 삶의 요구

신동환

내가 여기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책임비서로 부임되어온지도 한해가 흘렀다.

날마다 책상우의 일력에 눈길을 줄 때면 자기 자신을 두고 돌이켜보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두고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게 된다.

스스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총화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요, 극히 범박한 사실일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그것은 보통 레사롭게 가지는 자부심이나 분발심을 초월한 가슴을 조이는듯한 심뇌이다. 그 심뇌는 무엇인가 뼈심을 들여 일을 하고 결심을 보게 되었을 때에야 가슴 후련히 가셔지곤 한다.

물론 나는 지금까지 자신을 남다르다고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자기자신을 마음속으로 되게 다물리는 습벽은 언제부터 생기었던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정치적신임을 떠나서 우리에게 무슨 영예가 있으며 우리가 무슨 값있는 존재로 되겠습니까.》

수령님의 두려운 신임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끝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뿐입니다.》

나는 해방전에 쫓돌린 살림으로 소학교에도 다녀보지 못한 화선농의 자식이였고 전쟁시기에는 이름없는 화선병사였다. 전후 룡성기계공장 (현재 룡성기계총국)의 치질공으로 일하다가 1959년 서른전의 애젊은 나이에 당일군이 되었다. 그날 나는 함흥시 당위원회 정원에서 밤을 꼬박 맑혔다.

(내가 과연 이런 영광을 받아안을수 있게 살아왔단 말인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너무도 분에 넘치여서 숨가쁘고 몸이 달아올랐던것이다.

자기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꾸지람하는 습벽은 그때에 생겨난듯싶다.

당일군으로서의 34년, 길지 않은 나의 이 행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품에 안으시고 성장의 한걸음 한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행로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여 일깨워도 주시고 적으나마 일자리를 났을 때에는 치하도 하시며 친아버지의 사랑과 은정을 다 기울이시였다.

아직은 모든것에 미숙한 이 전사를 당이 룡성을 중시할 때에는 룡성에 보내주시고 당이 검덕을 중시할 때에는 검덕에, 당이 순천을 중시할 때에는 순

천에 세워주시여 영예의 《김일성훈장》 수훈자로, 당일군, 로력영웅으로 키워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한해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생명선이라고 거듭 불러주시며 깊은 관심을 다 돌려주시는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석탄생산의 중임을 또다시 맡겨주시였다. 나를 믿으시여 어렵고 힘든곳에 세워주실수록 나는 그 은정, 그 사랑에 당일군으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하는것으로 보답하리라 철석같은 결의를 다지곤했다. 그 나날속에서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며 《키》를 자래웠고 무엇인가 좀 더 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에 별로 한일도 없는 이름없는 이 전사를 또다시 높이 내세워주시며 평가해주시였다.

내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으랴만 당일군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 모든 단위들에서도 당일군들이 이렇게 군중의 높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 분투, 헌신하여야 한다고 따뜻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 말씀을 전달받으며 나는 머리를 숙이고 흐느껴 울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일했던가. 좀 더 마력을 내어 일할수 있지 않았던가?)

고마움에 목메일수록 커가는것은 자책뿐이었다.

그후부터 나는 사업을 더 간지게 짜고들었고 오래전에 불인 습관을 더욱 친근한 벗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여 나의 사색은 사무실에서나 탄광으로, 달리는 승용차안에서나 지어는 잠자리에서까지도 중단되지 않았다. 당에서는 석탄생산에 것처럼 깊은 관심을 돌리는데 나는 왜 지금 하고있는 채탄기계작사업을 판이 크게 별릴 생각을 못했던가? 어느날인가 지배인동무가 아래탄광에 내려갔다가 낮색이 흐려 무슨 말을 할듯하다가 그만둔 일이 있었는데 왜 그 사연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던가? 한 처녀가 찾아와서 당돌하게 제기한 문제를 왜 아래사람들에게 맡기고 알아보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거듭할 때면 내가 과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전사로서 그이의 뜻을 받들며 자기책임을 다하고있는가 하는 숭엄한 자책의 물음이 뒤를 따르곤한다.

나는 언제나 내 심장의 이 물음앞에 자신을 세우고 기쁨진 룡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분발의 채찍을 엮어나가겠다. 당일군으로서의 나의 이 습벽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계속될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요구이다.

나는 농민이외다

김광춘

나는 농민이외다
따가운 별에 탄 어깨
별바람에 그슬린 종아리가
이 땅 이 흙과 한빛이 된다 해도
나는 농민이외다

아침 포전길
발등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웃자락에 축축할 때
내 디디고가는 이랑이랑이
비단처럼 부드러울 때
한껏 가슴 부푸는
나는 농민이외다

머리 들면
고향의 들관
그 너머 들성들성 높낮은 더기
봄이면 그 푸른 빛이
가을이면 그 황금의 설레임이
내 안고사는 기쁨

나는 땅을 알고
땅은 나를 알아 심어 가꾸는
포기포기 설레임을
땅이 하는 말로 가려 들으며
한뼉 땀흘리는 자랑이 커서

한밤중 꿈결에도
달려와 안아보는
나의 포전 분조포전은
심어 가꾸고 이삭을 영글리며
해빛과 함께 바람과 함께
내 마음도 못떠나는곳

발 한귀통이 논배미 한귀통이가
꼬집으면 아픈줄 아는
내 살처럼 귀중해
쓰다듬는것이외다 어제 또 오늘도
매여가꾸리다 오늘도 래일도

이삭도 금빛
하늘도 금빛
땅이 꺼지는 대풍의 가을은
온 나라 인민의 행복을 떠실고

한껏 밝게 웃는 조국의 모습이어서
내 얼굴 가는 주름살도
다 펴가는
기쁨의 계절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며 따르는
내 삶의 행복도 긍지도
세상에서 제일인
어머니조국이 꽃피워주는 사랑임을
가꾸는 땅과 함께
나는 피부로 느끼는 아들이거니

태어난 이 땅
안겨사는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며
효성만을 드리는 아들이 되려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제일로 기뻐하시는
그 이삭을 위해
그 이삭을 가꾸어가려
내 가슴속에 만풍년의
씨앗도 있고 열매도 있는
이 땅의 농민이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과 함께 있어 행복한
나는 농민이외다
쌀로 사회주의를 받드는
나는 농민이외다

아름다운 밤

김영

삼태성도 기울어
탄광마을에
안식이 흐르는 밤
잠결에 꿈결에
안해는 들었네

천길지심에서 울려 오는 메아리
굴진공의 안해가 아니라며는
느낄수 없는 정겨운 음향

다박술 푸르른 산기슭에
새로이 지은 신흔탄부네 집
안해가 누운 그 집밀을 지나가는
남편소대의 발파소리, 발파소리

그 발파소리
정다운 이의 뜨거운 숨결인듯
정다운 님의 부름소리인듯
안해의 가슴을 울리어 울리어

안해는 속삭였네
첫 언약을 맺던 때인양

-한순환 더 하세요
그러자 때마침 님의 화답인듯
막장에서 울려오는 발파소리

순간이라 안해의 얼굴엔
노을이 피고
눈내리는 창가에선
진달래가 망울터치고...

좋아라
지하막장에서
조국의 숨결을 지키여가는
탄부의 발파소리
그것은 전진하는 조국의 박동소리!

...
어느덧 발파소리도
멀어져가는데
아래목을 비워놓고
탄부의 안해는 다시금
잠이 들었네

기쁨이 마중오는 길

강국일

비와도
눈와도
일년사시절
내 걷는 포전길

그 뉘가 기다려
동트는 새벽을 불러
아침마다 첫자욱 짙어가도
발걸음 채우쳐지나오

포전에서 그 뉘와
헤여지기 아쉬워
해지고 날 저물어도
쉬이 돌아오고싶지 않을가요

단발머리처녀로
발이랑 먼저 타며
만풍의 첫 열매 안아본것도
이 길이에요

미래의 꿈을 안고
돌자갈잔디밭 새땅을 늘쿠며
일속에 첫사랑 속삭인것도
이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포기농사 주체농법 꽃피워
가을날의 환희속에
처음 수령님 만나뵈온것도

아, 내 걷는 포전길은
내 삶이 꽃피는 길
일속에 언제나
기쁨이 마중오는 길

다시 오마 하시면
우리 수령님
오늘도 문득 오실것만 같아
그날의 기쁨안고 나는 걸어요

눈보라

구경서

1

나는 원흥료양소에서 경리일을 맡아보았지만 겨울에는 자진해서 말썰매를 모는 마부로 되어 일했다. 날씨가 차고 강설이 퍼부어 차가 잘 다니지 못하는 동지설달에 읍에서 룡양소까지 삼사십리 잘 되는 눈보라길을 헤치며 걸어간다는것은 여간 조련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룡양소에서는 겨울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하여 말썰매를 하나 내기로 하였다.

하루는 룡양소소장이 나를 불러 서령고개너머 산림연구소산하 영림분소에 가서 해충구제실장 최학송을 태워오라고 하였다. 어제 그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것이였다.

하여 나는 말에 썰매를 메워 영림분소로 떠났다.

영림분소는 잣나무, 가문비, 전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찬 덕지산기슭에 자리잡고있었는데 집은 나지막한 단층건물이였다. 분소주변에는 여러가지 바늘 잎나무들이 늘어서있었다.

해충연구실을 찾았다. 마침 실장 최학송이 곤색 반털외투에 강굴강굴한 양털모자를 쓰고 한창 짐을 꾸리고있었다.

흰칠한 키에 갱빳한 얼굴, 먹으로 푹 찍어놓은 것 같은 범꼬리같은 눈썹, 그밑에서 반짝이는 영채도는 눈이며 선홍색이 도는 두툼한 입가에 떠오른 상냥한 미소, 어쩐지 각별한 친근감을 자아내는 인상이였다.

《아바이, 이거 안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는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까만 비닐가방에 책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겨넣다가 일어서며 반갑게 인사를 보냈다.

《안녕하시우, 우리 소장동지가 태워오라고 해서 왔수다.》

나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허참, 무슨 큰일을 치는 인물이라고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지 원...)

《추운데 수고하시겠습니다. 여기와서 몸좀 녹이십시오.》

그는 나의 팔을 잡아끌어 난로옆에 앉히였다.

《...헌데 무슨 일로 우리 룡양소에 가시려우...》
하고 나는 마뜩지 않게 볼부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대답을 피하듯 묵묵히 짐만 꾸리였다. 한참후에 우리는 방을 나섰다.

최학송은 썰매안의 털가죽속에 두발을 밀어넣고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룡양소까지 가자면 몇시간은 실히 걸려야 하는것이다.

나는 귀덮개가 달린 토끼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채찍을 비껴들었다. 해빛밝은 트랙의 정적을 깨며 휘파람같은 아츠러운 소리가 울렸다.

《쨌! 쨌-》

말은 흙뺨 놀라 네굽으로 눈가루를 휘뿌리며 몇걸음 속보로 달리다가 마치 천천히 박자를 맞추듯 가볍게 달리기 시작했다.

말썰매는 전나무, 가문비, 붓나무들이 파수병처럼 늘어선 산기슭의 좁은 소로길을 따라 뚱뚱 떠가듯 유유히 미끄러졌다. 말썰매뒤로 은떠같은 두줄배기 썰매자욱이 포렷이 새겨졌다. 굴러가는 은방울같은 워낭소리에 신바람이 나는지 말은 이따금 머리를 짓속이며 투레질까지 하였다. 말주둥이에서는 싹허연 입김이 물물 피어올랐다.

어느새 산굽이를 돌아 고개를 넘어섰다. 벌써 말궁둥이는 땀에 젖어 번들거렸다. 썰매밑에서는 숫눈이 다져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다.

나는 말발굽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털외투를 덮은 무릎우에 채찍을 얹고 털등거리 안주머니에서 담배주머니를 꺼내들었다.

한식경이 좋지 지나도록 말이 없이 앉아있던 실장은 미안한 생각이 드는지 《저- 안됐습니다. 사실은... 저때문에 처녀가 불행을 당해서...》

하고 동에 닿지 않은 소리를 얼버무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 한가치를 꺼내어 나에게 주고는 자기도 한대 입에 물더니 득-하고 성냥을 그어 먼저 권했다. 그리고 담배연기를 폐부속 깊이 들이 빨았다가 후-하고 천천히 뿜어냈다. 그 소리는 온갖 시름을 다 잊은 사람의 후련한 숨소리같기도 하고 어찌 들으면 이루 형언할수 없는 큰 불행속에 모대기는 사람의 탄식같기도 하였다.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의 옆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자 실장이 변명처럼 물었다.

《아바이, 3호녀성병동의 조혜숙이란 처녀를 모릅니까?》

나는 그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조혜숙이란 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기해보려고 두눈을 쪼프리며 담배연기를 굴통처럼 뿜어올렸다.

《거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얼굴색이 하얀데 두눈은 동그란...》

그제야 나는 피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거... 밤낮 외국책들을 뒤적거린다는 그 연구사 말이 우,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웁습니다. 그 연구사말입니다. 그 동무는 사실 우리 연구사였는데 뭐랄까... 내가...》

어쨌선지 실장은 도중에 말허리를 끊어버렸다.

사위는 귀죽은듯 고요하였다. 바람 한점 불지 않았다. 엿비스듬히 쏟아지는 아침해벌에 은다반같은 하얀 눈벌이 때로 황금덩이마냥 찬란한 빛을 내뿜는가 하면 때로 바늘끝같은 싸늘한 빛을 뿌리어 사람의 마음을 서늘케 하였다.

산릉선에 올라서니 끝없이 물결쳐간 눈덮인 산야에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실장은 옆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수림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느닷없이 말을 이었다.

《실은... 저때문에 그렇게 된거나 같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긴숨을 내긋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별로 흥미없이 듣고있던 나는 그제야 무슨 곡절이 있는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는 한동안 담배만 피우다가 말하였다.

《내가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하고 산림과학원에 배치된것이 지금으로부터 몇년전이지요. 그때 내가 배치된 연구실에 조혜숙이라는 연구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처녀였수다. 꼭 들판에 피어난 한송이 백합꽃이라고나 할가. 못사내들로부터 호기로운 눈길을 받으며 인기를 모았지요...

어느해였지요.

우리 나라 북부산림지대에 소나무잎사귀를 잘라먹는 새로운 해충이 생겨났지요. 외국에서 넘어온 해충인데 진디물일종이었수다. 그 해충은 번식률이 대단해서 아주 유해롭지요. 아무튼지 그 해충이 달라붙으면 소나무들이 누렇게 떠서 마르면서 죽어버립니다. 몇달 안되어 온 산이 뽕겉게 되고마니까요.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는 우리 연구소에 그 해충을 박멸할 과업을 주었수다.

구체적으로는 그 과업이 우리 실에 떨어졌지요. 사실 그때 나는 유지작물의 성숙에 미치는 살충제 불화카리의 효과를 연구하고있었는데 한번은 조혜숙동무가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불화카리물질이 출발물질로 보아 이사디와 모노클로르초산 등인것만큼 분명 농도를 높이면 좋은 살충제가 될수 있다는거였지요. 잘 생각해보니 그럴사하더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찬동하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달라붙었수다.

하지만 그 연구사업이란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지요. 생각에는 그럴듯해서 달라붙었는데 막상 그놈의 약을 만들어보자니까 여간 공정이 까다롭고 힘들지 않았지요.

원제 불화카리살충제를 만든다는건 매우 힘든 일이지요. 화학반응이 무척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유기화학저서들과 외국문헌들을 보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요. 우리는 초기에 얼마간 성과도 거두었수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심산이라고 글썽 그 물질의 살충적효과를 높이자면 어차피 약의 농도를 높여야 하겠는데 그 방법이 위험하지요.

불소계물질과 초산계물질의 최종산물인 고농도 액들을 한 용기에 넣어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그 자체가 폭발할 위험이 있지요.

이 시험을 몇번 거듭하다가 혜숙동무는 하마터면 크게 부상을 입을뻔한 일까지 있었수다. 그래서 일시 연구를 중지했지요.

그런데 혜숙동무가 여러 문헌들을 보고와서 하는 말이 잡지들을 보면서 한가지 착상이 떠올랐나요. 그건 출발물질들을 용기에 넣고 가압할것이 아니라 불화카리물질의 클로르함량을 얼마간 줄이면 크게 가압하지 않고도 가루상태의 물질을 손쉽게 얻을수 있다는거지요.

우리는 다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했수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어쨌든 크게 가압을 하지 않고도 그 물질을 만들어낼수 있었지요.

그 살충제를 진디물에 써보니 구제력이 정말 높았지요. 그 약을 물에 타서 소나무잎사귀에 뿌리면 그것이 잎사귀들에 스며배여 나무잎을 잘라먹는 해충들을 죽여버리지요.

그래서 나와 조혜숙동무는 북부산지대의 산림을 해충으로부터 구제할수 있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림산마을로 떠났수다.

그때가 늦가을이었지요, 첫눈을 맞았었으니가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하루동안 기차를 타고가서 읍려관에서 하루밤 묵은 다음 다시 서북단류역의 서향강상류에 자리잡고있는 자연보호구로 찾아갔지요. 그 지구로 말하면 식물보호구이자 동물보호구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전망성이 좋은 유망한 지대지요.

그런데 북변의 계절은 역시 어느 고장들보다 늘 절기가 빨리 오는가봅니다. 읍려관을 나서니 뜻밖에 눈꼬치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부두가에서 배에 올라탔수다.

배에는 각종 우편물들, 화물짝들 그리고 크고 작은 소포꾸레미들이 두칸두칸 쌓여있었지요.

나와 혜숙동무는 묵묵히 앉아 바깥구경만 하였수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면서는 점점 마을이며 인가들이 드물어지고 그대신 병풍같은 산맥들이 강굽이를 돌 때마다 연줄연줄 앞길을 막아나섰지요. 한쪽 강변에는 가는 띠같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눈이 녹아 축축한 회색빛 바위돌들과 크고 작은 자갈들이 쭉 깔렸고 다른쪽 강변에는 련련이 뻗어내린 산줄기들이 여기서 걸음을 멈춘듯 기동같은 것처럼 돌벼랑들을 물속에 뿌리박고있었지요. 그 산들 역시 강설로 하얗게 덮였는데 산등에는 푸른 바늘잎나무들이 기발대마냥 촘촘히 들어섰고 골짜기마다에는 갈색의 거뭇한 도토리나무같은것들이 군락을 이루고있습디다.

뻗은 하늘에는 재빛구름이 떠도는데 하얀 양떼처럼 천천히 산발을 타고 내리다가 저지에 이르러 눈송이가 되어 펄펄 날렸지요.

물살을 거슬러오르면서 배도 숨이 가쁜지 목갈린 고동소리를 울렸수다.

이때 풀색숨동복에 두툼한 솜신을 신은 농장원같은 중년나이의 한사람이 앞에 앉은 웬 늙은이에게 배에 오르기전부터 주고받던 이야기인지 이렇게 말합디다.

〈이거 금년엔 송진파기도 제대로 못하겠는걸...〉 하며 입맛을 썹썹 다시니 옆에 앉은 늙은이가 되받아하는 소리난 즉 〈거 일찍 들이닥친 이 추위에 진디물들이 다 얼어죽었으면 좋겠다. 금년엔 그놈 때문에 꼴도 몇초롱 못뺏수다.〉

나는 여기서도 그 진디물때문에 무척 애먹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보시오, 이제 내가 그 해충들을 다 박멸해주겠소.〉 하고 마음속으로 웅크렸지요.

정말 생물학연구사가 된 자부심과 긍지라 할가하는것이 가슴에 함뿍 차오롭디다.

나는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져 서향강의 풍경에 흥취를 돋구면서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불렀지요.

사람들로 북적 끓던 읍 부두의 하류에는 여름에 모기와 깔따구들이 성하는 소택지들과 갯누런 감탕밭들이 자주 눈에 띄웠는데 여기는 강물이 깊고 물살이 빠르면서 강폭이 아주 좁았지요. 송어가 있음직한곳이더군요. 강벼랑밑에 소들이 있고 여울톱까지 있었으니까요.

골짜기로 오르면서 앞을 내다보니 강물이 회청색을 띠었는데 여울목마다에서 무서운 물사품을 일으키며 온 골안이 떠나갈듯 소연한 물소리가 울려웁디다. 그러다가도 강굽이를 돌아서면 다시 강폭은 넓어지면서 인자한 어머니품마냥 물결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은은한 강철빛수면우에는 후더운 숨결같은 엷은 물김이 물물 피어올랐습디다.

랑림산맥쪽에는 강추위가 들이닥쳤는지 드문히 새하얀 성에장들이 둥둥 떠내려왔지요.

우리는 연평리가까이의 중간부두에 이르러 배낭을 메고 서둘러 배에서 내렸수다.》

2

확송은 추운지 몸을 웅송그리고 썰매안의 털가죽속에 두다리를 더 깊숙이 밀어넣고 반털외투소매랑팔에 두손을 어긋맞게 찰러넣었다. 그리고 추억의 갈피들을 하나하나 번져가듯 추연한 눈길로 먼공간 한쪽끝을 바라보았다.

《림산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는 즉시 연구사업에 착수했지요. 우선 깊은 골짜기에 풀막을 하나 지었습디다.

방안에 부뚜막을 쌓고 야전가마 하나를 얻어걸어 살충약을 만들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시작했지요. 노루덕의 안골, 중골, 외골에 각각 실험구들을 설정하고 매 실험구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자라는 나무종류, 산 나무수와 죽은 나무수, 해충에 의한 피해정도 등을 낱알이 조사장악했수다.

꽃샘을 하는 이른 봄철에 우리는 매 나무들을 찾아다니면서 살충제를 뿌려주었지요.

매일아침 일어나 나는 약물분무기를 등에 지고 해숙동무는 삼을 어깨에 둘러메고 가파로운 산등성으로 뻗어올라간 서덜길을 뚫아올랐지요. 목에서는 겨불내가 나고 등에서는 분무기가 어깨를 지지누르고 땀은 비오듯 철철 흘러내리는데 아닌게 아니라 좀 가쁘긴 가쁘디다. 이렇게 하여 실험구에 도착하면 어느덧 해가 하늘중천에 떠올라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서 지정된 나무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데는 약물을 뿌리고 어떤데는 뿌리부근에 땅을 파고 비료를 주듯 가루약을 놓아주지요.

이력저력 봄도 가고 여름도 다 지나가던 어느날이었수다. 우리는 그날 아침에도 일찌기 안골쪽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른 실험구보다 거리가 먼탓인지 약물을 다 뿌리고나니 벌써 하루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지요. 산마루에 앉혔던 역광이 사라지자 어느새 사위는 컴컴한 그늘속에 잠기면서 산바위들이며 나무들이 모두 검정색을 띠고 발밑의 자갈돌마저 희끄무레하게 보입디다.

우리는 우둘투둘한 돌밭길에 발을 걸채면서 간신히 터벌터벌 골짜기로 내려왔지요.

풀막에 들러 실험일지를 정리했수다.

어느날 어느 지구에 살충제는 얼마나 뿌렸고 관찰연구는 어떻게 진행했으며 나무들의 상태는 어떠했다는것을 일일이 기록했지요. 그리고 끝으로 실험분석표까지 작성했지요.

실험분석표에는 매 실험구별로 나무종류와 살충적효과가 다 적혀지게 됩니다.

풀막을 나서니 노루덕우로 둥근달이 둥둥 북을 치며 막 날아오릅니다. 어쩐지 우리는 마을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그마한 풀판에 나무검불을 모아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앉았지요.

그리고 지난날의 잊지 못할 갖가지 추억들을 재미나게 이야기했지요.

먼 숲속에서 부엉이가 〈부엉!〉 〈부엉!〉 읊니다.

고산지대가 되어선지 어느새 서늘한 밤바람에 이슬이 내리면서 어깨죽지가 축축히 젖어왔지요.

취죽은듯 적막한 고요속에 송진 끓는 소리, 탁탁 장작불이 튀는 소리, 어데선가 흐느끼는듯한 처량한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노라니 평양이 그리워지면서 뭔가 애잡잡한것이 못견디게 얹은 가슴노리를 쫓하게 울려줍니다.

혜숙동무는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 활활 타오르는 불길만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혜숙동무는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되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송동지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나는 솔직히 평양생각을 했노라고 말했지요.

혜숙동무는 여전히 명상에 잠겨 나무아지를 꺾어 우등불에 처넣고있었지요.

무릎을 감싸고 다소곳이 앉은 사색에 잠긴듯한 동실한 얼굴, 사람의 마음을 끌면서도 감히 범접을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위엄이 번뜩거리는것 같은 맑고 깨끗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줄지에 자신의 존재마저 깡그리 잊어버리고 순정의 흰꽃과도 같은 진실하고 소박한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버리고말았다. ...

처녀는 불길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나직이 물었지요.

〈그래 학송동지는 이고장이 마음에 드세요?〉

그 찰나 나는 어째선지 저도 몰래 거짓말을 하고말았지요.

〈아무렴 들다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지, 이곳에서 얼마간 가면 호수가 있소. 거기엔 물고기가 정말 많대요. 나는 낚시질이라면 오금을 못쓰니까.〉 하고 저도 모를 희떠운 소리까지 췌쳤지요.

〈호호호...〉 처녀는 청맑은 목소리로 여돌지게 웃습니다. 그것이 또한 어찌나 귀엽고 재롱스런던지... 나는 이렇게 물었지요. 〈혜숙동무는 이고장이 마음에 안드오?〉

〈호호호, 저말이에요. 저는 원래 평양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모든것을 거기에 남겨두고 여기로 떠나왔어요...〉

혜숙동무는 호-하고 한숨을 지으며 살쫂이 눈길을 내리깔았지요.

순간 눈굽에 물기같은것이 반짝이는것 같더니 모닥불의 불빛이 비껴선지 결연한 생각갇인지 전광석화같은 불꽃이 크고 유순한 눈동자에서 번쩍 피여오릅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그림단말이군요. ...〉

〈예...〉

하고 처녀는 반입속말로 응수했지요.

〈그럼 여기 온게 후회되는 모양이구만...〉

그제야 처녀는 묻는듯한 눈길로 나를 의아히 쳐다보며 수줍은 미소를 살짝 지어보였지요.

〈후회라니요. 전 결코 후회를 안해요. 이 연구를 완성할 때까지 저는 이고장을 제고향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래요. 그러자면 이고장에 자신의 땀과 정성을 바쳐야 하지요. 그러면 이고장도 진실로 제고향처럼 정답고 사랑스러워질거예요.〉

나는 그만 감동에 젖어 〈그렇소?!〉 하고 한마디 반문하고는 정신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닥불에 비친 그의 발그스레한 양볼은 꼭 무르익은 복숭아처럼 탐스럽고 아련합니다.

볼수록 그는 정말 고왔습시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이상스레 가슴이 들레면서 마음을 진정 못하겠더군요. 그 순간에 무슨 말인가 꼭 긴요하게 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시다.

한참이나 말없이 우등불만 바라보던 혜숙동무는 흐르는 침묵이 이상하였던지 나를 돌아보다가 뚫어질듯 바라보는 나의 눈빛을 대하자 얼굴을 돌리더니 성큼 일어서 불무지를 덮더군요. 저도 할수없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품안에 안았던 새를 놓친것만 같아 아쉬운 마음이었지요. 그를 따라 나도 발자국을 땀습시다.

밤경치는 참말 좋습니다.

우중충한 검푸른 숲속에서는 밤꼬꼬리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은색빛 령롱한 나무잎새들에는 마치 꽃구름이 피어난것처럼 하얀 채색이 얹혀있습시다.

나는 확확 달아오르는 얼굴을 그가 띠여불가봐 앞장에서 은하수같은 시내물을 따라 성큼성큼 산기슭으로 내려왔지요. 뒤를 돌아보니 혜숙동무는 그제야 숲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옵니다. 헌데 그는 은은한 달빛 채운속에 싸여 꼭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선녀같았지요. 그야말로 신령스럽고 황홀한 모습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저도 몰래 그에게 반하였음을 느끼었지요. 하지만 나는 애정을 서두르며 표현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연구사업의 나날속에 우리들의 정도 더욱 깊어졌고 나는 끝내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혜숙동문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서 고개를 가만히 수그리고 대답이 없더군요.

내가 미덥지 않았던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속에서 나를 검증해보고싶었던지 도무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백번 짝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가지었지요.

대기의 찼찼한 해별이 부드러워지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음마저 나무숲속에 잣아드는것 같은 정적속에서 갈가마귀울음소리와 나무끝을 스쳐가는 바람소리를 들을 때면 산골의 따분한 생활이 지루하게 여겨지고 어서 빨리 불밝은 수도의 거리를 나란히 걷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오면 마을사람들은 집문앞에서 한골짜기나 멀리 떨어진 아래집사람을 소리쳐 불러내여 지척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을 목격할 때면 새삼스레 정말 외진 산골에 와있다는 생각이 조수처럼 밀려들지요.

기일이 오래 걸릴것으로 예상했던 연구사업도 비교적 빨리 결속되어 나는 혜숙동무에게 이젠 떠나가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실험일지를 정리하던 그가 〈아니, 벌써 떠난단 말이에요?〉 하고 놀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살충제의 효과가 확실하니 여기서 더 우물거리며 있을수 없다고 하였지요. 과학적인 실험분석들은 평양에 가서도 할수 있으니 어서 떠나자고 했지요.

한참 무엇인가 생각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사업이 거의 성공적이라고 말할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할 일은 있어요. 그 뒤처리에는 제가 할테니 학송동진 먼저 평양에 가서 논문을 준비하세요. 저도 인차 따라서겠어요.)

나와 눈길이 마주칠가 두려워선지 그는 눈길 한번 들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기가 안타까와 이제는 확정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같이 떠나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머리를 저울뿐 어서 먼저 떠나라는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날밤 나는 온밤 이리 궁씹, 저리 궁씹거리며 잠들지 못하고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숙동문 제먼저 나의 려장을 꾸려가지고 등을 떠미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처녀를 외진 산골에 홀로 두고 가자니 나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나는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려객선이 올동안 부두대기실에 앉아 지겨운 생각이 들만큼 따분한 이야기만 주고받았지요.

그때 나는 혜숙동무가 세상물정을 너무나 단조롭고 소박하게만 생각한다고 여기었지요.

내가 여러 생각말고 인차 따라오라고 하였더니 혜숙동무는 정겨운 눈빛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습니다.

〈먼저 떠나세요. ...저는 좀더 있어보겠어요. 아무래도 잔류독성이 있는것 같애요. 글썽 실험구 1에서는 청서 5 마리, 실험구 2에서는 메뿔 3마리가 원인없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식물보호구이면서 동시에 동물보호구가 아니예요?그러니...〉

하고 갈린 목소리로 말하겠지요.

나는 그가 별로 상관없는 자질구레한 일일까지 신경을 쓰는것 같아 화를 내며 그의 말을 중등무이했습니다.

〈참 답답하다구야, 자연의 천태만상의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질수 있단 말이요.〉

바로 이때 려객선의 도착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길게 울렸지요.

나는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붕 고동을 울리자 뜨거운것이 몽클 치밀면서 목구멍을 짹 메웠습니다. 하여 우리는 둘다 아무 말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처녀는 려객선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따라오며 손을 흔들어 바래주었지요. ...

평양에 올라온 나는 인차 론문집필에 달라붙었습니다.

온 연구소적으로 나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연구사업에서 속도도 있고 탐구력도 있다구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함께 오지 못한 혜숙동무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나는 한주일이 멀다하게 편지를 날렸습니다. 그는 회답을 했는데 뜨거운 애정이 담긴 나의 편지에 비해서는 너무도 딱딱하고 단조로운 편지들이 날아왔습니다. 흔히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안부를 묻는 편지였어요. 그럴수록 처녀가 쾌심하기도 했지만 나의 려정의 열도를 채보는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연구소에서는 영림분소쪽에서 진디물의 후과가 크게 미친다는 소식을 듣고 연구소에서 성과가 있는 나를 그쪽에 보냈습니다. 나역시 자신 만만하게 그곳으로 달려갔구요. 나는 달려가자마자 자신의 명성을 펼쳐보려는 야심을 먹고 휴식도 없이 일에 달라붙었지요.

산림에 류포되고있는 진디물을 단시일내에 없애려는 욕망으로 화합물의 농도를 배로 늘여 살포했지요. 그러나 나의 〈야심작〉은 빛나는 명예대신 시꺼먼 흙탕칠을 해버렸습니다.

과악없이 화합물의 농도를 배로 높여어서 술한 나무들이 죽고 산새들이며 짐승들이 자기들의 요람을 떠나가버렸습니다. 애정이 없는 연구사를 모두 배척해버렸지요. 처녀와의 관계도 같았습니다. 연구소를 떠나올 때 나는 영림분소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 편지해서 그를 깜짝 놀라게 하고 현혹시키려고 마음먹고 소식도 전하지 않은채 떠났었지요. 그러나 엄중한 후가가 초래된 마당에서 처녀에게 무엇이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 일주일이 멀다하게 보내던 편지는 툭 끊어지고말았습니다. 그럭저럭 나는 거의 1년을 산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연구사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는 나날에 산림과학자인 내가 평양의 연구소에 있느니보다 현실에 더 깊이 접근할 목적으로 영림에 아주 떨어졌고 실장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기간 어느 하루도 처녀를 잊은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나의 열정이 식어졌다고 생각할가봐 겁이 날뿐이었습니다…》

3

나는 부지런히 말썰매를 몰았다. 주위에는 언덕들과 골짜기들이 련련이 뻗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토막토막 끊어져나간 눈덮인 벌판이 얼핏얼핏 지나가곤하였다. 구릉이며 골짜기, 들 할것없이 모두가 눈속에 묻혀있었다. 때없이 눈가루를 휘몰아오는 바람이 목깃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어쩐지 점점 초조해지는 마음을 달랠길이 없었다. 그것은 하늘 한끝에 피어오르는 한점의 작은 구름장을 발견했기때문이었다. 처음 나는 그것이 무슨 눈덮인 작은 구릉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런데 바람이 시시각각 세차지면서 한점의 작은 구름덩이가 커다란 구름떼로 변하는것이였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눈보라가 터졌다. 일시에 길은 눈발속에 묻히고말았다. 훔날리는 눈발은 주위를 뿌옇고 누르끼레한 장막으로 뒤덮어버리고 하늘과 땅은 거대한 눈바다를 편상시켰다. 눈보라가 광란하는 파도마냥 무섭게 들레며 뒤채였다.

하얀 눈속의 꺾두룩한 새초들이 애리애리한 몸을 바르르 떨며 바람에 한껏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잉-잉- 애처로운 소리를 내곤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철없는 아이의 지청구같기도 하고 애끓는 사연을 하소하며 가야금을 탄주하는 불행한 녀인의 가냘픈 곡성처럼 들리기도 하였다.

말은 불어오는 눈보라에 머리를 짓속이고 간신히 다리를 옮겨놓았다.

나는 실장에게 말하였다.

《실장선생, 저 골짜기쪽으로 내려가 눈보라나 굿고잡시다.》

《그렇게 합시다.》

나는 두 산릉선사이로 뻗어간 깊은 골짜기쪽으로 말을 몰았다. 그곳은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한 장소였다. 량옆이 산벼랑이고 좁은 소로길이 지나간 앞뒤에는 큰산이 바람을 막아주고있었다.

주위에는 떡갈나무들이 우중충 들어서있었다. 산릉선과 골짜기, 벌판들에서는 희뿌연 눈보라가 망망한 대해처럼 설레며 울부짖었지만 이곳은 바람한점없이 고요하다못해 호젓하기까지 하였다.

나는 썰매에서 내려 벼랑가에 다가갔다. 마른 나무가지들을 모아 고깔불을 피웠다. 불길은 제법 활활 바람소리를 내면서 세차게 타올랐다. 나는 털가죽밑에 넣어두었던 감자 몇알을 꺼내여 불속에 집어넣었다.

시꺼매진 하늘로 해서 골짜기는 밤중이나 된것처럼 캄캄했다.

학송은 허리를 수곳이 구부리고 마른 삭정이로 불을 헤집었다. 그때마다 시뻘건 잉겔불속에서 차돌같은 감자들이 이리저리 나뿔굴었다.

휙휙 타는 불길이 그의 갱뿔한 얼굴을 빨강게 비쳐주었다. 모닥불주위에서는 둥글고 불그스레한 그림자들이 마치 탈춤을 추듯 어둠속에 너울거렸다. 우리가 앉은 등위의 너럭바위에 비낀 꺼멓고 길쭉한 그림자들은 수없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얼른 거렸다.

감자가 익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불무지를 헤치고 꼬챙이로 감자알들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했다. 시커멓게 재티가 오른 감자를 최학송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는 감자껍질을 벗기며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소장동지가 나를 불러놓고 연평지구로 곧 출장을 떠날 준비를 갖추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서북부지대의 여러 산림지역들에서는 의연히 진디물에 의한 산림피해가 심한데 연평리지구만은 산림피해도 없고 동물들도 해마다 수자가 증가되다는 것이었지요. 연평리라면 해숙동무가 있는곳에서 멀지 않은곳이었습시다.

혹시 그가 그쪽으로 옮긴것이 아닐가 생각을 하는데 처녀연구사가 그곳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머리속에서 혜숙동무의 선량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막 든장질하듯 무섭게 놀뛰었지요.

나는 그쪽으로 가는 자동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그때가 초겨울이어서 날씨가 몹시 춥고 을씨년스러웠지요. 적제함우에 앉아갔는데 학질을 뱉습니다. 하마터면 동태귀신이 될뻔했으니까요. 그건 그렇구...

여하튼 혜숙동무가 류숙하는 집까지 어떻게 찾아갔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립문을 열고 집마당에 들어서니 마당 한가운데 거의 눈에 묻히다싶이한 도끼모태가 있고 부엌쪽 퇴마루와 마당 안쪽에는 자름자름한 나무가치들과 갓 찍어놓은 구멍탄들이 규모있게 알뜰히 쌓여있었지요.

눈을 깨끗이 쓴 마당가에 들어서서 나는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불렀지요. 이윽고 정지문이 열리며 선살쥔 나보이는 웬 녀인이 나옵니다. 그집 안주인이었지요. 내가 여사여사해서 혜숙동무를 찾아왔노라고 사연을 말하니 무척 반겨맞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겠나요.

나는 퇴마루에 신을 벗고 아래방에 들어갔지요.

안주인은 혜숙동무가 류숙하는 옷방문을 열어주고 부엌으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나는 옷방을 기웃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그마한 방이 꽤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러졌습니다.

왼쪽벽에 서가가 있고 창문쪽에는 책상이 놓여있었지요. 그런데 책상우에 탁상전등이 있고 그옆에 자그마한 사진액틀이 가지런히 놓여있었지요.

나는 저도 몰래 호기심에 이끌려 방안에 들어섰지요. 책상앞으로 다가서니 유리를 깬 밑에 일과표와 계획서같은것이 끼워져있고 그 한옆에는 몇장의 편지봉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뒤집을 지고 편지결봉들을 무심히 들여다보던 나는 거기에 내가 보냈던 편지가 두드러지게 끼워있음을 발견했지요. 자세히 일부인을 보니 연구소에서 보낸 그 편지더라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밑에서 편지봉투를 꺼내고 편지지를 황급히 펼쳐보았습니다.

〈혜숙동무, 어느덧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소. 우리 실 창문밖의 양버들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오.

동무가 보고싶소,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그 노루덕을 씹없이 오르내리는지...

나는 지금 논문의 마지막장을 집필하는중이요. 연구소에서도 나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있소. 이제 이 논문이 세상에 나가 산림부문에서 큰 은을 나타낼 그날을 생각하면 더없이 기쁘고 가슴이 설레이오.

이런 때일수록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동무가 제일 먼저 알아주고 축하해주어야 하지 않겠소. 현대 어쩌서 내결으로 오려고 하지 않소...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어서 내려오우.

과학문제는 다 나에게 맡기고 동무는 그저 내결에만 있어주오. 그러면 되는거요...〉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며 갑자기 숯불이라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거리는것을 느꼈지요. 그래서 편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혜숙동무가 군에 가서 화학약제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그의 눈가에는 풀잎에 맺힌 이슬같은것이 반짝거리더군요. 나는 그가 무척 축갔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늘 흥조가 어리어 밧깃하던 두볼은 살이 내리어 별로 해췌해보였고 반짝이던 눈도 그전같이 빛나는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상했는가 했더니 아무일 없다고 밝게 웃더군요.

나는 며칠동안 그집에 머무르면서 그기간 혜숙동무의 연구사업정형을 알아봤지요. 정말 큰 일을 했더군요.

혜숙동무는 살충제의 효과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 두가지 결론을 지었지요. 하나는 살충제의 농도를 높여 나무에 주면 구제력은 높아지나 2차잔류독성으로 그 나무열매를 먹은 산새들이나 산짐승들이 죽게 된다는것, 다른 하나는 살충제를 액체상태로 뿌려주면 1차잔류독성으로 역시 같은 피해가 온다는것, 그래서 그 동무는 살충제의 농도를 낮추어 비료를 주듯 나무뿌리부근에 뿌려주는 한편 새로운 방법으로 바늘잎나무(활엽수도 포함)에 대한 진디물의 피해를 완전히 막을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지었지요. 그는 살충제의 농도를 낮추는 실험과 함께 살충제를 뿌려준 나무의 열매로 메뚜기, 청서, 메뚜기 등에 먹여보는 방법으로 2차잔류독성문제를 해결했지요. 그 결과 그곳 연평리일대에서는 나무가 말라죽는 현상도 없어지고 동물들이 원인모르게 죽어가는 일도 완전히 퇴치하게 되었다더군요. 그는 이야기할수록 활기를 띠었고 두눈은 구슬처럼 명롱하게 빛났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빛나는 법입니다.

허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를 쳐들수 없었습니다. 한그루의 나무, 한마리의 짐승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제가 무슨 산림과학자겠습니까. 혜숙동무야말로 진정한 산림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성과는 그의 지식보다는 그 뜨겁고 아름다운 심장이 이루어준것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열배 스무배로 더 강해짐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그의 매력에 대한 사

랑이었다면 이때는 존경과 감탄이 섞인 사랑이었습
니다.

며칠후 출장기일이 다 되어 나는 그곳을 떠났습
니다. 그사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
니다. 나는 나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역시 나를
사랑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걸음도 무척
가벼웠습니다.

혜숙동무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나를 내려주
었습니다. 인차 나를 따라오겠노라고 약속을 하면
서 ...

우리는 산촌의 자그마한 버스정류소에 서있었
지요. 그날따라 눈보라가 사납게 울었지요. 북방의
눈보라야 원래 유명짜하지 않습니까.

온통 하얀 산골짜기에 갈기를 일으키며 눈보라
가 울부짖었지요. 강안도로를 따라 뻗어간, 눈에 덮
여 동아줄처럼 굽어진 전선줄들이 바람에 뒹뒹 울
어댔지요.

버스를 기다리는동안 처녀는 추운지 어깨를 움
송이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처녀의
언손이라도 꼭 잡아 녹여주고싶은 마음이 간절했으
나 그러지를 못하고 희끄무레 흐리어 찬바람만 불
어대는 날씨를 저주했습니다.

〈참 날씨 왜 이리 사납담!〉

될수록 추위에 떠는듯싶은 처녀를 보지 않으려
고 머리를 돌리며 웅얼거리는데 혜숙동무 미소를
떠운채 말했습니다.

〈어쨌서요? 난 그래도 눈보라가 좋더군요. 지동
치듯 불어대는 눈보라를 맞을 때면 항일투사들의
불굴의 모습도 그려지고 그러느라면 잠자던 열정도
되살아나거든요.〉

처녀의 말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
몸을 돌려 그에게로 돌아서려는데 때마침 눈보라가
우리를 휩 감싸며 지나가는바람에 나는 숨을 헉 들
이키며 한열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혜숙동무
하얀 눈속에 묻힌 발을 뿔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있었습니다.

이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보라
속에 서서 하얀 목수건을 날리며 오래오래 손을 흔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편지가 뜯
겨어졌습니다.

여러차례 거듭 편지했으나 도무지 소식이 없더
니 하루는 편지가 해당 장소에 본인인 없다고 되돌
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별생각을 다했습니다. 혜숙이가 혹시 다른
총각이라도 있는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왜 편
지가 없을가. 이런 고민속에 이력저력 거의 석달이
흘락 지나고말았지요.

하루는 끝세 웬 낮모를 처녀한테서 편지가 한장
날아오지 않았겠습니까...》

4

큰길에 나서니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조그마한 귀틀집이 하나 나졌다. 한적한 이 산간지
방을 찾는 길손들을 위하여 꾸린 간소한 식당이었
다. 여기서는 메밀국수, 농마국수 그리고 여러가지
지짐들을 팔았으며 이 지방의 특산인 호프를 두고
담근 맥주도 팔았다.

나는 그쪽으로 무작정 썰매를 몰았다.

귀틀집에 들어서니 방안은 너렁청한데 그 복판
에 시대에도 어울리지 않는 시뻘결게 단 도람통 쇠
난로가 있고 그 좌우에는 식탁이 서너개 있었다. 쇠
난로의 굴통은 조그마한 바라지 한끝으로 빠져나갔
다.

우리는 메밀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오갈피차를 한잔씩 마시고있었다.

학송은 묵묵히 차를 마시다가 느닷없이 편지 한
장을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네겹으로 접은 편지지를 펴들고 소리없이
읽어내려갔다.

《실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실장동지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저
으기 놀라며 의아히 생각할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이런 편지를 써보내느냐고... 하지만 놀랄것도,
언짱게 생각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조혜숙동무의 담당간호원 홍혜선입니다.
조혜숙동무는 지금 이곳 원흥료양소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실장동지를 한번도 만나뵈운적이 없
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실장동지가 이
미 친숙한 생활의 벗으로 되고있습니다. 그것은 조
혜숙동무가 실장동지에 대하여 저에게 너무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기때문입니다. 더없이 의젓
하고 대바르고 궁냥이 깊으면서도 인자한 인품을
지닌분이라고...

현데 이런 좋은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저에게는
한가지 이상한 생각이 자꾸 갈마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실장동지가 한번도 면회오지 않는가...

저는 혜숙동무로부터 두사람사이의 남다른 관
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말
로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이었더군요.

나이 어린 저로서도 무척 부럽더군요... 혜숙동
무가 불화카리의 살충력을 시험하기 위해 바위끝에
나가있을 때도 밤늦도록 해충시험을 하고 강변을
거닐며 청춘의 희망에 대하여 끝없이 이야기를 나

누었다더군요. 한창 신바람이 나 이야기 하다가 내일이 내리여 그것을 굶느라고 키높은 미루나무속에 들군하였다지요. 그날밤 하늘은 류달리 맑고 둥근달은 또 그렇게도 휘영청 밝았다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열이 많으신분이 어찌하여 한번 면회도 오지 않는가요.

그 정열, 그 사랑이 벌써 식어버렸나요. 정녕 그렇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또 어데 있겠나요...

실장동지, 저의 억측이 부디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혜숙동문 제가 편지쓰는줄도 모릅니다. 그는 실장동지를 위해서 물려서겠다고 하더군요. 부담이 될가봐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그의 세계가 말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일고있어요.

참 실장동진 눈보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혜숙동문 눈보라를 좋아하더군요. 세찬 눈보라는 이 땅우의 거접스러운것들을 모조리 휘몰아가고 순수하게 정화된 은빛세계를 펼쳐주기에 자긴 거기에 매혹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생각했어요. 사람도 그런 생활의 〈눈보라〉속을 뚫고 나와야 완성된 인간으로 될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실장동지, 부디 우리 혜숙동무를 사랑해주십시오. 그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기 바랍니다. 지금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실장동지의 따스한 손길이 요구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받을것이 아니라 주는것이라야 진실한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19××년 1월 ×일 홍혜선》

방안은 조용하였다.

바라지문으로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간밤 눈보라에도 지치지 않았는지 귀틀집앞의 몇십년 묵은 설송나무에서는 동고비 한마리가 술방울을 쪼으며 이 산속의 새벽고요가 신기한듯 목청을 돋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제마끔 생각에 잠겨 한동안 굳어진듯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5

이튿날이었다. 나는 썰매를 료양소 3 호동병실 앞에 끌어들었다. 말잔등에서 덕석을 벗겨내리고 멍에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그리고 황부루의 거센 털에 앉은 희끗희끗한 성예를 곁레로 문대주었다. 이

제 최학송실장이 소장실에서 나오면 곧 영림분소로 떠날것이다.

병실바깥현관에는 방금전에 최학송실장과 진지하게 담화를 나누던 처녀가 그런듯이 서있었다. 흰칠한 키에 몸매가 날렵한 처녀였다. 그는 줄무늬간 환자복을 입고있었다. 가름한 흰얼굴에 열기편 동그란 검은 눈이 펍 인상적이였다.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긴듯 성예가 송화가루처럼 날리는 푸른 창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나무계단을 쿵쿵 울리며 키가 작달막하고 오동통하게 생긴 처녀간호원이 현관을 뛰어오르고있었다. 찬바람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흥안의 젊음때문인지 동실한 얼굴은 익은 사과알처럼 새빨갰다.

처녀간호원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언니, 어찌면 그럴수 있어요. 언니에게 사랑을 주자고 수십리길을 오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다지도 몰라줄수 있느냐말이에요.》

《...》

처녀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뭐 친분이 아니라 백번을 찾아온다고 해도 사랑할수 없노라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이가 곁에 없을 때는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며 옛사랑을 동경하다가도 막상 만나면 랭혹히 거절하니 말이에요. 이거야 참...》

하고 혜선간호원은 못내 안타까운지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울상이 되었다.

《그인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니? 그렇게 되면 큰일하는 사람을 도와는 못하고 손발을 얹어매게 될게 아니냐.》

하고 혜숙은 저으기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이듯 말하였다.

《왜 그렇게만 생각해요? 병이야 고치면 되지 않아요. 실장동진 진심으로 언니를 사랑하고있단말이에요.》

《혜선아, 그 말은 옳다. 하지만...》 하고 혜숙은 갑자기 흐흑-느끼며 황황히 자기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창문쪽을 바라보았다. 바깥에 성예가 하얗게 불려 방안은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썰매는 떠났다.

나는 채찍을 쳐들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찌! 찌-》

학송은 깊은 생각에 잠겨어 앉아있었다. 나는 침묵에 잠긴 그를 바라보다가 그들의 소식이 못내 궁금해서 먼저 말을 건넸다.

《그래 처녀가 뭐라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야 나에게 부담을 끼칠수 없다는것이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회주의조국을 위해서 모든것을 바쳐달라는것이지요. 그 동문 말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과학자로

키워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이 고마운 제도에 기여하길 보답하고싶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말입니다.… 그러나 낭떠러지에 솟아있는 그 한그루 나무에서 살충제후과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스쳤다면 그것은 영원히 자기 량심에 흑점으로 남아있었을것이라고 하더군요. 몸은 비록 예전처럼 성성치 않고 허리를 잘못쓰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푸르러 설레이는 숲에 고운새 노래하면 그것은 자기가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산 보람의 흔적이라고 생각된다는것입니다.…》

학송은 서류가방에서 두툼한 원고를 꺼내더니 나에게 보여주는것이였다.

《이것 보십시오. 이건 그 동무가 4 년간에 걸쳐 연구한 연구테마와 그 자료철입니다. 그는 이걸 내게 주면서 어서 론문을 완성하라더군요.… 그 동무의 피와 땀이 스민 자료들을 네가 받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모든걸 혁명의 리익의 건지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나는 어제밤에 밤을 꼬박 새면서 이 원고를 보았습니다. 처녀의 심장에 높뛰는 열정과 조국애의 정신이 글줄마다 또렷이 안겨왔습니다.》

그는 흥분되어 열정적으로 말했다. 마치 그 흥분의 여파가 나에게도 미쳐오는것 같았다.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이시우?》

《어떻게 할 생각이라니요? 그를 행복하게 해주어야지요. 제가 어떻게 다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한마디로 명백했다. 대바른 젊은 사람의 의지가 마음에 들어 그의 등이라도 두드려 주고싶으리만치 가슴이 설레었다. 나는 청춘의 열정이 되살아나는듯싶어 신이 나서 채찍을 휘둘러가며 말을 몰아갔다.

썰매는 수림속에 들어섰다. 하얀 눈가루들이 꽃잎처럼 흩날렸다. 아침해별은 따스하였다. 숨이불을 피놓은것 같은 하얀 벌판과 언덕들은 가닥가닥 엇비스듬히 내리쬐이는 해빛에 눈이 부셨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혜숙연구사는 지금도 저 창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있으리라!

(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자신의 모든것을 남을 위해 바치는것을 행복으로 아는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가 피운 꽃이 아닐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채찍을 힘차게 휘둘렀다.

《썰! 썰-》

드디어 썰매는 꼬니밭의 꼬니들처럼 우뚝우뚝 줄지어 서있는 원추모양의 이깔나무숲사이길로 빠져나왔다.

눈보라가 멎은 뒤의 하늘은 티없이 맑고 해별은 즐기차게 쏟아져내리었다.

아버지들이 심은거란다

리종덕

반백의 머리칼을 날리며
고향의 숲에 올랐더니
아름이 별도록 자라나
원시림처럼 우거진 잣나무들

풍요한 열매들이 좋아선가
아이들은 기쁨과 환희로 설레는데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못할 긍지와 자랑의 말이 있구나
-이 아버지들이 심은거란다-

전쟁을 이긴 이 땅에
복구건설의 노래 높던 그날
우리들은 삽과 팽이를 메고
원썩들이 불태운 이 산에 올랐더라

생각해보면
그날에 가지고 올랐던 삽과 팽이
귀찮고 허리부러진것들이었다만
얼마나 뜨거운 추억을 불러주는가

아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 새겨주며
30 년 40 년후 언제이던
이 산에 올라보라던
담임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벌써 어린 가슴속에 설레이던
이 숲이 아니던가

오 제가 자라난 땅에
땀을 뿌렸음은 얼마나 좋은가
제 가꾼 숲과 열매를
자기의 후대들에게 보여주기란

이제
이 아버지들이 나이가 더 들어
백발을 더 흩날린다 하여도
얼마나 가슴이 부풀것이나
어릴 때 안아보던 아름다운 그 미래가
사회주의 내 조국강산에
그대로 꽃피나있기에

탄부가 받은 인사

허경철

인사는 마음속 진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근하고 다정하게 하여주는 도덕적관계의 한측면이다.

하루에도 여러번 나누는 술한 인사말을 일일이 기억해두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일생을 두고 기억하면서 흐르는 세월속에서 거듭거듭 되새겨야 할 그런 인사를 받은적이 있다.

몇해전 가을 어느날이었다.

열두삼천리벌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마치고 귀로에 오르셨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안주의 탄부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청남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시였다.

오시는 그길로 잠시의 피로도 푸심이 없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여러명의 탄부들부터 만나주시고 그들이 쓰고 사는 살림집과 목욕탕, 상점을 차례로 돌아보신후 한 제대군인 굴진소대장의 가정에도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새살림을 차린 자식의 집에 오신듯 어버이심정으로 방안과 부엌의 갖출새며 온습도계의 눈금까지 보아주시면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피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는 가봐야겠다고 하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나간 그 집 주인을 못만나보고 가시는것이 못내 아쉬우신듯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시며 모든 탄부들이 건강해서 일을 잘하라고, 그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거듭하여 부탁하시였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청남땅으로 퍼져갔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탄부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마음속의 한가닥 서운한 심정마저 가서 주고싶으시여 자신의 진정어린 인사를 탄부들에게 보내주셨겠는가.

탄부들에게 보내주신 수령님의 인사!

그것은 동무 호상간에 흔히 오가는 인사도 아니고 사제지간에 주고받는 보통인사도 아니였다. 그것은 한나라의 수령이 평범한 탄부들에게 보내신 숭고한 사랑의 인사이며 가슴뜨거운 축복의 인사였다.

인류력사의 수천년을 더듬어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그토록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평범한 탄부가정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피주

시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면서 그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분은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 로고와 심려를 다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인사였다.

세월은 흘러 잊을수 없는 그날은 멀리 갔어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탄부들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인사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생생히 간직되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받들려 어제날 굴진소대장은 공화국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이것이 어찌 그 탄부 한사람에게만 한한 일이라.

어느해에는 우리고장에 처음 오셨던 어버이수령님께 나이든 탄부가 꽃다발을 드렸을 때 이런 꽃다발은 자신이 아니라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탄부가 받아야 한다고 사양하시면서 로탄부의 가슴에 다시 안겨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 원썬놈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안주탄광소년근위대》대원의 어머니에게 보내주신 은정어린 선물과 감사편지!

왜놈들이 살판치던 지난날, 계딱지같은 초가오막살이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진탕투성이 오솔길에 구슬픈 신세타령 잣을길 없던 이고장에 오늘은 락원거리설계일식 그대로 현대적인 고층살림집과 편의봉사시설이 그뿐히 갖추어진 탄부도시를 안겨준 그 은정, 해마다 설명절이나 국가적명절이 다가오면 온 나라 인민이 울리는 축원의 인사도 받으시기 전에 명절선물부터 탄부들에게 골고루 안겨주도록 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

품을 놓고 꼽아도 다 꼽지 못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속에서,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 하시며 로동계급을 내세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믿음을 안고 우리 안주의 탄부들은 나라의 생명선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전초병으로 어엿하게 자라난것이 아닌가.

나는 오늘도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캔다.

수령의 진심으로 되는 뜨거운 사랑에 전사의 뜨거운 충성심이 안배된 로동계급의 열정어린 인사를 드리고저...

아버지의 훈장과 메달 외 1 편

백의선

기어이 승리하고 돌아오마던
아버지는 전선에서 다시 못오고
언제인가 분대의 전우들이 전해온
훈장과 메달이 나에게 있네

내 어릴적 아버지 보고싶을 때면
소중히 쓸어보던 훈장과 메달
그러다 가슴에 품고 잠들면
꿈결에도 보았네 들꽃핀 언덕너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정든 모습을

나는 마음속에 그려보았네
영웅담과 전투영화들을 보고 들을 때면
가장 용맹하고 자랑스러운 병사를
아버지의 모습처럼

훈장이 어찌 삶을 대신하랴

허나 내 성장의 나날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살고있었네

이제는 나도
그날의 아버지가이 넘어섰건만
때로 투쟁과 생활에서 어려운 고비 부닥칠 때면
아버지의 훈장과 메달을 다시 보군하네

그러면 나의 아버지-전호숙의 분대장
불사신처럼 내앞에 거연히 일떠서며
포연에 갈린 목소리로 구령을 치네
-일어서라, 앞으로!

아, 아버지의 그 심장 그 숨결...
전투속의 그 모든 병사의 기질이
이렇게 나의 한생에 옮겨지는것이리
조국이 준 훈장과 메달들과 함께

설레이는 은행나무

정든 내 고향 동구길가에
푸르려 설레이는 은행나무 한그루
무엇을 속삭이나 이야기하나

전화의 날 전선을 떠나던 마을젊은이들
수첩갈피에 푸른 잎사귀 하나씩 넣고갔네
어디 가도 고향의 향취 잊지 말자고
불비를 맞아도 그 잎사귀 타지 않았네

천리 행군길에, 전호가의 달밤에
푸른 잎사귀 그 무엇을 속삭여주었나
은행나무아래서 기다릴 처녀 이야기런가

애국미 싹고가던 소방울소리런가

돌격으로, 결전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 누구는 쓰러져 숨이 질 때에도
가슴속에 아, 가슴속에
은행나무 푸르려 고향은 푸르려...

그 젊은이들 다는 돌아오지 못했어도
조국의 승리가 빛나는 훈장들을 번쩍이며
젊은이들은 은행나무를 뜨겁게 끌어안았거니
무엇으로 죽음을 넘고 무엇으로 이겼는가를
설레이며 속삭이네, 은행나무 한그루...

교훈시

안타까움 외 1 편

송명근

책과는 머리를 싸매고
지그시 마주할줄 몰라
자주 듣군하네 아들에 하는 소리
《에라, 오늘날 날인가
래일 또 만나자》

이녀석
시간과는 똥을 하는게 아니야!
왜 모르는가 귀에 길이 나도록 타일려도

《오늘》은 한번 잃으면 그만
열, 백의 《래일》로도 보상할수 없음을

안타까움이여
생각많은 내 나이에 너를 세워볼수 없는가
내 짧은 날 흘려버린 《오늘》들이
한생을 빗쟁이처럼 줄지어 따라오며
《찾아달라 내 뭍을... 내 뭍을... 내 뭍을...》
지못게 괴롭히는 소리 너에게 들려줄수 없는가!

탐구의 길

품앗이할수도
대신할수도 없다네
결심품고 들어선 탐구의 길
에도는 길 많지만
찾지 말라 지름길은 아예 없어

땀 안배인 날들은
요령과 거짓으로 장식되는것
오직 한생 쉽없이 노저어야 하나니
뒤돌아보며
잠시 숨돌릴새도 없어라 탐구의 길

가사

우리 가는 길

박남혁

기계소리 정다운 공장구내길
풍년바람 불어오는 농장포전길
청춘을 부르는 길은 많아도
내 여기 탄전의 막장길 걷네
아 우리 가는 길
경제의 생명선 지켜가는 길

낮에도 해빛은 여기 없으랴
밤에도 별빛은 볼수 없으랴
사랑의 안전등 불빛 따라서

내 가는 탄전의 막장길 좋아
아 우리 가는 길
경제의 생명선 지켜가는 길

가정의 행복도 이 길에 있고
조국의 존엄도 이 길에 빛나네
난관이 막아선다 탄 길을 가랴
내 청춘 탄전에 바쳐가리라
아 우리 가는 길
경제의 생명선 지켜가는 길

농촌 새 세대청년들의 성격창조에 바쳐진 작가의 사색과 탐구

김해월

그가 작가라면 누구나 당에 기쁨을 드릴 명작, 인민들의 사랑속에 길이 남을 좋은 작품을 쓸 욕망과 결의로 가슴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이 소원, 이 결의를 안고 작가들은 한생을 사색하고 탐구하며 창조의 길을 끝없이 걸어간다.

어떤 인간, 어떤 생활을 그릴것인가. 시대와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정, 새것의 탐구로 이어진 창조의 나날에 작가들이 써낸 발견있는 참신한 작품을 대할 때면 평론가들은 자기 성과처럼 기뻐하며 그 성과를 옹호해주고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한다.

최근 90 년대에 창작발표된 소설들인 《우리를 부러워하라》(작품집 《보람》 1990 년)와 《뼈꼭새가 노래하는곳》(《조선문학》 1990 년 3 호 리태운) 텔레비전극문학 《종달새》(《조선예술》 1991 년 10, 11 호 손광수)는 성과가 큰 작품으로 우리 문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독자들을 기쁘게 해준 작품들이다.

무엇이 독창적이고 참신한것이기에 이 아담한 작품들이 독자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가.

인간문제의 심각성인가, 날카로운 극적대립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의 첨예성인가. 그렇지 않다.

그 비결은 오늘 우리 현실속에서 꽃피어나고있는 새로운 인간성격을 탐구한데 있다.

우리들은 이미 작가연단을 통하여 90 년대 우리 시대 인간성격창조에서 혁신적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였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것이고 리론적인것이며 기초적인것이다.

우리는 문학형상으로 90 년대 새로운 인간전형을 창조해야 한다.

작품에서 리상화된 생활이나 리상화된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속에 있는 매혹적인 생활, 평범한 인간이 지니고있는 매혹적인 정신세계를 보고싶어하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로, 취미로 되고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에서 레를 든 세 작품들은 지난 시기보다 달라진 현시대 농촌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를 리상화하지 않고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훌륭하게 보여주는데서 이 작품들이 성공할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이 제일이라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장의 뱃으로 체현하고 생활로 구현해가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풍만한 형상으로 그려낸데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장편소설들인 《땅》, 《석개울의 새봄》, 《생명수》, 《새봄》, 《대지의 아침》(제 1 부), 《백두고원의 봄》, 중편소설들인 《세대》, 《향토》, 《버꽃》을 비롯하여 수많은 농촌주체의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발전의 각이한 시기의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서 인간문제를 찾고 새로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였다.

해방후 우리 작가들은 장편소설들인 《땅》의 광바위나 《석개울의 새봄》의 김창혁과 같은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하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토지개혁을 이룩하고 농업협동화방침을 빛나게 실현해가는 민주건설시기나 사회주의개조시기 우리 농촌의 미더운 농민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그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 90 년대 우리 농민의 전형은 광바위나 김창혁이와 같은 인물일수 없는것이다. 왜냐면 오늘 우리 농민들은 그때 인물들보다 훨씬 높은 의식수준과 기술문화적소양을 갖춘 지성적인 인간들이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미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인 중편소설 《세대》, 《향토》, 《버꽃》을 잘 써서 내놓았다. 이 작품들은 사회주의농촌의 새 세대주인공들의 성격특징을 옹계 탐구하여 그림으로써 인민들의 사상교양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작품들은 로세대와 새 세대, 새 세대들 호상관계속에서 우리 농촌청년들이 자기들이 지닌 시대적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농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청년들이 자기 교향땅에 진출하여 뿌리내리고 당의 구상을 꽃피우는 핵심으로 자라나는 문제는 지난 시기 사회주의농촌현실에서 해결을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중의 하나로 제기되고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 작가들은 당시 농촌에서 해결을 바라는 이 절실한 문제를 풀기 위해 자기들의 작품에 등장한 새 세대 주인공들에게 의

의있는 종자와 문제성을 체현시키고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그들의 성격이 해당년대 주체형의 인간성격으로 규정성이 뚜렷하게 그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농촌체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도시부럽지 않게 문명한 생활을 누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 농촌이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 년대와 같이 농촌을 뜨느냐 안뜨느냐 하는 문제일수 없고 새 세대주인공들의 정신세계도 그때와 같을수 없는것이다.

단편소설 《우리를 부러워하라》와 《뼈꼭새가 노래하는곳,》 텔레비존극 《종달새》의 작가들은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인간성격과 생활을 투시하고 생활을 철학적으로 파고들어 농촌 새 세대들의 성격적특징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민감하게 발견하고 참신하게 그림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의 높아진 정신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은 모두가 나의 행복, 나의 희망, 나의 리상을 한껏 꽃피워주는 자기 향토에 대한 가슴터질듯한 사랑과 애착으로 차넘쳐있다.

그러면 향토에 대한 사랑과 애착으로 가슴끓이는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문화농촌에서 살며 일하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면서 창조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이라는것이다.

청년들이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고 리상과 포부를 얼마나 높이 세우고 살며 일하는가 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의 사랑과 위훈과 창조가 곧 조국의 위력이고 풍모이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보장하는 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문학은 독자들에게 생활의 진실을 말해주어야 할뿐아니라 힘을 주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리상과 신념을 상실한 인간이 아니라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 길에서 생의 참된 보람과 긍지를 찾는 신심과 락관에 넘친, 현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 세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은 바로 시대적요구, 인민의 지향,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요구를 의무로가 아니라 량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새 세대 농촌청년들의 성격적특징속에서 그것을 밝혀내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 철학가가 되어야 하고 박식가가 되어야 합니다.》

작가는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새로운 경지에 이른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 세 작품이 이룩한 성과는 탐구의 결실로서 우리들의 주목을 끌만한 가치를 가지고있다.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이 농촌 새 세대들의 성격창조에서 성공할수 있는것은 그들의 성격적특징에서 핵을 이루는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생동하면서도 깊이있게 그린데 있다.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이 지니고있는 긍지와 자부심, 이는 향토에 대한 옳은 인식과 리해에서 오는 감정이며 산 체험으로 자기 리상과 포부가 실현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서 오는 높은 자각과 의지의 감정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향토는 버들꽃 피어나는 맑은 시내가의 조잘거림 소리와도 같이 철따라 온갖 꽃 피어나는 숲의 싱그러운 풀냄새와도 같이 사람들에게 애뜻한 향취를 안겨주는곳만도 아니며 자기의 명예를 위한 디딤돌도 아닌것이다.

향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자기들을 행복으로 품어주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며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민 삶의 보금자리이다.

바로 이 향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그 누구보다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사람들이 바로 향토의 주인들인 그들자신들이였기에 그들은 언제나 향토에 대한 강렬한 사랑으로 충만되어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뼈꼭새가 노래하는곳》에서 주인공 영익은 자기에게 도시의 미끈한 처녀를 소개하며 선을 보라고 하는 계모에게 자기 농장의 선희라는 처녀가 제일이고 도마도도 자기 농장의것이 제일 달고 소도 자기 농장의 황소가 제일 잘 생기고 썸물도 자기 농장의 썸물은 장수썸물이라고 한다. 지어 공기까지도 자기 농장의 공기가 제일 맑다고 한다.

텔레비존극 《종달새》의 주인공 진향미는 노래 경연에 미끈하게 차리고 나선 자기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동무들에게 말한다. 자기 농장에 오면 옷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양복점도 있고 머리도 이렇게 곱게 해주는 미용원도 있고 문화회관, 축구장, 룡구장 없는것이 없이 그뿐하게 차려져있어 도시나 공장마을 부럽지 않다고 또 자기 농장에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자기 작업반장은 우리들에게 옷을 하나 해입어도 도시처녀 짝지지 않게 더 곱게 해입고 노래한곡 불러도 꼭 1등을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해주는분이라고 자랑한다.

단편소설 《우리를 부러워하라》에서 멋쟁이 러관책임자가 머리를 치장해달라고 할 때 자기는 수준이 어려서 할수 없다고 굳이 사양하던 군미용소 미용사가 창해와 수연이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한다. 이때 창해는 자기들의 머리가 러관책임자보다 못한게 무엇인가고, 농장원인 자기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고 발끈해서 뛰쳐나온다. 군에 거름을 실으러 갈 때도 창해는 농장원의 존엄을 지킬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흙물은 작업

복을 입고 나서는 본조장 수연을 닮아세워 멋진 동복을 같이 펼쳐입고 나선다.

그러면 과연 영익이가 말하는것처럼 코잔등에 종달새알과도 같이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힌 오동통한 처녀인 선희가 것처럼 아름다운 미인이고 또 자기 농장의것은 무엇이든 모두 제일인가. 향미가 노래경연에 나설 때 차리고 나선 몸단장이 자기 농장에서 하고간것이며 그들의 작업반장이 정말 문화혁명의 기수로 되는가. 창해가 것처럼 귀중히 여기는 《존엄》이 과연 농장원의 참된 공지와 자존심에서 흘러나온 감정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자기의것은 무엇이든 모두 제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 아니고 참된것인가고 반문하려고 하거나 까박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열렬히 긍정도 하고 기뻐도 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까지 하게 되는것이다.

그들이 지닌 공지와 자부심이 저 멀리 연보라빛 운무속에 잠겨있는 한갓 리상에 지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의적인것이라면 것처럼 귀중히 여기게 되며 아름답게 볼수 있을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이 지닌 공지와 자부심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것처럼 애정과 사랑을 듬뿍 쏟아놓게 하는가.

그것은 자기 농장의 모든것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는 향토의 주민들의 열렬한 사랑의 분출이었으며 자기의 모든것을 제일로 만들수 있고 또 만들어야 한다는 나래치는 신심으로 충만된 높은 자각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세 작품은 우리 새 세대들이 지닌 공지와 자부심이 깨끗한 량심과 헌신성으로 안받침된 자각과 의지로 된다는것을 밝혀냄으로써 숭고한 경지에 오른 우리 시대인간들의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남들이 휴식하는 일요일에 종자처리를 말끔히 해놓고 자기들이 못다한 일은 밤늦게라도 해내는 향미나 윤실이가 (텔레비죤극 《종달새》) 지닌 자각성, 진거름을 만지는것도 밤늦게까지 눈물을 관리해야 하는것도 마다하지 않고 지어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으면서 발취득을 손질해놓고도 안심치 않아 안절부절 못해하는 영익이(단편소설 《빠꼭새가 노래하는곳》)가 지닌 사심없는 깨끗한 량심, 하루종일 계획을 넘쳐 두엄을 실어나르고도 한차분이 되나마나한 거름을 실어나르려고 오르내리 뛰며 끝내 실어가는 수연이(단편소설 《우리를 부러워하라》)가 지닌 높은 책임감, 이것이 바로 높은 자각과 의지를 지닌 농촌 새 세대들의 성격적미이다.

이 작품들을 창작한 작가들은 농촌 새 세대들이 가슴깊이 지니고있는 자각과 의지의 깊은 의미를 형상적으로 안겨오게 하는데만 머물지 않았다. 세 작품은 농촌 새 세대들의 공지와 자부심을 이루는

데서 기본으로 되는 향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의 숭고한 경지를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달밤에 강냉이포기들을 어루만지면서 노래경연에 가느라고 김을 매주지 못해서 참 안됐다고 소근거리는 향미의 모습과 발취득이 또다시 무너져내릴가봐 젖먹이 어린것을 잠재워놓고가는 어머니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눈에 밤물대러 가면서도 과외지도 하러 간다면서 들놀이나 가는듯이 흥이 나서 집을 나서는 영익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들이 간직하고있는 향토에 대한 사랑은 곡식이나 가축과 같은 생물체를 다루는 실무적인 사랑이기전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교육자가 제자에게 온갖 심혈을 다해 애정을 쏟아가는것과 같이 진정이 넘친 참된 높은 사랑인것이다.

실로 농촌 새 세대들이 지닌 공지와 자부심은 민족제일주의 감정의 표현이고 한없이 고마운 내조국을 빛내이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충만된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애에 대한 신념화되고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의 깊이있는 반영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지난 시기보다 달라진 우리 농촌 새세대들의 내면세계를 새롭게 보여준 이 작품들의 성과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이 성과는 바로 우리 인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감정을 도해하지 않고 농촌 새 세대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새것을 발견하고 긍정한 우리 작가들의 탐구적자세와 사색의 깊이로 하여 얻어진 값진것이다.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 인간으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참다운 공지와 자부심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확신으로 충만되어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길에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량만과 희열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게 한다.

오늘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의 성격형상창조에서 성공할수 있는 비결은 그들의 참된 삶의 공지와 자부심을 잘 포착하고 깊이있게 그린데 있을뿐아니라 혁명적량만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특질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데 있다.

청춘들의 생활이 환희와 량만과 희열이 없다면 그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과도 같이 생기가 없을것이다. 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무릇 청년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에서 생활을 정서적이면서도 량만적으로 그리기 위해 많은 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하지만 텔레비죤극문학 《종달새》나 단편소설 《빠꼭새가 노래하는곳》에서 락천성은 단순히 청년들의 고유한 기질적특성을 보여주기 위한것이 아니었다. 여기서는 락천성을 우리 농촌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이루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주도적측면의 하나를 이루고있다는것을 밝히기 위한 생활철학적인 문제로 작품전반을 관통시키고있다.

우의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은 농촌청년들의 락천성을 인상깊게 형상적으로 펼쳐보이기 위해 텔레비존극문학 《종달새》에서는 노래경연과 같은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생활분야를 탐구하였고 단편소설 《삐꾸새가 노래하는곳》에서는 사랑하는 애인인 선희가 그토록 즐겨부르는 《내 고향》의 노래를 그를 사랑하듯 그 노래를 열렬히 사랑하는 영익이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작품에서는 노래가 한두 곳이 아니다. 생활전반에 부단히 반복강조되어 흐르면서 혁명적락관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 아름다운 인간의 내면세계의 폭과 깊이를 끝없는 여운속에서 표상시키고있다.

농촌 새 세대들은 모두가 노래없이 살지 못하는 꿈도 많고 웃음도 많은 생기발랄한 낭만적인 인간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쾌활하고 명랑한 기질을 천성적으로 타고났는가. 또 땅을 가꾸는 일이 시나 노래를 읊을 정도로 그렇게 흥그러운 일인가. 그런것은 아닌것이다.

무엇이 것처럼 소박하고 순박한 그들이 련인을 사랑하듯 사랑하기에는 아직 과중한 육체적부담을 요구하는 생활을 섣뵈 버리지 못할뿐더러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노래를 부르며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게 추동하는것인가.

그것은 자기들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부닥쳐도 자기 힘만 믿고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다할수 있다는 궁지가 너무도 크고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리상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신념이 너무도 강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꽃피우려는 아름다운 리상을 지닌 새 세대들의 의욕적인 생활태도와 필승불패의 락관의 표현이다.

하기에 그들의 생활은 노래로 시작되어 노래로 이어지는것이며 향미가 말하듯이 노래없이 사는것은 금붕어가 어항밖에 나와 사는것과 같은것이다.

특히 텔레비존극 《종달새》, 단편소설 《삐꾸새가 노래하는곳》은 그 제목자체가 혁명적락관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의 성격적특징을 잘 보여주기 위한 좋은 시도로 된다.

농장벌을 끝없이 날아며 오날의 행복을 끝없이 노래하듯, 래일의 행복을 예언해주듯 한없는 만족감에 겨워 읊조리는 종달새와 삐꾸새. 이는 궁지와 랑만에 넘쳐 노래와 함께 향토를 꽃피워가는 향미와 윤실이, 선희와 영익이 아니 우리의 모든 농촌청년들의 열정의 상징, 리상의 상징인것이다.

우리의 모든 농촌청년들은 행복한 미래와 보람찬 삶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기에 그들이 것처럼 즐겨부르는 종달새나 삐꾸새의 노래는 사람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떠밀어주는 삶의 활력으로 작용하는것이다.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이 지닌 삶의 의욕과 락천성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주체위업의 정당

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며 어떤 난관앞에서도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곳곳이 나아가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우리 새 세대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삶도 운명도 꽃피워주는 우리 당,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이 무궁하다는 굳은 확신에 가득차있다. 하기에 그들의 심장은 환희로 고동치고 한없이 고마운 이 조국을 영원히 꽃피울수 있는 열정과 힘이 자기들에게 무한대하다는 신심에 넘쳐있으며 어떤 난관앞에서도 동요하거나 물러설줄 모르고 용감히 앞으로 나가는것이다. 다시말해서 락천성은 집단주의생명관을 지니고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에 끝없이 충성다해가는 주체의 인생관의 발현이다.

농촌 새 세대들의 성격창조에서 성공할수 있는 비결은 그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의 주요한 측면으로 되는 창조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을 현대감이 나게 그려낸 데 있다.

높은 자주의식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욕과 환희, 삶의 보람에 대한 의식은 창조의식과 깊이 련관되어있다. 그것은 참다운 삶이 곧 창조와 투쟁이며 이 창조와 투쟁 속에 참다운 삶과 보람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한없이 귀중하고 값있는것은 부모들이 이룩해놓은것을 누리는 행복, 차례진 혜택이 아니였으며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창조하고 빛내이기 위한 창조적인 투쟁이였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이 창조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 소설작품들 가운데서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있는 장편소설들인 《청춘송가》, 《야금지》, 중편소설들인 《병사의 고향》, 《여덟시간》은 현대적인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길에서 청춘의 환희와 보람을 찾는 새 세대들의 창조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이때까지 농촌주체의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인 자각을 가지고 고향땅에 뿌리박는 문제를 기본으로 취급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창조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였다. 그리는 경우에도 현시대의 기술적추세에 잘 어울리지 않게 수공업적인 기술창안들이 보다 많이 그려지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첨단과학과 최신기술을 요구하는 현시대의 과학기술추세에 맞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인간들의 높은 지성세계를 그려야 한다.

《종달새》나 《삐꾸새가 노래하는곳》을 창작한 작가들은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생산에 도입하려는 강렬한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농촌청년들의 지성세계를 잘 그리였다. 하여 그들의 성격이 그저 소박하기만 하고 어떤

지 모르게 촌티를 벗지 못한듯한 느낌을 주는것이 아니라 현대감이 풍기는 성격으로 느껴지게 하였다.

우의 두 작품에서 농촌 새 세대들의 리상과 삶의 목표는 농업로동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이며 농사일 그자체를 흥겨운 노래로 만들자는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으로 되는 창조의 세계가 있는것이다.

텔레비죤극 《종달새》에서는 밀폐식탈곡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호철이를 비롯한 농촌청년들의 탐구의 세계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졌는가 하면 단편소설 《빠죽새가 노래하는곳》에서는 온실로동을 자동화하려고 하는 영익이의 아름다운 리상이 그려져있다.

땅을 다루는 사람은 누구나 먼지를 쓰며 일하는 것을 피할수 없는 레사로운 일로 여기고있다.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은 누구나 레사로운 일로 여기는 이 일을 레사로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모두는 맑은 공기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고 농사일을 자동화하려고 애쓰고있는것이다.

기술혁신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피타는 탐구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랑만과 희열에 넘쳐 창조의 세계를 열어나가는것은 멀지 않아 도시모습으로 활짝 피어날 황홀한 새 농촌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길에 주인을 《주인》으로 되게 하는 참된 환희와 긍지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농촌 새 세대들의 창조의 세계가 높은 지성으로 담보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며 일하는 청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두고 깊이 사색하며 탐구하는 인간의 높은 정신세계가 작품에 선명히 투영되게 하였다.

이들의 지성세계는 텔레비죤극문학 《종달새》의 호철이나 영삼이처럼 대학졸업정도의 수준을 겸비하고 단편소설 《빠죽새가 노래하는곳》의 영익이처럼 외국어를 두개이상 소유하려고 하는 높이에 이르러있다.

실로 이 두 작품에 등장한 우리의 주인공들은 선행년대보다 한계단 뛰어오른 높은 지성세계로 하여 오늘 우리 농촌 새 세대청년들의 성격적특징의 깊이있는 반영으로 되며 또한 매혹적인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 세 작품이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의 성격적특징을 참신하면서도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것은 우리의 주인공들을 특출한 인간이거나 리상적인 인간으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지니고있는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미를 옹게 그려 90년대 인간의 성격특징, 삶의 철학을 풍만한 형상으로 밝혀낸데 있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완성된 인간이 아닌것으로 하여 그들의 사고와 생활에서는 아직 빈구석이 있고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표현들도 있는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 하면 투정을 부리고 엇드레질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농촌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작가들은 농촌 새 세대들의 이런 미숙성을 평범성의 징표로 그리지 않았다. 그들이 지니고있는 평범성은 미숙성과 인연이 없는것이다. 한없이 높은것이 보편적인것으로, 비상한 견인력을 가지고 평범한것으로 일반화되어가고있는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이런 사회적본질에 맞게 우리의 주인공들을 두고 말하는 평범성은 주어진 자각과 책임감, 량심의 발현을 의미하며 특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생활화된 표현을 넘두에 두고있는것이다.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은 충실성의 생활화된 표현을 사회주의의 비옥한 토양에 삶의 뿌리를 두고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우리 새 세대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의 특성과 어버이수령님과 그들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사이와 같은 혈연적관계가 맺어진 데 맞게 덕성자료도 삼입하지 않고 충실성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두곳에서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텔레비죤극 《종달새》에서 이른새벽 자기 농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논두렁에 앉으시여 트랙토르운전수의 밭판을 열어보시는 유화앞에 설 때마다 눈물짓는 향미의 모습, 단편소설 《우리를 부러워하라》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온 나라 농사일을 돌보시면서 자기들이 가꾸고있는 이 땅을 가꾸고계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뿜어오르는 격정에 휩싸여 자기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들이라고 세상을 향해 목청껏 웨치고싶어하는 수연이와 창해의 모습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충효일심을 얼마나 뜨겁게 보여주고있는가.

이것은 랑철한 리성과 논리로도, 화려한 미사려구로 충만된 이른바 《예술적묘사》로서도 도저히 표현할수 없는,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자식된 당연한 도리와 의리로 여기는 우리 새 세대들의 성격적특질을 옹게 그린 깊이있는 탐구적성과로 된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이 지니고있는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락천성과 창조성이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기에 그처럼 아름다운것으로 되고 불패의것으로 되는가에 대한 깊이있는 확증으로 된다.

참신하고 개성적인 우리 농촌 새 세대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이 어떻게 되어 형상적으로 극적흥미를 가지고 독자들의 심금을 틀어잡게 되였는가. 그것은 날카로운 극적대립도 인간관계의 첨예성도 아닌것이다.

자신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자부하며 남을 낯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의 생각이 뒤집히는 오해수법의 능숙한 구사가 이 작품의 극적견인력과 흥미를 보장하게 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후죽순처럼 자라나 아름다운 화원을 이룬 우리 시대 아름다운 인간들의 성격적특징을 부각시키고 량만과 웃음으로 가득찬 우리 사회를 옹계 반영하기 위한 수법의 재치있는 구사인것이다.

그러면 이 작품들에 아무런 결함도 없는가. 물론 그렇지 는 않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것은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관철하는 길에서 날을 따라 발전하는 오늘 우리 시대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현실속에서 생활적으로 발견하고 독창적으로

참신하게 형상한 생활철학의 탐구자로서의 이 작가들의 고심어린 창작적자세와 높은 문학정신의 실천적발현이 가져온 귀중한 열매인것이다.

이것은 창작년조가 오래지 않은 작가가 썼다는 관대성으로부터 흘러나온 한 평론가의 과찬이 아니라 어디서 보던것이 아니라 새것, 자기의것을 들고 나온 말그대로 작가다운 《작가》를 보게 된 기쁨이다. 또 앞으로 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리라는 기대로부터 오는 확신이기도 하다.

사랑은 한밤에도

로성렬

월계획 넘쳐한 기쁨을 싣고
살같이 오른던 인차가 몇차
텅겨나듯 뛰어내린 탄부들
갱구박에 나붙은 숙보관앞에
떠들썩 모여들었네

우리 소대소식이 벌써 났다고
우리 소대가 제일 앞장섰다고
한바탕 환성을 올리던 탄부들
문득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네

이밤에 누가 썬불엿을가
많고많은 나날속에
해밝은 낮만으로는 모자라선가
탄부들과 마주웃는 글발들
저건 분명 우리 당비서 글씨야

아, 지하수천척막장에서
탄부가 안아낸 석탄산의 높이를
이밤을 지새우며 지켜보고있었구나
온 탄광이 보라고 내세워주누나

가슴에 사무치누나
혈치 않은 막장길 멀고멀어도
언제나 떠밀며 이끌어주던 그 손길
이 시각도 장하다
탄부들의 등을 두드려주나니

어린 시절 그날처럼
잊지 못할 어머니 그 사랑이
불현듯 되살아올라
탄부들은 가슴뭉클 젖고말았네

별무리 끝없이 흐르는 밤
인적드문 탄전의 갱구길에
행복에 젖어, 사랑에 젖어
탄부들은 말없이 떠나가도

숙보관의 글발들은
별처럼 빛을 뿜고있었네
어머니의 정겨운 눈빛인양
따라서며, 따라서며 빛나고있었네

고국송 (1)

(중국) 황장석

해와 별 우러러 큰절 올리리

세상에 가고픈곳 많고많아도
제일 가고싶은곳 따로 있었네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도 가리라
말씀을 남기신 나의 부모님

두만강 건느실 때 흘리신 눈물
내 어이 잊으랴 마음에 어렸네

부모님 차고오신 쪽바가지에
아무 복도 못담아준 불효한 자식

오늘은 행복안고 두만강 건는다
새들도 노래하고 꽃들도 웃는구나
한피줄 이어진 고국으로 가져니
해와 별 우러러 큰절 올리리! ...

두만강을 건느며

내 오늘 두만강을 건는다, 흥분에 달아오른

몸으로
승용차에 앉아 친선의 꽃다리우로
눈물의 강이었던 두만강을 건는다
시를 소리내어 읊으며, 노래를 부르며

하늘도 사나이의 마음처럼 건뚫 들리고
땅도 처녀의 손길처럼 다정하구나
강물도 기쁨에 출렁이며 노래부르고
바람도 다정히 무엇인가 속삭이누나

건느면서도 현실임이 믿어지지않아
혹시 꿈이나 아닌지 자꾸자꾸 도정신하여도
부인할수 없는 현실
고국으로 가는것이 확실하구나

부모님들 눈물을 흘리며 고향 떠날 때
쪽바가지 차고서 한결음한결음 옮길 때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장차 이 아들이
기쁨과 감격을 안고 건느리라

아버님은 병석에 누워서도 어머님에게
장차 당신이 고국을 못가더라도
아들만은 꼭 한번 가보게 하오
쪽바가지를 차고온 우리대신
금바가지를 차고 가보게 하오! ...

그 말씀 지금도 내 귀전에서 울리는듯
이미 흠으로 사라진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시 되살아 나를 방불히 보는듯
손을 저으시며 잘가라 하시는듯

오늘은 주체의 수도 평양으로
이 사나이도 가보려니
눈물의 강이었던 두만강이여
나를 축하하여 춤추며 흐르라

이제 꽃다리만 건느면
그립고그립던 우리의 고국이리
한피줄로 이어진 우리 겨레들은
얼싸안고 진지하게 서로 문안을 하리

두만강아, 오늘은 기쁨의 강 친선의 강아
감격과 흥분을 안고 나도 너를 건는다
내 금바가지는 차고오지 못했지만
동포의 뜨거운 정만은 가득 지니고왔거니

받아다오, 수난자의 후손인 이 이름없는이를
충심으로 올리는 큰절을 받아다오
맑지고 해밝은 아침의 나라
위대한 해와 별 빛나는 나라
마음의 고향, 겨레의 모국이여!

얼싸안자 !

동포들끼리 반갑게 만나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정을 쏟을 때
잠시 잊어버리자, 자기의 국적을
우리는 모두다 한피줄 이은 형제

우리의 몸에선 백두의 뉘 정기뿌리고
천지의 격랑 창창 심벽을 친다
우리는 그저 형님 동생
우리는 그저 누나 언니...

무엇이 더 필요하랴
나라없어 우린 서로 흠어졌다
고국에 계셔도 형님에겐 나라 없었고
이국에 있어도 동생에겐 나라 없었다

우리는 원래 한나라 사람
우리는 원래 고향도 같아
웅위로운 백두성산 혈맥을 따라
저 멀리 제주도의 한나산까지 가보라

놈들이 우리의 조국을 빼앗고
놈들이 우리의 고향을 짓밟을 때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피고름 흘렸었다
피뿐이 아니라 원한의 활화산 터뜨렸었다

더 말해 무엇하랴, 오늘 우리 서로 만났는데
고국은 어머님마냥 사랑의 두팔을 벌려

아들아 왔구나, 후손아 왔구나
따스한 품에 안고 머리를 만져주는데

아아, 눈물이 솟는구나
맑은 하늘을 바라볼수록 눈물만 쏟아지는구나
수풀같이 일떠선 고층건물 바라볼수록
숨쉬는 땅을 지켜볼수록 눈물만 솟구치는구나

다시는 말하지 말자, 서로의 국적을
일본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캐나다에서 왔든
이 세상 한끝에서 왔든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다같은 조선민족
백두의 정기에 자기의 모습 다듬고
천지의 맑은 물에 자신의 넋을 닦은
아아 우리는 위대한 조선민족

그렇다, 세월은 흘러도 피줄은 끊어질수 없는 법
나라가 달라도 얼은 이어지는법
어디에서 사나 어디에서 왔으나
민족의 피줄과 넋만 지니면 우리는 구면

오늘만은 그만 울고 웃어보자
서로의 국적 말하지 말고 하나의 민족이어서
형님 동생 언니 누나 부르며
민족의 태양 우리러 얼싸안자! ...

달이 떴네

오산덕 밤하늘에 두둥실 달이 떴네
보름달 큰달이 밝게 웃어보이네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 얼마나 그리웠나
이밤에도 마음에 새겨보라 은빛이네

백살구과원도 은은한 향기
정다운 박우물도 소리없이 뽕뽕
오산덕밤하늘에 휘영청 달이 떴네
쟁반같은 둥근 달 환하게 떴네

어머님의 거룩한 동상을 우러르라
사적비에 새겨진 업적을 익히라
소리없이 소리없이 은빛을 뿌리네
미풍에도 잔잔히 들려오는 물결소리

발방아간 쿵쿵 소리를 내는듯
고향집의 등불 환히 내비치는듯
달이 떴네, 온 누리에 화한히
빛나는 영상 떠올리며 둥근 달이 떴네

박우물

내 경건한 마음을 안고
고향집 박우물에서 샘물을 떠마십니다
한모금 마시니 부쩍 정신이 나고
두모금 마시니 온몸에 힘솟습니다

한바가지 두바가지 정갈히 뜨시여
고향집물독에 찰랑찰랑 채우시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은 어디로 멀리 떠나시고
오늘은 풍풍 박우물만 남았습니까

누구야 보든말든 언제나 맑고 깨끗이
우물안을 채우는 고향집의 박우물
박우물은 낯선 사나이의 가슴에도
깨끗한 민족의 넋 남실남실 채워줍니다

한없는 품

내 반백이 넘었건만 어쩐지
여기 고국땅에 와선 변했습니다
세살짜리 애들처럼

모든것이 새로와 자꾸만 묻고싶고
모든것이 보고싶던것이어서
자꾸만 자꾸만 보게 됩니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가에 가셔도
풍덩 뛰어들고싶은 마음
꽃피는 모란봉에 올라서도
소리내여 울고싶은 마음

모든것이 새롭기도 하지만

저마다 위대한 창조물들이어서
보기만 해도 애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근로하고 슬기로운 조선사람일지라도
어찌면 이리도 큰일을 해낼수 있습니까
건축물을 봐도 세계의 최고수준
감문을 봐도 세계의 최고수준
예술을 봐도 세계의 최고수준

모든것이 너무도 조선의 떨침이어서
놀라고 감격되어 저는 애가 되었나봅니다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천진하게 젊어지게 하는것이
어머니고국의 한없는 품인가봅니다

후방가족

윤영탁

앞집엔 아들이 땅크병이요
뒤집엔 만딸이 고사총수라
모두다 후방가족 자랑 많지만
내 집에는 아직 다 자란 자식없어...

하지만 지난 봄 우리 농장에
모내기 지원왔던 끝끝한 병사들
한식구나 다름없이 정을 나누며
내 집에서 며칠밤 묵어갔다네

제동생 제조카들 돌봐주듯이
저녁마다 우리 애들 숙제장도 살피주고
고향집뜨락을 가꾸어가듯이
울밀에 앵두나무도 심고갔다네

떠나선 편지도 자주 보내고
표창휴가 받고도 들려간다네
봄이면 꽃속에 오가는 소식
가을이면 열매속에 나누는 기쁨

철이 가고 해를 넘겨도 변함이 없어
배부른 편지들을 날라다주며
아니 글썄 통신원은 우리 집에도
군대에 간 식구들이 있는줄 안다네

아무렴 후방가족 따로 있으랴
친애하는 그이를 어버이로 모신 나라
하나의 크나큰 대가정 무었으니
그이의 전사들은 모두 친혈육
온 나라 집집이 후방가족이라네

아들의 령전에

한창수

창밖에서는 밤새껏 가을비가 은실을 드리우더니 새벽녘에 와서야 하늘끝이 희스름히 열리기 시작하였다.

순영은 멍청히 누워서 천정만 뚫어지게 바라보고있었다.

선고개를 넘긴 나이에 비해볼 때 그래도 말쑥한 축이라고 하던 그의 얼굴에서 종전의 다감스러운 빛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고 이마와 눈언저리에 부채살같은 주름발들이 꼴을 드러내고있었다.

문뜰새로 발뼉발뼉 기여든 새벽바람의 촉감이 몸에 와닿자 순영은 부지중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는 곧장 부엌쪽으로 황황히 걸어나갔다. 팔을 걸어붙이면서 콘로앞에 무릎꿇고 앉던 순영은 그제사 정신착란속에서 허둥거리는 자기 존재를 의식했다.

일시에 맥이 쑥 빠져나갔다.

순영은 그자리에 퍼더버리고 주저앉고말았다.

《그래, 너석은 가버렸지. 이 에밀 췌버리고 갔지... 갔지...》

신음소리 비슷한 피로운 증얼거림이 입밖으로 새나오는데 어느새 그의 좁안에서 성냥꽂이 빠-직하는 아츠러운 비명소리를 지르며 산산이 부서져버리는것이였다.

순영은 요사이 새벽이 되면 자주 이른다.

불과 나흘전까지만해도 이맘때면 늘 바쁘고 그 때문에 매양 즐겁던 순영이고 보면 심상 그럴만도 한일이다.

그에게는 장발한 아들 하나 있었다.

외동딸의 외로움이며 일찌기 《공해병》에 걸려 지지리도 애간장을 말리우다가 저세상으로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며 래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다 그 아들이 대신해주었었다.

몇해전부터는 《등록금》을 돌려서나마 아들을 대학문안에 들여세워놓으니 일종의 희열비슷한 열기까지 꾸역꾸역 피어오르던터였다.

더우기 이맘때 새벽이면 참말 좋았다.

손끝이 닳도록 《양주코너》(술을 고아서 내는 곳) 하나 살려서 간간히 벌어들인 돈으로 아들의 밥상우에 이것저것 듬뿍 놓아주고 점심밥도 푼푼히

꾸저서 가방안에 밀어넣어주는 이맘때가 순영은 참말로 좋았다.

《어허이구...》

심신의 고달픔이 못견디게 엄습해들자 순영은 까부장한 허리에 손을 얹고 터벌터벌 도로 방안에 들어가다가 문턱우에 굳어져버렸다.

《으... 음.》

탁자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록음기가 아프게 눈을 찔렀던것이다. 늘 천음만번의 소리로 모자에게 류다른 기쁨을 안겨주던, 그러나 지금은 멍든 가슴만 허비여주는 물건이다.

눈을 한번 쫓깃하던 순영은 어떤 알지 못할 힘에 끌려서 허겁지겁 그리로 다가가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품안에 꼭 끄당겨안고 어루쓸었다.

《너석아!》

이미 저세상으로 간 아들의 숨결이, 맥박이 금시 들려올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둔탁한 감각만 줄뿐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니 마음속 공백을 메꿔주면서 꿈속에 서처럼 간간히 신비로운 음향이 떠오르고있었다. 봄의 향취를 한껏 돋구어주는듯 은은하면서도 무엇인가 절절하게 호소하고있는 선율, 아들이 것처럼 심혼을 바쳐 지었고 앉으나서나 읊조리던 선율이였다.

악상은 점차 진중해지기 시작했다....

《폭풍의 멜로디를 발견했네요!》

《폭풍? 멜로디?》

《네 어머니, 철운썬 꼭 쇼펜이라니깐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재라고 벌써 명성이...》

《명성?!》

음악선율을 타고 성희의 환희에 찬 목소리며 연방 감탄하던 자기의 음성들이 마구 엇바뀌여 들려오는것도 순영에게는 정신의 우연한 변이현상으로만 여겨졌다.

달밝은 달포전 그밤, 아늑하던 이 방안에서 늦도록 울리던 목소리들이였는데...

꿈같은 그날 일들이 삼거웁처럼 떠올랐다. 바로 아들 철운이의 생일날이여서 더더욱 잊혀지지 않는 날인가보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상보밀의 음식들이 식을가 더울가 초조하게 애들을 기다리고있는데 별안간 성희가 숨이 턱에 닿아 문턱을 넘어서는것이였다.

《아니 어딜?》

《글쎄 빨리요. 호- 지금 철운씨가 악단을, 악단을 지휘하고있어요.》

《뭐라구, 그애가 지휘?!》

《네, 그이가 직접 지은 곡이 지금 연주되고있단 말이에요.》

《그래?!》

성희의 손에 끌려서 허겁지겁 대학강당에 들어서던 순영은 그만 눈이 휘둥그래해져서 걸음을 멈췄다.

정말 아들이 수백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악단을 지휘하고있었던것이다.

아들이 두팔을 짝 벌리고 머리를 흔들 때마다, 팔을 들어 허공을 휘저을 때마다 세찬 격랑이 사품치는듯한 선율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속에서는 박수갈채며 감탄들이 연방 쏟아져나왔다.

《과연 수재요!》

《출중한 재능이 촉망되는 인물이요!》

청중속에서 비발디듯 쏟아져나오는 호평을 감수하며 순영은 연신 눈굽에 손을 가져갔다.

애오라지 아들의 장래에 마음을 얹고 인생의 험로를 다 헤쳐온 어머니의 기쁨을 순영은 처음으로 가슴 그들먹하게 맛보았다.

바로 그날 저녁이였다. 순영이 가산을 다 들이밀어 사들인 모차르트며 슈베르트, 베토벤이며 바하, 쇼팽 등 이름난 음악가들의 음악저서들이 가득찬 그들의 집안에서는 늦도록 웃음소리와 함께 록음기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성희가 낮에 역빠르게 록음해온것이였다.

순영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성희를 눈여겨보았다.

《철운썬 예민한 음감과 명확한 리듬을 가지고있어요. 철운씨의 멜로디는 이제 세상의 그 어디든 가닿을거예요. 아름다운 멜로디는 세상의 그 누구에게나 감흥을 주는 하나의 언어로 되니깐요. 그렇지요, 어머니?》

《그래, 그래!》

순영은 무등 기뻐다.

(조 해죽거리는걸 좀 보지. 예그, 예쁘기두...)

묻는듯하며 자기 속내를 펼쳐보이며 그런 류의 언행속에 은근한 사촉까지 끼워넣어 자기 련인을 끄당기기도 하고 자기 목표를 점령하기도 하는 귀염성스럽고 강직스러운 성희가 숫제 제 살불이처럼 여겨졌다.

《무서워요. 난 막...》

《뭐가 무섭다는거요?》

철운이가 무뚝뚝하게 물으면 《우리 꿈... 호- 깨지진 않겠조?》하고 련정도 곧잘 일으킬줄 아는 성희였다.

《허참... 깨지긴 뭘 깨진다구...》

《에-참.》

이쯤되면 성희의 휘둥하에 들은 숫제 어린애마냥 천진해져서 웃고 떠들면서 손목을 잡고 시위가 벌어진 거리로 달음쳐나갔다. 그러면 또 순영의 마음은 기쁨속에서도 은근한 불안으로 옥죄여 들었고 어수선했던 생각으로 뒤숭숭해졌다.

테프가 다 돌아간 록음기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자 순영은 소스라치듯 환영에서 깨났다.

《후-》

현실이 아닌 추억속에, 추억이 아닌 암담한 현실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오열에 몸을 떨었다.

아팍하였다. 전신의 피가 빠직빠직 말라드는듯 온몸이 건잡을수 없이 밀으로 찾아드는것이였다. 그런속에서도 뉘쩍진 푸념이 계속되였다.

《너석아... 이 너석아! 넌 어쩌서 이 예밀 버렸느냐, 응?! 너석아!》

순영은 그만에야 방바닥에 어pu려져버렸다.

참말 그에게 있어서 외아들 철운이는 목숨처럼 의지하는 기둥이였고 기쁨과 희망과 락의 전부였었다. 그러나 아들은 야속하게도 어머니가 것처럼 기원하던 재능도 래일도 그리고 이 흠에미까지 버리고 영영 가버렸다.

천만뜻밖에도 그 아들은 시위에 나섰다가 몸에 불을 달고 옥상끝에서 자결하였던것이다.

어지러운 세상과 아주 인연을 끊으려는듯 순영은 때문에 빗장을 꼭 짚어놓고 한낫이 되도록 집안에 못박혀있었다.

대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흠칫 놀라서 창밖을 내다보던 순영은 못볼것이라도 본듯 얼른 돌아앉는것이였다. 밖에서는 지뫼게도 인적이기 났다. 하지만 순영은 잊은듯이 그렇게 요지부동으로 앉아있었다.

아들이 운명한후 그의 《데모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렇게 찾아드는것이 순영에게는 알량한 동정이나 들고다닌다고 알밋게 여겨졌다. 그네들의 꼬드김에 들어 아들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영이였기때문이었다.

사위가 즈름하여졌다.

《계세요. 어머니?》

이번에는 펍 귀에 익은 처녀의 포랑포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 애가?!)

뜨락으로 허둥지둥 달려나간 순영은 황급히 빗장을 뽑아들었다. 찌그렁 하고 대문이 열리더니 성희가 방석이 웃으면서 들어서는 것이었다.

《어머니!》

《네가 왔구나. 네가, 응!》

순영은 터갈라진 손으로 성희의 등을 밀어 방안으로 이끌었다. 부산스레 앉을 자리를 펴느라고 원심을 쓰는 순영을 측은하게 쳐다보던 성희는 입술을 꼭 깨물면서 머리를 떨구는 것이었다. 몹시 축가고 초췌해진 순영의 신상이 어떤 몽푼한 것으로 속을 뿌-욱 내려놓는 듯한 아픔을 주었던 것이다.

《어머니, 이것 잡춰보세요.》

성희가 풀어놓는 보자기에서 김밥과 김이 문문 떠오르는 파국이 나왔다.

순영은 속이 몽쿨해졌다.

《건 뭘...》

《혼자서 때식도 못하셨죠?》

《흠... 넌 그래 아직도 그 녀석을! ...》

불현듯 아들생각이 치밀어 눈물이 울컥 솟구쳤다.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손톱여물만 썰던 성희가 축축히 젖어든 눈길을 드는 것이었다.

《제가... 제가 어머니를 모셔요, 네.》

《뭘, 네가?!》

순영은 자기는 이미 그런 권리를 상실한 여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뻔뻔스럽고 렴치없는 아낙네로 저주받게 될게고 더구나 성희의 깨끗한 몸에 수치와 환멸이 섞인 어떤 노랑고 파란색의 티를 감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위구심이 예리한 머리끝을 세우고 쳐들어왔다.

《안된다, 안돼! 너까지 화를 입자구... 흠- 다른 에미손에서 자란 자식도 효도하겠다는데 그 녀석은... 그 녀석은...》

이 순간처럼 아들녀석이 야속하고 민망스러운 적은 일찌기 없었다.

《왜 그렇게 실망하셔요. 네 어머니, 철운씨처럼 악을 부시는 마당에서 굳게 사셔야지요. 네.》

《아서라. 그런 소리 이젠 막 지겹스름다!》

천진스럽다고 할지, 고집스럽다고 할지, 성희는 한무릎 나앉기까지 하면서 응석 비슷한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싫은게요, 어머니?》

《자식두!》

온몸, 온 마음을 휩싸안은 살뜰한 정에 못이겨 순영은 그의 손을 또 한번 덥석 잡아쥐었는데 회고 보듯보듯한 그 손등위로 방울방울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슬픔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뒤바뀌어 추석날이 왔다.

자고로 부자간의 도리와 정성과 화목을 꽃피운다는 절기이지만 이 가을에 순영이가 맞은 추석날

은 가뜩이나 쓰리고 아픈 그의 속만 더 우버넬뿐이었다.

추석날이 오면 이 마을 녀인들에게는 류다른 관습이 있었다. 해가 떨어질 때 일명 《부인동창회》라고 부르는 녀인들의 모임이 어느 집 아니면 가까운 다방같은데서 열리는데 녀인들은 여기에 와서 세상을 떠나간 조상이며 남편이며 혈육들을 회고하면서 두텁게 쌓인 시름도 풀고 나눈다.

이웃집의 권유도 있고 아픈 가슴 달래볼가 하는 미련도 있어 순영이 회가 열린 《희망다방》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는 한창 아들딸 자랑으로 화제가 오르고있었다.

《고향내기들 대번에 눈이 소발통만큼해졌어. 우리 바이올린 〈왕자〉의 연주가 완전히 성공했는기요.》

경상도집이 함지박만한 입을 쩍 벌리고 하하 한다.

순영은 아들 철운이의 모교선배인 그녀의 아들이 랑친을 다 데리고 지방순회공연을 다녀왔다는 소리를 얻어들었던터였다.

이번에는 맞은편에서 제주도대기가 지지 않으려듯 난딱 일어서는 것이었다.

《에그, 그게 무슨 대수라구 참. 우리 〈도련님〉은요 서울서 든든한 뺨을 만나 한자리 벌었다구 글썽 이 에밀 서울 한복판에 모셔가겠대요. 아우참, 참말 아들덕이 은덕이쥬. 호호...》

분수없는 녀인들의 입방아가 슬픔에 잠긴 순영이의 가슴을 아프게도 매질하고있는줄 그녀들은 알기나 하는지 순영이 손에 들었던 송편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야 녀인들은 불행한 수난자를 돌아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웃집이 어성버성한 분위기를 굶뵈려고 약삭바르게 순영이앞에 놓여있는 록음기를 끄당겨 틀어놓았다.

열백번 들어온 그 선율이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순영의 마음속 상처를 가져주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은 것이었다. 오히려 아들의 민망스러운 처사를 강조해줄뿐이었다.

현기증이 와서 비칠거리면서 겨우 다방을 나선 순영은 길옆의 전주대에 몸을 지탱하고 무너지는 듯한 가슴을 모질게도 쥐어뜯었다.

(아, 녀석아, 넌 어째 목전의 성공을 버렸느냐, 응, 녀석아!)

가슴속에 차넘치는 설음과 비애의 눈물이 가을날의 장마비처럼 짙짙 쏟아져내렸다.

그때 다방안에서 별안간 웅웁 고향질소리가 나더니 음악이 푹 끊기우는 것이었다. 순영은 금시 심장의 박동이 끊어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며 그리로 머리를 돌렸다. 녀인들이 우르르 밖으로 밀려나왔다.

어디선가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더럭 겁이 났다.

난데없이 다방안에서 잠바를 걸친 안경쟁이 젊은이가 눈살을 찡찡이 세우고 나왔다.

그 젊은이는 경찰들에게 뭐라고 시가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보매 《안기부》가 틀림없었다.

경찰의 행패질이 시작되었다.

《그따위 노래 누가 들으라고 했는가!》

경관의 서슬푸른 기상에 녀인들은 목을 움츠렸다.

《좌경용공을 선동하는 노래같은데...미군이 어쩔소, 당국이 어쩔소... 이게 이북의 〈통일로선〉을 찬양하는 불온노래가 아니고 뭐가!》

아들이 작곡한 노래에 엄청난 딱지를 붙여가면서 다붙어대자 순영은 속이 꿈틀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그리로 다가갔다.

《아니 그게, 그 노래가 어쨌대요?!》

《?!》

경관과 경찰들의 살기쁜 눈길과 녀인들의 의혹에 찬 눈길들이 순영을 지켜보고있었다.

《그 노래는 내 아들이 지은 노래요. 술한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해준 노래란말이우!》

순영은 뻔 버티고 서서 담대하게 소리질렀다. 아들을 옹위하려는 어머니본연의 모성이 연약한 자기에게 이처럼 큰힘을 줄수 있다는것을 그자신도 여적 몰랐다.

《음, 그러니 당신이 이번에 데모에 나가 몸에 붙을 달아 죽었다는 그 미친자식 예민가?!》

순무하사의 꼬집는듯한 독설이 비수처럼 순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만 눈앞이 아찔해진 순영이 아연해져서 넋없이 사위를 둘러보는데 한발 옆에서 지켜보던 내무반장이 이번에는 막대기같은것으로 그의 가슴을 쿵쿵 찌르는 것이었다.

《이년도 미친게 아니야. 미쳤지, 미쳤지!-》

참혹하게 들쑤여지는 모멸, 공포...

그렇지 않아도 뜻밖에 아들의 희생으로 쇠진해 질대로 쇠진해진 순영은 그만 까무라치고말았다.

순영이 정신을 차린곳은 자기 집 마루바닥이었다. 녀인들이 엮고온 것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아니 그보다도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아들녀석이 역증스러워났다. 한뼉 뒤바라지에 부대끼게 하고 운동바람에 속을 쥐여짜게 하더니 죽어서는 또 이런 멸시와 구박을 남겨놓은 아들이었다.

막막하고 원통한 그의 가슴속에 아들에 대한 원망만이 한층두층 충체를 이루며 쌓여지고있었다.

《불효막심한 녀석같은이라구. 성공이 약속되어 있다더니. 그래 성공을 해서 이 예뻐 기쁘게 하면 못쓴다드냐 응, 이 녀석아! ... 아, 이 세상 이 하늘 땅 꼭 맞붙어라, 맞붙어!》

순영은 아들이 옆에 있기라도 한듯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쿵쿵 두들겼다.

속박과 고달픔과 암담함의 낭떠러지에 깊숙이 빠져든 순영에게 속이 잔뜩 빼뿔어진 이북에미처럼 각박하기도 한 세상이 번덕을 부려 한줄기 인정을 선사해주는듯싶었다.

순영의 남편과 자별한 사이였던 림기춘이 그래도 친교를 잊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왔던 것이다.

《학장이라니?!》

《인사 늦었어요. 그 림기춘선생이말이죠. 이덕아드님이 다니던 대학학장으로 부임해 오셨다니깐요.》

《림... 그 어른이?!》

순영은 느닷없이 울렁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면서 손님을 방안으로 맞아들이었다.

《학장선생님은 바빠서 못오시고요. 이걸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전임운전사라고 하는 림기춘의 인편은 무척 레질이 밝고 몸이 가벼운 사람이었다.

림기춘이 보냈다는 돈봉투속에 금할수 없는 옛정도 담긴듯하여 순영은 눈굽이 뜨끔뜨끔해지는것을 느꼈다.

《그 량반 여태 기별이 없더니 어쩔...》

《학장선생님은요 부인님 건강에 대해서도 몹시 걱정하고있어요.》

《원 참... 좀 앉아게서요. 내 인차 뭘 좀...》

《아니 저 전말이에요. 몹시 바빠요.》

팔목의 시계까지 내보이며 굳이 사양한 운전사는 몇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야 문밖을 나섰다.

운전사를 보내주고 돌아온 순영은 무릇 림기춘이를 만나보고싶은 충동이 밀려들었다. 결혼식때 마지막으로 보고는 여직 소문으로만 소식을 전해들었지 감감 잊을뻔했던 림기춘이었다.

림기춘은 그의 남편과 중학시절 무려 3년간이나 한책상에서 떨어져본일 없이 이마를 맞대고 보냈다. 본시 사려가 세밀하고 처세술에 능한 림기춘이 과묵하면서도 불끈거리길 잘하는 남편과 늘 어울려 다니는것이 짝에 맞지 않을상싶었지만 실상은 한쪽의 단점을 한쪽이 보충해주고 메꿔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꿰물래야 꿰물수 없는 관계로 맺어놓았다.

결혼식날에도 소리를 한다는게 빈달구지 굴러가는 소리만 하는 남편의 노래가락을 제격 받아넘겨 어색한 분위기를 굶뎌것이 바로 림기춘이었다.

따뜻한 애무와 인정과 평온에 너무도 주렸던 가슴에 찾아든 림기춘의 손길은 순영이 암흑속에서 찾은 한줄기 빛이기도 하였다.

(그 어른을 뭘 좀 도울순 없을까?)

순영은 아들이 있던, 지금은 고마운 그 사람이 있을 대학가쪽을 이윽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별안간 대문이 열렸다. 예쁘장한 처녀가 깡충한 코트자락을 날리면서 들어서는 것이었다. 성희였다.

(허참, 오늘은 기쁜이들만...)

순영은 얼른 그를 마주 향해 부엌문을 나섰다.

《애, 얼어질라 윈.》

《어머니!》

《응, 어서.》

전에 없이 밝아진 순영의 얼굴을 한동안 쳐다보던 성희는 입가에 보조개를 살짝 피우는 것이었다.

《기분이 좋아지셨네요.》

《응, 오늘은 막... 네가 왔지. 좀전엔 또 새로 왔다는 학장어른이 인편을 보냈지. 허허 참...》

《네-에? 학장이요?!》

학장소리에 반사적이라고 할만큼 금시 의아쩍어하던 성희가 어조를 바꾸어서 입을 여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뭐게?》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방안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성희는 가방안에서 신문지 하나를 꺼내드는 것이었다.

《철운씨의 동료분들이랑 수태 노력해서 글썽 그이가 작곡한 노래들을 신문에 발표했다니까요. 자요, 좀 봐요... 〈통일 나의 삶〉...》

작곡과 성공... 하긴 얼마전까지만해도 그것들은 쓰고도 단 순영이 마음의 의지점이기도 하였다. 그리도 숭배하면서 기쁨을 찾던 희망과 미래이기도 하였다. 현대 다름아닌 그것들로 해서 아들녀석의 무모한 죽음이 빚어진게 아닌가.

순영은 무섭게 엄습해오는 공포에 몸을 떨며 오열을 삼켰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고맙긴해두 그제 되려... 화거린것 같구나.》

《네-에?》

성희의 얼굴이 대번에 해쓱하여졌다.

《넣어둬라. 그거랑 저것들이랑 다 가져가서 너만이라도 성공을...》

자기 심신의 기대와 땀이 스며있고 아들의 뉘이 깃들여있는 책자들을 돌아보며 순영은 어느때없이 말을 떠듬거리면서 말꼬리를 감추는 것이었다.

성희는 놀랍고 서럽고 허전한 감에 못이겨 머리를 떨어드렸다.

《포-호》

《아니 너 왜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그럼 왜, 응?》

주짓거리던 성희는 몸을 단정히 하고 애원하듯 절절하게 입을 여는 것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이 동료분들이랑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걸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왜 저희들을 못미더워서 그러시는지 리해 안돼요. 어머니!》

《내가 널 못민다니 응, 그제 무슨 소리냐. 난 그저 너만이라도 성공하길 바래서 그러는거다.》

순영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성공이요?!...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전 어머니가 바라시는 성공이 어떤건지 왜서인지 의혹이 생겨요.》

순영은 억이 막혔다. 허공중 날아가버린 그 소원의 한가닥이라도 이제 그에게나마 얻어볼가했으나 그것마저 버림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니 애, 그이상 바랄게 또 뭐 있냐 응. 그러면 너희들도 이 예미도 얼마나...》

설음이 복받친 순영은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야참, 어머니. 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셨으면 해요.》

성희는 입술을 꼭 깨물고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나갔다.

《온통 악으로 가득찬 이 사회에서 그렇게 저하나만을 위한 성공이 무슨 성공이겠어요. 전 그건 투항이고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운씨도... 목전의 성공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이 사회에 항거한게 아니예요, 어머니!》

《뭐?!》

...숨막힐듯한 침묵이 흘렀다.

상반되는 감정은 이제 좀 더 화제가 오르게 되면 무자비한 폭발로 터져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두녀자를 예리하게 자극하였다.

순영은 입을 꼭 봉하고 허물어지는 듯한 가슴에 손을 가져다댔다. 금시 심장이 가슴을 뚫고 터져나올 듯했다.

순영의 허무한 눈길이 문득 한곳에 이르러 멎어섰다.

성희의 옆에 놓인 들가방 한쪽으로 빠져나온 흰 천말이가 또 한번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다.

《건... 뭐냐?》

성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주저주저하던 성희는 그 천말이를 끄집어내어 순영의 앞에 주욱 퍼놓았다.

흰천우에 새겨진 글 《백두-한나대행진대발족식》이 순영을 다시한번 크게 놀라게 하였다.

《아니 애, 그럼 너 아직두 데모에?!》

성희는 입술을 피나게 꼭 깨물고 나서 저도 모르게 혼연하여지는 어조로 대답하였다.

《어머니! 저희들은 낳아준 한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중에게 참답게 효도하고 싶어요!》

성희는 어찌선지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애야, 제발 마음을 앓혀라. 내겐 네가 아들맛잡이야. 아들 맛잡이!》

《호-》

성희는 눈물이 뽀얗게 앞을 가리우더니 어느새 무릎우에 툭툭 떨어져내리는 것을 느끼자 고개를 외로 틀었다.

성희의 거동에서 이상한 기미를 느낀 순영은 금시 그가 자기를 내동댕이치고 달아나버리기라도 할 듯 그를 와락 끄당겨 품안에 꼭 껴안았다.

성희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채 집을 나가버린지도 나흘이 지났다.

순영은 줄곧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앞에 무릎이 시리도록 꿇어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속죄를 하였다.

허사였다. 점점 숨막히는 공허감과 적막만이 엄습해왔다.

이젠 《양주코너》에 나가 아득바득 돈푼이나 쥐여야 생계를 유지해나갈수 있겠지만 세상만사가 다 귀찮아졌다.

거리에선 또 시위가 터졌는지 고함소리, 최루탄 소리가 연방 들려왔다.

순영은 발작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활활 끄당겨 달아버렸다. 그 거동은 흡사 세상을 등진 녀인이 천지의 진동에 떠는 자기보신의 상아탑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광경을 연상케 하였다.

창출간 성희에게 생각이 미치자 순영은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애가 흑... 그 때까지 날 버리면 정말... 어허이 구...》

거리쪽에서는 시위의 함성이 점점 더 크게 더 우렁차게 메아리쳐왔다.

《내가 왜 이러고있노?》

두서없이 몸에 옷을 걸친 그는 헤덤버치며 트락에 나서서 출창 거리쪽을 향해 종종걸음을 놓기 시작했다.

아빠트들이 어설피게 들어선 소로길에 들어섰을 때 재빛 《포니》가 소리없이 옆에 와 멎었다.

《아주머니!》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틀진 몸가짐의 사람은 뜻밖에도 림기춘이었다.

《아니, 아주버니가?》

《이것참, 얼마만입니까, 아주머니!》

《예 참, 정말...》

철운이의 모교인 사대학학장 림기춘과 순영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다.

《참, 일전에 돈까지 보내줘서 정말...》

《별 말씀을 친구지간에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주버니두 참.》

순영은 황송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했다.

《우리 집 사람도 몹시 걱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벌써 절 찾아오셔야지요. 왜 혼자 속을 태우시면서 참.》

《못난 아들녀석 죄스러워서... 어디 체면이 서더라구요.》

잠시 먼발치를 바라보던 림기춘이 조용하나 마디마디 그루를 박아 입을 여는것이였다.

《저 아주머니, 저를 한가지 도울수 없을까요?》

《뭘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줄곧 림기춘을 도와 무슨 일이든 힘자라는것 하는것이 아들일로 웅색해졌을 그에게 속죄하는것으로 되고 도리를 지키는것이라고 생각해오던 순영이였었다.

《아주머니, 학생들앞에서 연설을 한마디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설이요?》

《예.》

《제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다. 그저 아들을 타이르듯 운동에 환장해서 앞뒤를 못가리는 학생들을 일깨워주면 됩니다. 사실 지금 맥의 아들 영향을 받아 일부 과격한 학생들이... 참 그들이 그러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좀 잘 타일러주시우. 지금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네들한테 큰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

순영은 군중앞에서 연설한다는 엄청난 사실에 더럭 겁이 났지만 림기춘을 돕는 일이라니 뿌리칠수도 없는 일이어서 기연미연 대답하였다.

림기춘과 헤어진 순영은 착잡한 생각에 빠져 항방없이 걸음을 옮겼다.

먼발치에서 적수공권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한벌 쪽 널려져서 경찰들과 조우하고있었다.

경찰차에서 매캐한 냄새를 풍기면서 설세없이 최루탄을 쏘아댔다.

순영은 정신을 가다듬고 성희를 찾아 발걸음을 다우쳤다.

《김철운렬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화우들이여! 민중이여! 렬사와 함께 통일의 제단에 우리모두 나서자!》

수십명의 목소리가 거기에 화답하여 뿜어번졌다.

(김철운?! 렬사?!)

순영은 자기가 착각하고있지나 않는가 하여 눈을 치뜨고 그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시위군중 가운데로 우뚝 솟아올라 선동하던 너대생이 이번에는 메가폰을 하늘공중 높이 쳐들고 흥분으로 떨리는 목청으로 떠염떠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가자 가자 구름너머 백두로

오라 오라 장벽개고 한나로

삽시에 노래는 대합창으로 번져졌다.

폭풍을 일으켜 격랑을 솟구쳐

외세를 몰아내자 악을 부시자...

너무도 귀에 익은 곡조였다. 아들이 지은 그 곡조였다. 아들이 터치던 그 노래였다. 바로 그 노래

가 저렇게 수천사람의 입에서 불리워지고있는것이 아닌가.

노래의 힘찬 울림인듯 군중은 흥분으로 뒤설레었다.

손에 손을 맞잡은 수백의 주먹들이 창공을 치뚫고 솟구쳐올랐고 하늘과 땅을 진감하는 노래소리가 계속 와와 터져오르고있었다.

《아!》

순영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메가폰을 든 녀대생이 다름아닌 성희였기 때문이었다.

황황 흥벽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가슴이 사정없이 오르내렸다.

모를 일이었다. 위구, 절망, 원한... 이러한 얼룩진 감정만 몰아오던 아들의 죽음과 그 녀이 여기서는 어쩌서 저리도 장한것으로 떠받들리고있는것인지 순영은 그 진가를 자기도 알고싶었다.

빨리, 어서, 몹시 알고싶었다.

시위대렬이 성난 파도인양 기세차게 밀려가더니 경찰저지선을 단숨에 박차고 나가있었다.

순영은 불길불길한 그 얼굴들속에서 머리에 흰수건을 질끈 동어맨 성희를 그제사 띄어볼수 있었다.

《애야!》

이때 성희도 길 한복판에 나서있는 순영을 알아보고 멈칫 걸음을 멈추었다.

두 녀자의 눈길이 허공에서 금속성을 낼듯이 예리하게 부딪쳤다.

다음순간 성희가 순영에게로 다급히 달려왔다. 그리고는 말없이 순영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순영은 어쩌선지 눈물이 핑 돌았다.

《땀이나 씻으렴!》

《어머니 저...》

성희는 불쑥 철운이가 그 마지막날에 주고간 편지생각이 나서 품속 깊숙이 손을 넣었다. 하필 이런 다급한 정황속에서 편지생각을 하다니...

머뭇거리던 성희는 품안 깊숙이에서 손에 닿는 그것을 꺼내들었다.

《?!》

《실은 철운씨가 저한테 남긴건데. 어머니, 이걸 꼭 보세요!》

《뭐게?》

《글쎄 꼭... 보시래두요.》

성희는 한동안 순영을 간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을 꼭 감고 돌아섰다가 그냥 다시 대렬속에 뛰어들었다.

《애, 성희야!》

더러 겁이 난 순영은 허둥지둥 그의 뒤를 쫓아 정신없이 달음박질쳤다.

그러나 노호하는 시위의 물결은 그를 사정없이, 사정없이 길 가너으로 밀어내버렸다.

순영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뉘없이 성희네들의 뒤를 따라가고있었다.

성희가 주고간 종이생각에 순영은 걸음을 늦추고 인적이 뜸한 길 한구석에 나섰다.

종이를 펼치는 손이 몹시 떨렸다.

눈에 익은 필치가 확 안겨왔다. 그렇다. 아들 철운이의 글이다.

순영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듯 걸탐스럽게 글줄에 심혼을 쏟아부었다.

《...》

자주없이 민주없이 우리의 꿈이 실현될수 없지 않아. 통일을 이루고 그 희망조국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피보자던 우리가 안야...》

욱 하면 류달리 커지곤하던 아들의 응글은 목청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 성희양! 어두운 이 세상 뒤엎고 그 조국 이루고자 정의의 제단에, 통일의 제단에 이 몸을 던지길 결심하였소. 부탁컨대 이 몸을 불씨로 해서 량심과 정의의 불길을 활활 지펴서 사뭇치는 우리의 격랑이 반드시 백두산에 가당게 해주길 절절히 바라오.

지금 이 시각도 떠오르는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 이 자식 뒤바라지에 일찍 허리굽혀진 나의 어머니!

성희양과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중과 함께 통일마당으로 달려오는 격랑을 뜨겁게 맞고싶었소. 그리고 백두산으로 가고싶었소. 희망의 조국에서 그리도 내 희망 마음껏 나래펴고싶었소! ...》

순영은 두볼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것을 닦을념도 못했다.

포근한 입김같은 아들의 체취가 몸에 폭 배여들여오는것이였다. 아직은 그로써 다 알수 없는 어떤 크나큰것이 뇌리를 황황 두들기기도 하는것이였다.

가자 가자 구름너머 백두로

오라 오라 장벽깨고 한나로

저쪽 멀지 않은곳에서 또다시 그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저기서 지금 성희 그애도 주먹을 내휘두르면서 저 노래를 부르고있을테지.

안식과 사랑과 꿈많은 래일... 그 귀중한 모든것을 민중과 통일과 잇닿은 크나큰 일에 서슴지 않고 내대는 저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들의 이 한 어머니는 광활한 세상의 어두운 구석 좁은 울타리안에서 세월의 세파에 순종하는 가없는 존재라는 피할수 없는 결론앞에 순영은 머리를 떨어뜨리고야말았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알수 없는 격렬한 숨결이 세차게 래동하고있었다.

순영은 억누를수 없이 솟구쳐오르는 그 힘을 의식하자 저도 모르게 시위행렬속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여기 계시는걸… 부인님, 빨리 저와 함께 가요.》

난데없이 림기춘의 운전사가 험레벌떡 뛰여와서 두서없이 뱉는 말이었다.

《어디루?!》

《지금 말이죠. 학장선생님이 급히 찾으신다니깐요.》

《예?》

운전사가 턱을 돌려 의심쩍게 뒤를 돌아보았다. 림기춘의 《포니》옆에 또 한대의 검은 승용차가 서있었다. 차안에 조는듯이 앉아있는 안경낀 젊은이가 어렴풋이 띄워보였다. 낮이 익었다.

(어디서 꼭 본 얼굴인데…)

느닷없이 그 젊은이의 코등에 걸려있는 은테안경(요새 많은 젊은이들속에서 유행되는 저런것이 일본산 은테안경이라는것을 아들 가진 순영은 먼발치에서 형태만 보고도 인차 알아볼수 있었다.)이 그의 2 중적성격을 부각시켜주는듯싶었다. 순영이가 눈을 습벅거리면서 생각을 더듬는데 운전사가 그쪽에서 시선을 떼며 소리죽여 말하는것이였다.

《글쎄 흥-참, 그 어른 일을 어디 알겠더라구요.》

《?!》

《학생들은 어용학장이라고 주먹손 쳐드는데 글쎄말이죠. 부인님에겐 또 어울리지 않게… 나참, 무슨 감투끈인지 어디 알겠나.》

어떤 암시가 섞인듯한 운전사의 푸념에 순영은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요?!》

순간 순영이의 머리속에는 남편의 병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림기춘을 찾아가 손을 내밀자 아닌보살하고 돌아왔더라던, 아들의 울먹거리던 얼굴이 피곳 떠올랐다. 그리고 요즘 아들이 운명한후에는 이상하리만큼 호의를 던지는것이 의심쩍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애써 그것을 부정하면서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차안에 몸을 실은 순영은 림기춘과 아들생각에 움하여 떨어뜨린 머리아래의 치마폭을 움켜잡아진, 자기의 피줄이 툭툭 튀여오르는 손등을 눈뿌리 아프도록 내려다보았다.

순영이가 대학가에 당도하였을 때 거기엔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와와 끓고있었다. 태반이 학생들인듯했다.

림기춘이 문가에 나타나 차를 세웠다.

《오셨군요.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어서… 저기 가서 연설 한마디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설이요?!》

연설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순영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어리둥절 사위를 둘러보며 차에서 내려선 순영이 앞으로 갱뿔한 안경쟁이 사나이가 다가오고있었다.

《저 사람이 안내해줄겁니다. 그럼, 아주머니, 부탁합니다.》

림기춘은 의미있는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교문안으로 들어가버리는것이였다.

《가십시오, 부인님.》

순영은 기계적으로 사나이의 뒤를 따라 집회장 한옆으로 터벌터벌 걸어가고있었다.

이때 쉬쉬하며 순영이쪽을 힐끔힐끔 돌아보던 사람들중 한 남학생이 놀랍게 소리지르는것이였다.

《철운군 어머니다!》

다음순간 의아한 눈길들이 순영이에게로 쏠렸고 뜻밖의 그의 출현이 의외인듯 이쪽저쪽에서 웅성웅성거렸다.

사나이가 순영을 웅색한 순간에서 구원하여주려는듯 팔을 내저으며 목청을 돋구는것이였다.

《이 부인은 연설하러 오셨소. 연설하러.》

연설이란 소리가 또한번 순영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연설… 연설…)

연락앞에 거의 다달았을 때 한발앞에서 안내하던 사나이가 순영이옆에 바투 다가서는것이였다.

《마음을 꼭 가라앉히시고 그저 운동에 미쳐서 앞뒤를 못가리는 저것들의 무모한 짓을 엄히 깨우쳐주면 된단िका요.》

《예?》

순영은 그제야 리성을 찾고 그 사나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앗!》

그 순간 순영은 불에 덴것처럼 외팔 놀랐다.

잊을수 없는 그 추석날 저녁 다방에 달려들었던 그 작자, 아까부터 유령처럼 뒤따르던 그자가 틀림 없었다.

(이놈이 어떻게?)

군중이 웅성거리자 사나이가 날렵한 동작으로 연락앞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손에 드는것이였다.

《여러분, 정숙해주시오. 정숙해주시오. …

우리의 학우였던 김철운군의 어머니가 여기에 왔습니다.》

술렁거리던 장내는 순간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지고 의혹과 실망과 기대가 뒤섞인 눈길들이 순영에게로 날아들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어머니의 호소에서 여러분들 모두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따뜻한 애무와 타이름을 듣게 될것입니다.》

사나이가 넘겨주는 마이크를 엉겁결에 받아든 순영은 떨리는 다리를 끌며 몇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음을 다잡고 주위를 쪽 훑어보았다.

앞에 옆에 끝간데없이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수풀처럼 펼쳐져있었다.

그순간 순영에게는 이들속에 성희도, 그리고 아들 철운이도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상하리만큼 확신적이었다.

《으…음.》

몇번 갑자르던 그의 입에서 드디어 태동하던 심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나는 오늘 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당신들의 눈동자에서, 지축을 흔드는 당신들의 발구름소리에서, 그리고 온통 하늘과 땅에 넘치는 노래소리에서 나는 분명히 내 아들의 넋을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은 참으로 장한 아들이예요.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서 막 울고싶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눈이 멀었던 이 너인에게 자랑스러운 내 아들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습…》

군중속에서 터져오르는 박수로 하여 그의 말허리가 끊기웠다.

숨이 차올라 잠시 마른침을 삼키며 군중을 둘러보던 순영의 눈길이가슴아픈 추억이 깃든 《부인동창회》 너인들이 서있는 한쪽에 가서 한동안 멎어섰다.

순영은 가슴을 쭉 내밀고 다시 마이크앞에 입을 가져다대었다.

《정말이지 내 아들은 화려한 무대도 버렸고 이에밀 서울 한복판에도 앉혀주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머니들이 받아안을수 있는 기쁨중에 제일 큰 기쁨을 안겨주고있어요. 그리고 제일 값비싼 행복을 가져다주고있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식을 낳으려면 우리 철운이같은 자식을 낳으세요.》

그쪽에서 먼저 박수가 터지자 또다시 온 장내가 뒤설레이었다.

격정에 휩싸여 얼굴을 돌리던 순영은 악의로 이그러지는 림기춘과 은테안경 사나이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순간 무엇인가 탁 부닥치는 예감에 마음이 고음의 현금줄마냥 팽팽하여진 순영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로 한걸음한걸음 다가갔다.

의아해진 군중의 눈길이 순영을 주시하고있었다.

《당신은, 당신은 위선자지요!》

순영은 품안에 간수하고 다니던 돈을 끄집어내서 림기춘이앞에 밀어놓았다.

눈알이 뒤집힌 림기춘은 급해맞아 어리손을 치는것이였다.

《아, 아니 부인, 당신은 누구…누굴…》

순영은 입술을 깨물고 한발 더 다가섰다.

《누군 누구겠소. 당신들은 왜 저사람들을 모해하자고 하는거요. 왜 저 사람들의 일에 훼방을 놓자구 그렇게두 비렬하게 행동하는가말이우!》

은테안경 사나이가 사태를 수습하여 불 심산인지 기신기신 순영이앞으로 다가오는것이였다.

이때 군중속에서 《〈안기부〉를 해체하라!》, 《어용학장 물러나라!》 하는 열기띤 소리들이 터져올랐다.

위선자들은 급해맞아 꼬리를 사리느라고 찢찢매였다.

군중의 함성은 《90 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 이룩하자!》, 《백두-한나대행진 결단코 실현하자!》 이런것으로 번져져 더욱 격렬하여지고있었다.

순영은 눈물과 한숨이 타고난 운명인줄 알았던 자기의 연약한 작은 몸도 하나의 물방울로 이 거대한 격랑의 바다에 합치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억제할길 없었다.

꼭절많은 인생의 쓰라림과 때늦게 깨달은 아들의 참된 효성, 그것들이 잉태되어 솟구치는 격렬한 심정을 순영은 세상이 다 듣도록 터치고 또 터치고 싶었다.

마이크를 파악 움켜잡아쥔 그의 입새에서는 어느덧 사연많은 노래의 구절구절이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폭풍을… 일으켜… 격랑을 솟구쳐
외세를 몰아내자 통일을 이루자…

노래는 하나, 둘 수십수천사람들의 입으로 입으로 번져가고있었다.

여기서도 와와, 저기서도 와와… 폭풍이, 격랑이 거세차게 굵이치고있었다.

순영은 한껏 부풀어오른 가슴우에 두손을 정히 포개었고 멀리 무등산, 아들이 누워있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너는 죽은게 아니다. 그래 정말 넌 이에밀 버린게 아니였구나!)

이때 뒤설레이는 군중속을 헤집고 나와 총알처럼 연탁앞으로 뛰어오르는 한 너대생이 있었다.

《어머니!》

성희였다.

《성희야, 애야!》

두 너인은 수천사람들의 다함없는 축복속에서 뜨겁게 뜨겁게 부둥켜안았다.

5 월

류항모

잎푸른 아지에
5월이 앉았다고
봄이 오라
광주의 피젖은 거리거리에

아직도 열세해전 원쑤는 살아
저렇게 활보하는데
풀지 못한 원한을 안고
피는 꽃을 아프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디 갔느냐
자주를 불러
민주를 불러
목놓아 웨치던 그날의 열혈청춘들은

어디 있느냐
땅크밑에 짓몽개저도
대검에 찔려 창자를 쏘으면서도
펄펄 뛰던 열혈청춘의 넋은

원통코나
-미군 나가라

-살인마 찢어죽이라
주먹으로 허공을 찢으며 나가던
그 웨침은 메아리로 그냥 남아...

잃은것은 피와 뿌려진 살점
때아닌 5월의 략엽
허나 찾은것은 죽음을 딛고 일어나
충돌고 안아본 열흘낮 열흘밤
자유의 그 봄

그 봄의 열흘을
천날만날 무궁한 통일세기로 잇대기전에는
꽃도 아니 필
잎도 아니 푸를
광주의 5월

아! 광주의 5월이여
너는 이 민족의 심장에 가지 않는 봄
오고 오는 5월에 도화선을 달며
값비싼 봄은 마침내
통일의 봄을 불러오리

우리 나라 역사유적

굴포유적

굴포유적은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마을 산기슭에 있다. 이 유적이 있는곳은 바다가지대이다.

이 유적에서는 혈암을 때려서 만든 원시로동도구들과 차돌로 만든 《석핵》, 한쪽 모서리에 날을 세운 청록색의 돌도구 등이 나왔다. 이 원시유적은

유물들의 특징으로 보아 구석기시대의 중기 또는 후기의 유적으로 보고있다.

이 유적은 우리 나라에서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살고있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확정하여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